

제 1 교시 나무아카데미 국어영역

나무아카데미
무료 국어 월간 자료
3모 대비 국어 실전 모의고사
1~3등급용 1회



- 본 콘텐츠는 무료 국어 월간 자료입니다. 학원에서의 사용을 불허합니다.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매달 1일에 업로드가 되어 30일까지 배포가 됩니다. 과월호는 배포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공부하다가 국어에서 모르는 점은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무료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 두 명의 창고지기인 자양과 기임은 새벽마다 트럭에 실려 온 상자를 내리고 창고에 보관된 상자를 트럭에 싣는 일을 한다. 매사에 꼼꼼하게 일하는 자양과 달리 기임은 자신의 일에 회의를 느끼며 자양의 성실함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기임은 상자를 싣고 내리는 일보다 트럭 운전수의 딸인 다령과의 만남에 열중한다. 창고를 나가고 싶어 하는 기임은 다령의 부추김에 상자 하나를 바꾸어 트럭에 싣는다. 이를 뒤늦게 알아챈 자양은 잘못 나간 상자 번호를 확인하고, 상자 주인에게 잘못을 시인하는 편지를 쓴다.

등장인물 자양(창고지기), 기임(창고지기), 트럭 운전자, 다령(트럭 운전수의 딸)

창고 밖으로 상자들을 옮기고 있던 자양과 트럭 운전자 사이에 언쟁이 벌어진다. 자양은 트럭 운전자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도록 간청하고 운전수는 목청을 높여 가며 거절의 이유를 설명한다.

운전자: 그건 미친 짓이야! 일부러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어!

자양: (편지를 운전자에게 내밀며) 제발 보내야 해요!

운전자: 여봐, 내가 상자들을 운반하고 다니니까 상자 주인이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건 큰 착각이야.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구.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 받을 때 만나는 분배 반장 딸기코하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나눠 싣고 정거장에 가서 만나는 접수 반장 외눈깔, 그 둘뿐이라구. 딸기코와 외눈깔은 내가 붙인 별명인데, 물론 진짜 이름이야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노름꾼이라 하듯이 나도 그들을 별명으로만 불러. 어쨌든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정거장의 왼쪽이고, 외눈깔이 상자를 접수하는 곳은 정거장의 오른쪽이야. 그래서 그들은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번 볼 수조차 없어.

자양: 별명이든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편지를 억지로 운전자 손에 쥐어 준다.) 상자를 싣고 가는 곳에 내 편지를 갖다주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운전자: 내가 자네 편지를 외눈깔에게 주면, 외눈깔은 그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다음 사람은 또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운반되는 상자들을 따라가 맨 나중에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지?

자양: 네, 바로 그겁니다.

운전자: 그게 또 큰 착각이라구. 부속품이 든 상자들은 말야, 중간중간에서 여러 갈래로 수없이 나눠지거든.

자양: 부속품 상자들은 결국 한 군데로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운전자: 물론, 모아지는 곳도 있겠지. 상자들이 한 군데에서 나와 여러 군데로 흩어지느냐, 여러 군데에서 나와 한 군데로 모아지느냐…….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어쨌든 중간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

자양: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 줘야죠. 엉뚱하게 바뀐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운전자: 잘못 만들어진다니……. 그게 뭔데?

다령: (멀리서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외친다.) 어떤 굉장한 기계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 주는 신기한 기계죠!

운전자: (다령에게 외친다.) 무슨 기계라구?

다령: (큰 소리로) 기계가 아니라 폭탄이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요!

운전자: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자양에게) 어쨌든 상자 속의 부속품으로 뭘 만드는지 알 수는 없어. 만약 폭탄을 만든다면 오히려 상자가 바뀐 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테니까 잘된 일이잖아? (자양의 편지를 허공에 들고 두 조각으로 찢으며) 여봐, 자넨 너무 배짱이 약해.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상자 하나쯤 틀렸다고 안절부절못하진 않을 거야. (두 조각으로 찢은 편지를 자양의 바지 양쪽 호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어.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몰라야 그냥 덮어두라구. 창고 속의 자네한테는, 그게 배짱 편한 거야.

자양: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가리키며) 그렇다면 이 서류들은 뭐니까? 누군가 이 서류들을 보면, 상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운전자: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건 바보들뿐이지! 좋은 예가 있어. 내 아내는 옛날에 죽었는데 사망 신고를 안 했거든. 그래서 구청에서 호적을 떼어 보면 지금도 서류상으로는 버젓하게 살아 있는 것으로 나온다구. 자, 굵벙이 양반, 꾸물대지 말고 어서 상자들이나 옮겨!

자양과 트럭 운전자, 손수레에 실은 상자들을 창고 밖으로 운반해 간다. 침대에 앉아 있던 기임은 일어나서 자신의 담요를 둘둘 말아 걷는다. 그리고 침대맡의 낡은 짐 가방을 꺼내 물건을 주워담는다. 다령, 기임의 곁으로 다가온다.

다령: 마침내 결정한 거예요?

기임: 그래, 함께 가서 살기로 했어.

다령: (살림 도구들이 있는 곳에서 접시, 그릇, 찻잔들을 가져와 낡은 짐 가방에 담으며) 무조건 다 가져가요.

기임: (다령이 담은 것들을 다시 꺼내 놓으며) 아냐, 반절만 내 것인걸!

다령: 둘이서 함께 쓰던 물건은 어찌려구요? 반절로 나눌 수도 없잖아요.

자양과 운전자, 손수레에 상자를 싣고 창고 안으로 들어온다.

운전자: 우린 트럭에 상자들을 다 옮겼어. 그런데 너희는 짐도 안 싸고 뭘 했지?

자양: 짐이라니……?

기임: 으음, 그렇게 됐어. 오늘 나는 이 창고 속을 떠난다구!

자양: 정말 가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기임: 미안해! 그런데 막상 떠나려니까 조금은 서운하군. (창고 안을 둘러보며) 너하고 여기서 얼마나 살았더라……? 몇십 년은 훨씬 더 될 거야, 아마…….

자양: 그래…… 우린 철부지 시절부터 이 창고지기였어.

기임: 언제나 너는 나를 고맙게도 보살펴 줬지.
 자양: 날 의붓어미라고 미워했으면서 뭘…….
 기임: 진짜로 미워한 건 아니잖아?
 자양: 나도 알아. (기임을 껴안는다.) 제발 가지 말아! 이 창고도, 나도,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
 기임: 그건 안 돼. 이 창고는 더 이상 내가 살 곳이 아냐.
 운전수: 남자들끼리 헤어지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창고 밖으로 나가며) 시간 없어! 나 먼저 트럭에 가서 있을 테니까 너회는 어서 짐 싸 들고 나와!
 다령: (늦쇠 국자로 소리 나게 두드리며) 그만하고, 서로 자기 물건들이나 골라 봐요.
 기임: (자아의 포옹을 풀며) 난 내 물건을 잘 모르겠어. 굼벵아, 네가 골라 줘.
 자양: 아냐, 쓸 만한 게 있거든 모두 내가 가져.
 기임: 너는 이 창고 속에서 혼자 살 텐데…….
 자양: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먼저 골라 봐.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침대 밑의 상자들 중에서 화려한 색깔의 스웨터를 찾아낸다.) 너의 생일날 주려고 두었던 건데, 헤어지는 날 선물이 됐군.
 기임: (자양에게서 스웨터를 받아 몸에 대본다.) 근사한데!
 다령: (자양의 침대 밑을 바라보며) 좋은 건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이걸 가져가도 돼요?
 기임: 안 돼, 그건 손대지 마.
 자양: 가져가요.
 다령: (자양의 침대 밑에서 상자 하나를 꺼낸다.) 이건 뭐죠?
 자양: 북어 대가리죠. 그건 가져가세요. 꼭 필요할 겁니다.
 다령: 북어 대가리……?
 기임: 이게 왜 필요한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상자를 열어서 북어 대가리를 하나 꺼내 자양에게 준다.) 난 너한테 이것밖에 줄 게 없군. 내 생각이 날 거야. 항상 곁에 두고 보라구.
 자양: (북어 대가리를 받으며) 그래, 언제나 내 곁에 두고 볼게.
 창고 밖에서 트럭의 재촉하는 경음기가 울린다. 다령은 서둘러서 물건들을 담요에 담는다.
 다령: 아버지가 재촉해요. (상자와 담요를 들며) 어서 들고 나가요.
 기임: (짐 가방을 들고, 자양에게) 그럼 잘 있어.
 자양: (마지못해 대답한다.) 잘 가……. 가서 행복해.
 기임과 다령, 창고 밖으로 나간다. 자양은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놓고, 떠나는 기임을 바라본다. 창고 문 앞에서 자양과 기침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기임: (소리) 이 창고 앞의 상자들은 어쩔 거야? 내가 좀 창고 안에 옮겨 주고 갈까?
 자양: 괜찮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창고 밖으로 떠나는 것이 즐겁다는 듯이 기임의 환호성이 들린다. 트럭 운전수와 다령의 웃음소리로 들린다. 잠시 후, 트럭이 경음기를 울리며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창고는 조용해진다. 자양, 식탁 앞에 힘없이 주저앉는다. 늙고 허약해진 모습이다. 그는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북어 대가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자양: 그래, ㉠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 그저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만…… 덜렁…… 남은 거야. (두 손으로 북어 대가리를 집어서 얼굴 가까이 마주 바라보며) 말해 보렴, 네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토록 오랜 나날…… 나는 이 어둡고 조그만 창고 속에서…… 행복했었다. 상자들을 옮겨 오고…… 내보내며……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뿌듯함…… 그게 내 삶을 지탱해 왔었는데…….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창고 속에서의 성실함이…… 무슨 소용 있는 거지? (사이) 북어 대가리야, 왜 말이 없냐? 멀뚱멀뚱 바라만 볼 뿐 왜 대답이 없어?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내려 놓는다.) 아냐, 내 의심은 틀린 거야. 덜렁 남은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잘못됐다고 판단해선 안 돼. (순수리에 실린 상자를 서류와 대조하며 혼자서 쌓기 시작한다.) 제자리에 상자들을 옮겨 놓아라! 정확하게 쌓아! 틀리면 안 돼! 단 하나의 착오도 없게,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

자양, 느릿느릿 정성을 다해 상자들을 쌓는다. 무대 조명, 서서히 자양에게 압축되면서 암전한다.

— 막
 —이강백, '북어 대가리'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초현실적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관객의 몰입을 방해한다.
- ② 상징적 배경과 소재를 무대, 주요한 소품으로 사용함으로써 주제를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관객을 극 속으로 끌어들이므로써 배우와 관객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 ④ 인물의 과장된 행동과 과거형 시제를 사용하여 갈등 상황과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품을 구성함으로써 비판점과 대안을 강조하고 있다.

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작가의 의도를 우의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별명'을 통해 맺어진 인간관계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 ③ 벽으로 막혀 있다는 점에서 ‘창고’는 외부 세계와 소통이 차단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④ ‘기계’와 ‘폭탄’을 통해 선과 악의 측면을 동시에 지닌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상자의 내용물을 알지 못한 채, 잘못 나간 상자를 ‘상자 번호’로 확인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일에서 소외된 현대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3. ㉠, ㉡에 대해 주고받은 의견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보이는 ‘운전수’의 내적 갈등이 ㉡에서 보이는 ‘자양’의 내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군.
 ② ㉠에서 ‘자양’의 편지를 찢어버리는 ‘운전수’의 행동은 ㉡에서 ‘자양’이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군.
 ③ ㉡의 ‘자양’이 북어대가리를 내려놓은 것은 ㉠에서 보이는 ‘운전수’의 충고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로군.
 ④ ㉠에 나타난 ‘자양’의 성실에 대한 ‘운전수’의 생각이 ㉡에서 ‘자양’이 보이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군.
 ⑤ ㉠에서 상자 속의 부속품에 대한 ‘운전수’의 생각이 ㉡에서 세상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선 안된다는 말에 담긴 ‘자양’의 판단을 이끌어내고 있군.

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에 대해 해석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자양은 묘한 향수와 비애감을 동반하는 인물이다.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현실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자양과 같은 인간형에 대한 향수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진지함과 성실함에 매달려 필연적으로 개인이 분자화되거나 부품화되는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한 것을 유지하려고 유별스레 노력하다가 결국은 뒤늦게 현실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망연자실해 하는 모습을 자양에게서 발견하기도 한다.

현실에서는 상실된 가치이지만 포기하지 못한 채 머릿속의 명분을 붙잡고 혼란스러워 하는 자양의 모습은 말라비틀어진 채 머리만 남아 멍뚱뚱 눈을 뜨고 있는 ‘북어 대가리’의 이미지로 집약된다.

- ① 세상의 변화가 없었다면 ‘자양’이 가진 진지함과 성실함은 소중한 가치로 인정받을 것이다.
 ② ‘멍뚱뚱 눈을 뜨고 있는 북어 대가리’의 이미지로 집약되는 ‘자양’의 ‘창고 속에서의 성실함’에서 숭고미가 강조된다.
 ③ 배우가 ‘자양’의 마지막 대사를 연기할 때에는 ‘자양’의 혼란스러워하고 망연자실하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④ ‘자신의 성실함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지’라는 ‘자양’의 말은 개인이 분자화되거나 부품화되는 세상의 변화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
 ⑤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잘 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끼려는 사람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점에서 ‘자양’은 묘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 인물이다.

5. ㉠에 담긴 인물의 심리와 화자의 정서가 가장 부합되는 것은?

- ①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쫓겨 가는 마음인들 무어 다를 거냐.
 돌아다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짓는다.
 앞 대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

나 두 야 가련다.

-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간다.

- 박용철, ‘떠나가는 배’

- ②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이오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거울속의나는왼손잡이오
 내악수(握手)를받을줄모르는-악수를모르는왼손잡이오

- 이상, ‘거울’

- ③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④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깎깎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⑤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동’

[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창섭은 바람도 쌀쌀할 뿐 아니라 오후 차로 돌아가야 할 길이라 걸음을 재우쳤다.

길은 그전보다 넓어도 젖고 바닥도 평탄하였다. 비나 오면 진흙에 헤어날 수 없었는데 복판으로는 자갈이 깔리고 어떤 목은 좁아서 소바리가 논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십상이었는데 바위를 갈라내어서까지 일매지게 넓은 길로 닦아졌다. 창섭은, ‘이럴 줄 알았다면 정거장에서 자전거라도 빌려 타고 올걸.’ 하였다.

눈에 익은 정자나무 선 논이며 돌각 담을 두른 밭들도 나타났다. 자기 집 논과 밭들이었다. 논둑에 선 정자나무는 그전부터 있는 것이나 밭에 돌각 담들은 아버지께서 손수 쌓으신 것이다.

창섭의 아버지는 근검(勤儉)으로 근방에 소문난 영감이다. 그러나 자기 대에 와서는 밭 하루같이도 늘리지는 못한 것으로도 소문난 영감이다. 곡식값보다는 다른 물가들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전대(前代)에는 모르던 아들의 유학이란 것이 큰 부담인데다가,

“할아버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부자 소린 못 들어도 굶는단 소린 안 듣고 살도록 물려주시구 가셨다. 드럭드럭 탐내 모아선 뭘 허니, 할아버니께서 쇠똥을 맨손으로 움켜다 넣시던 논, 아버지께서 멧덜을 손수 이룩하신 밭을 더 건 논으로 더 기름진 밭이 되도록, 땀달만 해 가기도 내겐 벅찬 일일 게다.”

하고 절용(節用)해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는 품을 몇 썩 들여서까지 비뚤은 논배미를 바로잡기, 밭에 돌을 추려 바람맞이로 담을 두르기, 개울엔 독막이하기, 그러다가 아들이, 의사가 된 후로는, 아들 학비로 쓰던 뭇까지 들여서 동네 길들은 물론, 읍길과 정거장 길까지 닦아 놓았다.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실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를 두 필이나 매고 일꾼을 세 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자농(自農)으로 버티어 왔다.

(중략)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다리 고치는 사람들 점심을 짓노라고 역시 여러 명의 동네 여편네들과 허둥거리고 계시었다.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오늘루 가야겠어서 아무두 안 데리구 왔습니다.”

“오늘루 갈 걸 뭘 해 오누?”

“인전 어머니서건 서울로 모셔 갈 채빌 허러 왔다우.”

“서울루! 제발 아이들허구 한데서 살아 봤음 원이 없겠다.”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것처럼 단숨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채견채견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 한집에 모여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 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 가나 입원실이 부족하여 오는 환자의 삼분지 일밖에 수용 못 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삼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삼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한 것, 각 층에 수도, 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옅한 것, 옅하기는 하나 삼만 이

천 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일만 오천 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삼만 이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 대야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 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두 좀 생각해 봐야 대답허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침 늘 제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여남은 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 나절을 씨름을 허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돌만 하다든?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체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니 산소에 상돌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내가 천잘 끼구 그 다리루 글 읽으려 댕겼다.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루 본 밭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루 작만(作滿)허신 논들이야. 돈 있다구 어디 가 느르지는 같은 게 있구, 독시장밭 같은 걸 사? 느르지는 독에 선 느르나문 할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구, 저 사랑 마당에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銅像)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군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구 팔구 허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딴으며 나라가 어딴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구 땅이 뭇지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변리(邊利)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都是) 생각지 않구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루밖에 보지 않드라.”

“…….”

(중략)

“땅을 밟구 다니니까 땅을 우섭게들 여기지? 땅처럼 응과(應果)가 분명헌 게 무어냐?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두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겐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헌 보답을 주시는 거다.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땅은 작인들한테나 맡겨 버리구, 떡 도회지에 가 얹어 소출(所出)은 팔어다 모다 도회지에 낭비해 버리구, 땅 가꾸는 덴 단돈 일 원을 벌벌 떨구, 땅으루 살며 땅에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면 후레자식 셈이야. 땅이 말을 할 줄 알아 봐라? 배가 고프단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 해마다 걷어만 가구 땅은 자갈밭이 되니 아냐? 독이 떠나가니 아냐? 거름 한 번을 제대로 넣나? 정 급허게 돼 작인이 우는소리나 해야 요즘 너희 신의(新醫)들 주사침 놓듯, 애꾸진 금비(金肥)만 갖다 털어 넣지. 그렇게 땅을 흘뎠 허군 인제 죽어서 땅이 무서서 어디루들 갈

텐구!”

창섭은 입이 열려 버렸다. 손만 부비었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위(本位)였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였다.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말을 계속하였다.

“너루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하려는 게 과히 영똥헌 욕심은 아닐 줄두 안다. 그러나 욕심을 부린 못쓰는 거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仁術)이라지 않니? 매살 순탄하게 진실하게 해라.”

“.....”

“네가 가업을 이어 나가지 않는다고 탄핵하지 않겠다. 넌 너루서 발전할 길을 열었구, 그게 또 모리지배의 악업이 아니라 활인(活人)하는 인술이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허니? 다만 삼사 대집안에서 공들여 이룩해 논 전장(田莊)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저옥 애석헌 심사가 없달 순 없구.....”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두 이제두 말했지만 너두 문서 쪽만 쥐구 서울 앉어 지주 노릇만 허게? 그따위 지주허구 작인 틈에서 땅들만 열말 골른지 아니? 안 된다. 팔 테다. 나 죽을 임시(臨時)엔 다 팔 테다. 돈에 팔 줄 아니? 사람헌데 팔 테다. (중략) 난 셈말서 이렇게 야인(野人)으로나 죄 없는 밥을 먹다 야인인 채 문힐 걸 흡족히 여긴다.”

“.....”

“자식의 짧은 욕망을 들어 못 주는 게 애비 된 맘으루두 섭섭하다. 그러나 이 늙은이헌테두 그만 신념쫓 지켜 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어다구.”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고치는 데로 나갔다. 옆에 앉았던 어머니는 두 눈에 눈물을 쭈루루 흘리었다.

“너이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아뇨,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건 오늘 제가 더 잘 알었습니다. 우리 아버진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그러나 창섭도 코허리가 찌르르하였다.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이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 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러 가 버렸다.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섰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었다.

아버지는 종일 개울에서 허덕였으나 저녁에 잠도 달게 오지 않았다. 젊어서 서당에서 읽던 백낙천(白樂天)의 시가 다 생각이 났다. 늙은 제비 한 쌍을 두고 지은 노래였다. 제 배 속이 고픈 것은 참아 가며 입에 얻어 물은 것은 새끼들부터 먹여 길렀으나, 새끼들은 자라서 나래에 힘을 얻자 어디로인지 저희 좋을 대로 다 날아가 버리어, 야위고 늙은 어버이 제비 한 쌍만 가을바람 소슬한 추녀 끝에 쭈그리고 앉았는 광경을 묘사하였고, 나중에는 그 늙은 어버이 제비들을 가리켜, 새끼들만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새끼적에 역시 그러했음도 깨달으라는 풍자의 시였다.

‘흥!’

노인은 어두운 천장을 향해 쓴웃음을 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누구보다도 먼저 어제 고쳐 놓은 돌다리를 보러 나왔다.

흙탕이라고는 어느 돌 틈에도 남아 있지 않았다. 첫 굽으로도, 가운데 굽으로도, 끝에 굽으로도 맑기만 한 소담한 물살이 우쭐우

쭈뼌하며 빠져 내려갔다. 가운데 장으로 가 꿩 굴러 보았다. 발바닥만 아플 뿐 꼬떡이 있을 리 없다. 노인은 쭈루루 집으로 들어와 소금 접시와 낮 수건을 가지고 나왔다. 제일 낮은 받침돌에 내려앉아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였다. 나중에는 다시 이가 저린 물을 한입 물어 마시며 일어섰다. 속의 모든 게 씻기는 듯 시원하였다. 그리고 수염의 물을 닦으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정을 넘는 법은 없다. 물이 분수 없이 늘어 떠내려갔던 게 아니라 자갈이 밀려 내려와 물구멍이 좁아졌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받침돌의 밑이 물살에 궁굴리어 쓰러졌던 그런 까닭일 게다. 미리 바닥을 치고 미리 받침돌만 제대로 보살펴 준다면 만년을 간들 무너질 리 없을 게다. 그저 늘 보살펴야 허는 거다. 사람이란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진 하루라도 천리(天理)에 방심을 해선 안 되는 거다.....’

- 이태준, ‘돌다리’

(나)

이태준은 일반적으로 1930년대 순수 문학의 기수로 평가된다. 특히 그를 ‘한국 단편 소설의 완성자’로 평가할 정도로 그의 단편 소설은 1920년대 김동인에서 시작된 한국 단편 소설을 발전시켜 우리 소설 고유의 미학을 확립하였다.

그의 작품에서는 도시의 하층민과 노인 등 근대 사회에서 소외된 인물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런 까닭에 그의 작품 세계를 ‘소멸해 가는 것의 아름다움’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태준은 정지용, 김기림, 박태원, 이상 등과 ‘구인회’의 멤버로 활동하는 한편, 문학 전문지 ‘문장’을 주재하면서 서정주, 김동리,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등 많은 신인들을 발굴하기도 하였다. 그는 동시대의 시인 백석과 더불어 후대의 작가에게 큰 영향을 끼친 소설가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태준의 소설 ‘돌다리’가 창작되고 발표된 시기는 일제강점기로, 이 시기에 우리 사회는 급격하고 파격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도시에는 근대적인 서양 건축물들이 들어섰고, 일본 문화와 서양 문화가 밀려 들어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익혀야 한다는 사고가 나타났으며, 고향의 집과 땅 등이 도구적 대상이나 교환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6. (나)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돌다리’는 전통적 가치관을, ‘나무다리’는 근대적 가치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군.
- ② 창섭은 이 시기의 지식인들의 전형으로 합리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군.
- ③ 작가는 아버지를 통해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중시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있군.
- ④ 작가는 땅의 본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아버지를 통해 식민지 농촌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군.
- ⑤ 이 시기는 전통적 가치관이 퇴조하고 근대적인 가치관이 자리 잡아 가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군.

7.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아이면서 동시에 타인에게는 세계의 일부가 된다. 이때 자아들은 행위의 주체이며, 주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은 세계가 된다. 이러한 자아와 세계의 대결과 그에 따라 전개되는 갈등들이 시공간에 펼쳐지는 것이 서사의 본질이다.

- ① ‘아버지’는 자아로서의 완고한 성격을 세계에 대해서도 유지했다.
- ② 자아로서의 ‘아버지’는 세계와 ‘어머니’간의 대립과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 ③ 자아로서의 ‘창섭’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으로서 세계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였다.
- ④ ‘창섭’은 자아로서의 논리를 통해 세계와의 갈등을 해소했다.
- ⑤ 자아로서의 ‘어머니’는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와 대립하며 갈등하고 있다.

8.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해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자연을 삶의 터전이자 벗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근대 이전에는 ‘땅’이 그 대표적인 예였다. 단순한 생산수단이 아닌, 터전이자 벗이었던 ‘땅’은 근대 이후 도시 사회에서는 도구이자 교환의 대상으로 변질되었다.

- ① ‘아버지’의 생각과 행동은 ‘창섭’ 세대와의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낸다.
- ② ‘창섭’은 땅을 교환의 대상이자 재화로 보고 있다.
- ③ ‘아버지’에게 ‘돌다리’는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 추억과 애환이 투영된 대상이다.
- ④ ‘창섭’의 가치관은 쉽게 만들 수 있으나 쉽게 무너지는 ‘나무다리가 가진 상징적 의미와 관련이 깊다.
- ⑤ 땅에 대한 ‘아버지’의 집착은 물질만능주의에 젖어가는 당시의 세태와 그에 따른 지주계급의 탐욕을 드러낸다.

9. 윗글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에 대해 가장 적절하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 ① 차홍 : ‘아버지’는 자신이 죽은 뒤에 자기 아내를 돌봐달라고 ‘창섭’에게 말했다.
- ② 선빈 : ‘아버지’는 아들의 병원 확장 계획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 ③ 기영 : ‘아버지’는 지주들이 소작인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어.
- ④ 형우 : ‘아버지’는 아들이 의사가 된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어.
- ⑤ 석민 : ‘아버지’는 장차 땅값이 더 오를 것을 기대하며 땅을 팔지 못하게 하고 있다.

[10~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1895년 영화는 등장하자마자 그야말로 단숨에 서구 사회의 대중을 사로잡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지된 순간을 담아내는 사진과 달리 영화는 대상의 움직임 실감나게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영화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의 움직임과 이 움직임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재현하는 데 성공한 ‘움직이는 이미지’였다. 그렇다면 영화의 탄생과 확산을 가능케 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적어도 다음의 기술적,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먼저 영화 매체의 기술적인 선조로서 ㉠ 카메라 옵스큐라를 들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카메라 옵스큐라는 선 원근법이 보편화되었던 15세기 르네상스 시대부터 대상을 회화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활용하던 기계 장치이다. 그것의 목적은 대상의 이미지를 광학 원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수신하는 데 있었다. 카메라 옵스큐라가 영화적으로 중요한 것은 렌즈와 조리개 등 광학 기계의 발전 및 빛의 화학적 반응에 대한 지식의 발전과 결합하여 19세기 중반, 사진과 카메라가 발명될 수 있는 기술적, 이념적 선조의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사진을 통해 인류는 처음으로 대상의 시각적 이미지를 광학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저장된 이미지를 대량으로 ‘복제’하고 용이하게 원거리로 ‘전송(傳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두 번째 매체 기술적 요인으로는 ㉡ 마술적 환등 장치를 기억해야 한다. 오늘날의 그림자극에 희미한 흔적이 남아있는 마술적 환등 장치는 본래 다수의 관객을 대상으로 어둠 속에서 사물의 이미지에 강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장치였다. 마술적 환등 장치의 목적은 시각적 효과를 통해 관객의 시선과 의식을 사로잡는 데 있었다. 영화 탄생과 관련하여 마술적 환등 장치의 중요성은 빛의 환영적 효과를 활용한 이미지의 ‘송신’ 장치라는 점에 있다. 한마디로 그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대중에게 영화가 상영되는 수용 상황의 기술적·문화사적 출발점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영화 탄생의 요인들 외에 반드시 상기해야 할 사회적 내지 경제적 요인들이 있다. 그것은 대도시와 대중, 그리고 산업적 의미의 극장이다. 19세기 중반 이후 자본주의 발달은 급속도로 대도시화를 촉진하며, 이 도시의 거리를 대중, 즉 유동적이며 익명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채우게 된다. 이들은 노동 과정이 기계적으로 재조직되고, 각종 문명의 이기들이 생활 세계 속으로 들어오면서 일정한 여가 시간을 갖게 되어, 볼거리를 찾아 나선다. 이를 위해 파노라마와 디오라마(diorama), 테마 파크의 선조 격인 대규모 박람회장과 대중적 쇼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등장하는데, 새로이 등장한 영화가 바로 이러한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영화는 등장하자마자 폭발적인 수요에 부응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산업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노동 분업적이며 자본 집중적인 제작 시스템을 갖추게 됨으로써 제작비를 회수하기 위한 수용 구조, 극장에서의 집단적인 수용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컨대 영화는 이러한 19세기의 역사적·사회 문화적 계기들이 숨가쁘게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했다. 따라서 이들의 의미와 상호 연관성을 재음미해야만 그 매체적 성공과 중요성을 온전히 그려 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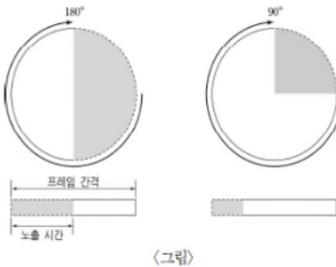
(나) 영화에서 필름 영사기를 사용할 경우, 영화의 각 프레임은 같은 자리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진 롤 필름의 이동에 의해 보이게 된다. 따라서 필름의 이동을 감추기 위해 프

레이프와 프레임 사이에 광원을 차단해 검은 화면을 끼워 넣고, 필름의 이동 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이 되게 하는데, 이는 관객들의 눈에 이전에 보이던 프레임의 잔상이 남아 있는 동안 검은 화면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극장에서 보는 영화의 구현 원리는 시각 잔상 효과에 기반하고 있는데, 앞 프레임의 잔상이 다음 프레임이 화면에 나타나기까지 두 프레임 사이의 간격을 메워 주면 관객들은 실은 정지된 화면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영상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시각 잔상 효과를 설명하고 있는 주요한 이론으로는 점멸 융합 한계 이론을 들 수 있다. 점멸이란 빛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면서 시각에 주는 자극인데, 이 점멸의 간격이 점차 좁아져 어느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인간의 시각은 이것을 깜박임이 아닌 지속성이 있는 자극으로 인지한다. 그 한계를 점멸 융합 한계라고 하며, 점멸 융합 한계는 조명이나 TV, 모니터 등 시각 등에 점멸 자극을 주는 모든 장치들을 연구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점멸하는 주기를 '점멸 융합 주파수'라고 하는데, 이 개념은 시각적 자극이 단속적 점멸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주파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점멸 융합 한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프레임 레이트(frame rate)'이다. 일반적으로 프레임 레이트는 초당 전송하는 프레임의 개수를 의미하는데, 점멸 융합은 정지 이미지의 연속이라는 기본 구조를 가지는 동영상 재생하는 모든 장치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텔레비전 신호와 같은 동영상 신호를 전송할 때 인간의 시각 특성을 이용하여 1초에 적당한 개수의 화면(프레임)을 전송하는데, 텔레비전의 경우 신호 전달 방식에 따라 프레임 레이트가 다르다. 프레임 레이트가 NTSC 방식에서는 초당 30프레임이고 PAL 방식에서는 초당 25프레임이다. 일반적으로 영화에서 프레임 레이트의 점멸 융합 한계는 초당 16프레임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점멸 현상은 프레임 레이트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며, 빛의 강도나 각 프레임 간 피사체의 위상차 등에 의해서도 점멸 융합 한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현대의 일반적인 영화는 초당 24프레임을 보여 주는 프레임 레이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극장에서 상영할 때 영사기에서 셔터를 통해 한 프레임을 두 번씩 보여주어 결과적으로 초당 48프레임이 보여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동영상의 특성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동영상 효과가 영화의 '모션 블러(Motion Blur)'이다. 모션 블러는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상대적으로 느린 셔터 속도(노광 시간)를 통해 촬영했을 때 물체의 이동 방향으로 흐려지는 현상을 말한다. 모션 블러는 셔터 스피드의 조작에 의해 달라지는데 동영상에서의 셔터 스피드 사용에 관한 규칙은 필름 영화의 카메라로부터 기인하였다. 필름 영화 카메라에서는 사진용 카메라의 셔터와는 다르게 회전하는 원반 형태의 로터리 디스크 셔터(rotary disc shutter)를 사용한다.



<그림>은 영화 카메라의 로터리 디스크 셔터의 개각도의 원리와 그에 따른 모션 블러의 생성 원리를 보여 주고 있다. 필름 영화 카메라에는 렌즈와 필름 사이에 회전하는 원반(disc) 형태의 셔터가 설치되

어 있다. 이 원반을 특정한 각도만큼 절개하여 회전시키면 <그림>의 디스크에서 어둡게 표시된 절개된 면이 필름 위에 위치할 때 필름은 렌즈로부터 동영상을 받아 기록하게 되며 절개되지 않은 면이 필름 위에 위치할 때 필름은 다음 프레임으로 진행하게 된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만약 개각도를 180도가 아니라 90도가 되게 하면, 180도일 때에 비해 90도일 때 필름의 노출 시간은 1/2이 되는 것이다. 필름 영화 카메라의 셔터 구조가 이러한 로터리 디스크의 각도를 조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름 영화 카메라에서는 셔터 속도 대신 개각도의 개념을 사용해 왔다.

이러한 구조에서 로터리 디스크 셔터가 없이 필름의 프레임 한 장이 지나갈 동안 완전하게 노출을 받는다면 24프레임 기준으로 셔터 속도는 1/24초가 된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는 화면상의 움직이는 물체가 1/24초 동안 필름에 기록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필름의 노출 시간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라면 한 장의 프레임 안에서 피사체의 움직임으로 인한 이동이 촬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마치 사진을 찍을 때 피사체가 움직여버리면 그로 인해 사진에서 피사체가 뿌옇게 나타나는 것처럼, 피사체가 움직여 발생한 위상 차로 인한 모션 블러가 발생하고, 그만큼 영상은 선명하지 않게 된다. 영화 카메라에 로터리 디스크 셔터를 달고 개각도를 180도로 설정하게 되면 필름 한 프레임이 지나갈 동안 로터리 디스크 셔터도 한 바퀴 회전을 해서 프레임이 노출을 받는 시간은 반으로 줄어들고 환산 셔터 속도는 1/48초가 된다. ㉠ 셔터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면 모션 블러는 짧아진다.

현대의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오면서 필름 앞에 있던 기계적인 로터리 디스크 셔터는 전자적으로 작동하는 셔터 스피드의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 전자식 셔터는 ㉢ 기계적인 로터리 디스크 셔터에서는 불가능했던 1/3초와 같은 프레임 레이트 이하의 셔터 스피드도 사용 가능한데 이러한 사실은 디지털 카메라에서 셔터 스피드는 단지 노출의 조절과 모션 블러의 길이 조절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작자들은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필름 영화 카메라에서 구축된 로터리 디스크 셔터의 규칙을 사용하고 있어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24프레임 기준 동영상에서 가장 적절한 모션 블러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 (가)와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화의 탄생과 확산을 가능케 하는 요인
 - ② 점멸 융합 주파수의 의미
 - ③ 시각 잔상 효과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
 - ④ 필름 영화 카메라에서 셔터 속도 대신 개각도의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
 - ⑤ 디지털 카메라에서 전자식 셔터가 다양한 프레임 레이트를 구현할 수 있는 이유

11.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일반적인 필름 영화와 같은 방식으로 촬영한 전쟁 영화(A)라면, 카메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각도는 180도로서 셔터 스피드로 환산하면 1/48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과는 다른 전쟁 영화(B)를 제작하고 싶었던 감독은 셔터의 개각도를 45도로 설정하였다. 이 영화는 기존과는 다른 영상미를 구현할 수 있었는데, 특히 포탄이 폭발하며 파편이 튀는 장면 등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 ① A의 경우 B에 비해 한 장의 프레임 안에서 피사체의 움직임으로 인한 이동이 나타나기 쉽겠군.
- ② B의 경우 A에 비해 모션 블러의 길이가 짧게 나타나는 영상미를 구현했겠군.
- ③ B의 경우 A에 비해 포탄이 폭발하는 순간의 파편들이 보다 선명하게 보였겠군.
- ④ B에서 감독이 사용한 셔터의 개각도를 셔터 스피드로 환산하면 1/192초에 해당하겠군.
- ⑤ B에서 감독이 일반적인 개각도보다 작은 각도를 사용한 것은 일반적인 영상보다 점멸 융합 한계를 낮추기 위한 것이었겠군.

12.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피사체의 움직임 여부와 관계없이 피사체의 위상 차는 일정하게 발생하게 되므로
- ② 필름 한 프레임이 지나갈 동안 로터리 디스크 셔터의 회전 속도는 일정하게 줄어들게 되므로
- ③ 움직이는 피사체의 위상 차에 변화가 없지만 필름에 영상을 기록하는 촬영 속도가 두 배가 되므로
- ④ 프레임이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그만큼 피사체의 움직임이 기록되는 시간 또한 줄어들게 되므로
- ⑤ 로터리 디스크가 회전하는 동안 피사체의 움직임을 기록한 각 프레임이 완전하게 노출을 받게 되므로

13.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디지털 카메라와 필름 카메라에서 사용할 수 있다.
- ② ㉡과 ㉢은 모두 시각적 잔상 효과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 ③ ㉡과 ㉢은 모두 한 장의 프레임 안에서 피사체 간 위상 차를 없애는 역할을 한다.
- ④ ㉡은 ㉢에 비해 영상에서 다양한 프레임 레이트를 구현할 수 있다.
- ⑤ ㉢은 ㉡에 비해 동일한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긴 모션 블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14. 다음은 영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드러낸 진술이다. (가) 글의 관점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영화는 현대의 온갖 정신적 상황을 추적하고 예술 형식으로서의 순수함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다.
- ② 영화는 그 막강한 대중적 영향력과 흥미에 의해 대중을 가르치는 효율적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 ③ 영화는 인간을 시각적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고 영상을 통한 예술적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었다.
- ④ 영화는 과학과 자본, 그리고 예술의 3대 축면으로 이루어지며 자본을 가진 제작자에 의해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 ⑤ 영화는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매체일 뿐만 아니라 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을 집단적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매체이다.

15. (가)를 읽고 난 후 영화 탄생에 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구: 아무래도 영화의 탄생은 산업화의 본격적 진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 도시의 탄생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
- ② 준익: 대도시의 형성과 영화는 언뜻 보면 관련 없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를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화라는 매체가 성장할 수 있었을 거야.
- ③ 명세: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영화가 등장하는 과정을 보면 산업화보다 카메라 기술이나 환등 장치 등의 기술적인 발전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들어.
- ④ 찬욱: 영화는 아무래도 19세기 사람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도 관련이 있겠지. 산업화 이후의 성숙한 시민들은 보다 격조 높은 볼거리를 찾게 되었고 거기에 부합한 것이 영화야.
- ⑤ 장호: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볼거리가 되니 자연스럽게 거대한 산업 자본이 영화에 뛰어들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영화는 하나의 산업적 시스템을 갖춘 구조로 발전하게 되었군.

16.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점멸 융합 한계를 넘는 시각적 자극은 잔상 효과가 나타난다.
- ② 텔레비전의 경우 동영상 신호 전송 방식에 따라 초당 재생되는 프레임의 수가 다르다.
- ③ 시각적 자극의 간격이 일정 간격 이상이 되면 인간은 이를 지속성 있는 자극으로 이해하게 된다.
- ④ 일반적인 영화에서 프레임 레이트가 초당 16프레임 미만으로 떨어지면 관객은 개별 프레임을 인지하게 된다.
- ⑤ 동일한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영상 간에도 빛의 강도나 각 프레임 간 피사체의 위상 차에 따라 점멸 융합 한계는 달라질 수 있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무하러 가자 / 이히후후 예혜
 남 날 적에 나도 나고 / 나 날 적에 남도 나고
 세상 인간 같지 않아
 이놈 팔자 무슨 일로 / 지게 목발 못 면하고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사모에 풍경 달고
 만석록을 누리건만
 이놈 팔자 어이하여
 항상 지게는 못 면하고 / 남의 집도 못 면하고
 죽자 하니 청춘이요 / 사자 하니 고생이라
 세상사 살아진들
 치마 찢른 계집 있나 / 다박머리 자식 있나
 광 넓은 논이 있나 / 사례 긴 밭이 있나
 버선짝도 짝이 있고 / 토시짝도 짝이 있고
 털떡신도 짝이 있는데 / 쳇이1)같은 내 팔자야
 자탄한들 무엇하리 / 한탄한들 무엇하나
 청천에 저 기력아
 너도 또한 입을 잃고 / 입 찾아서 가는 건가
 더런 놈의 팔자로다
 이놈의 팔자를 / 언제나 면할꼬
 오늘도 이 짐을 안 지고 가면
 어떤 놈이 밥 한술 줄 놈이 있나
 자 가자 이히후후

- 작자 미상, '초부가'

[어휘 풀이] 1) 쳇이: 곡식 따위를 까불러 쪽정이나 티끌을 골라내는 도구.

(나)
 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땀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럽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붙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 신경림, '농무(農舞)'

17.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 화자의 애상적 정감을 투영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수미 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⑤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정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18. <보기>를 고려할 때, (나) 시에 '걱정이'와 '서럽이'가 등장한 의미를 알맞게 유추한 것은?

<보기>

걱정과 서럽이는 1920~1930년대에 걸쳐 연재된 홍명희의 장편 역사 소설 '임걱정'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소설 '임걱정'은 조선 명종조를 배경으로 소외되고 억압당하던 농민과 하층민의 삶을 그린 작품으로서 사회적 모순에 대한 비판과 저항 의식을 담은 작품이다. 이 작품이 널리 읽히고 공감을 얻게 되면서 걱정과 서럽이는 민중을 대표하는 인물로 인식되게 되었다.

- ① 임걱정과 같은 의적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 ② 조선 시대로 돌아가는 싶은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③ 소설의 인물을 등장시켜 시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 ④ 이 시의 시대적 배경이 '임걱정'이 활동하던 시기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⑤ 민중의 한과 울분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역사적인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19.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나) 시를 '민중시'로 해석할 근거를 설명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시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급속하게 와해되어 가던 1970년대 초반의 농촌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린 민중시이다. 민중 문학은 민중이라고 일컬어지는 노동자와 농민 등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문학이다. 민중의 사상과 감정을 담은 문학으로 반드시 민중이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중을 주인공으로 삼아 민중의 의사를 드러내는 주제와 내용을 담은 문학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창작 주체나 작품의 내용에 따라 노동 문학이나 농민 문학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 ① 작품의 배경이 농촌임을 알 수 있는 소재들이 제시되고 있다.
- ② '농민들의 한과 고뇌'라는 주제가 당시 농민들의 정서를 담고 있다.
- ③ 시의 화자를 '우리'로 설정하여 농민의 공동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농무를 추는 일련의 과정을 제시하여 민중의 문화를 잘 드러내고 있다.
- ⑤ 농무를 추면서 신명을 내는 행위를 통해 현실과의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

2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 날 적’과 ‘나 날 적’이 근본적으로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세상 인간 같지 않’다는 현실 인식을 ‘이놈’과 ‘어떤 사람’의 ‘팔자’를 견주며 나타내고 있다.
 - ③ ‘지게 목발’을 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고대광실’과 ‘만석록’ 같은 세속적 가치에 대한 욕망을 경계하고 있다.
 - ④ ‘죽자 하니 청춘이요 / 사자 하니 고생이라’에서 화자가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무를 해서 얻은 ‘짐’을 지고 돌아가지 않으면 ‘밥 한술’조차 얻을 방도가 없음을 탄식하고 있다.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오랑캐를 평정하러 출정한 양창곡을 돕기 위해 강남흥은 남장을 하고 이름을 홍흔탈로 바꿔 함께 전쟁에 참가한다.

"홍 원수께서는 조금 전에 혼자 말을 타고 도독을 구하려고 포위망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양창곡이 이 말을 듣고 놀란 모습으로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홍흔탈이 죽었겠구나. 탈해의 군대는 천하에서 가장 강한데다가 병사들의 숫자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홍흔탈이 상당히 용맹하여 나를 찾다가 만나지 못했다면 필시 부질없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니, 약하고 어린 몸을 어이할꼬?"

그는 또 이렇게 탄식하였다.

"홍흔탈이 나를 지기라고 여겨 일 년 동안 전쟁터에서 함께 환란을 겪었는데, 오늘 나를 위하여 위험한 곳에 빠져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간할 수가 없구나. 내 어찌 그를 버리고 혼자 가겠는가. 옛말에 이르기를, 나라가 나를 선비로 대우해 주면 나도 나라의 선비 신분으로 보답을 한다고 했다. 내가 평생토록 창을 잡은 적은 없었지만 대략 들은 바는 있다. 오늘 내가 홍흔탈을 살피지 않는다면 나도 돌아가지 않겠다."

그는 비장한 모습으로 창을 잡고 오랑캐 진영으로 쳐들어가려 했다. 그러자 모든 장수들이 일제히 간언하였다.

"소장들이 비록 용맹은 없지만 각각 군령에 따라 배치되어 오랑캐 진영을 깨뜨리고 홍 원수를 구하겠습니다. 도독께서는 잠시 쉬십시오."

양창곡이 한창 혈기 넘치는 젊은 나이로, 자신의 신분을 돌아보면 경솔하게 행동할 수는 없지만 평생토록 총애하던 홍량이 자기 때문에 사지로 들어갔으나 생사를 건 환란에 의리상 어찌 저버릴 수 있었겠는가. 평생 동안의 용기와 힘을 한꺼번에 펼쳐내며 오랑캐 십만 병력을 초개같이 보는 것이었다. 그가 칼로 고삐를 끊어 버리고 곧바로 오랑캐 진영으로 들어가자 뇌천풍, 동초, 마달 등이 각각 칼과 창을 들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를 따랐다. 양창곡이 창을 휘두르며 오랑캐 진영으로 아무도 없는 곳인 양 쳐들어가니, 세 장수도 크게 놀라 그제야 양창곡의 용기와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 홍흔탈은 혈혈단신으로 오랑캐 진영 가운데를 마구 짓밟고 다녔지만 어디서도 양창곡을 발견하지 못하자 마음이 다급해졌다.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마침 소보살이 진영 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장수에게 물었다.

"내 일찍이 상산 조자룡이 당양의 장판교를 횡행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지만, 저 장수에는 미치지 못한다. 저 장수를 사로잡을 수는 없겠구나."

소보살은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다.

"내가 저 장수를 보니 동서남북으로 황급히 다니는 모습이 무언가를 찾는 듯하다. 이는 필시 명나라 도독의 휘하 장수로, 도독을 찾으려는 것이리라. 우리 측 죽은 병사의 머리를 베어서 진영 위에 보이고 '너의 도독이 죽었다'고 말한다면, 그는 필시 기세가 꺾여서 쉽게 손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소보살은 즉시 죽은 병사의 머리를 가져다가 깃대에 높이 걸고 소리를 질렀다.

"저 장수는 공연히 군진을 아무렇게나 돌아다니지 말라. 도독의 머리가 이미 여기 있으니, 너는 자세히 보라."

홍흔탈이 눈이 밝다 해도 달빛 아래 어떻게 분간하겠는가. 양창곡의 뛰어난 풍모와 홍흔탈의 총명한 능력을 보자면 평생 믿던 것을 거울처럼 밝게 보아 간계에 속지 않겠지만, 사람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닥치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팔공산의 초목의 의심도 있는 법이다. 하물며 양창곡을 향한 홍흔탈의 지극한 정성이 어떠하겠는가. 진영 위에서 소리치는 것을 듣고 벼락이 머리를 때린 듯 놀라서 정신이 있는 듯 없는 듯하다가, 홀연 가슴속의 불길이 마구 일어나매, 생사를 기러기 터럭처럼 가볍게 여기며 쌍검을 들고 소리를 질렀다.

"쌍검아! 내가 나를 따른다면 나의 한 조각 마음을 서로 비추리라. 오늘은 이 홍량의 생사를 결정하련다. 너도 또한 귀중한 보물이니 반드시 신령함이 있으리라. 나를 도우려거든 소리를 쟁쟁 울리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자루 부용검이 한꺼번에 쟁그랑거리며 울리는 것이었다.

[중략 줄거리]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우던 홍흔탈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적진으로 들어온 양창곡을 만나 적을 대파하고 정신을 잃는다.

반시간쯤 지나자 홍흔탈이 정신을 수습하고 말했다.

"상공께서 천금 같은 귀한 몸을 가벼이 여겨 매번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뛰어드시니, 이는 모두 저의 죄입니다. 상공께서 처음 오랑캐들에게 포위되었던 것은 나라를 위해 그렇게 되신 것이므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적진 속으로 들어가신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녀자는 반드시 남편을 따르는 법입니다. 저의 생사는 당연히 상공과 같이해야 하지만, 상공께서는 어찌 안위를 돌보지 않고 저를 따르신 것입니까? 어리석은 아녀자 입장에서야 감격하여 잊기 어려운 일입니다만, 식견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제가 올바른 도리로 남편을 모시지 못하여 한때의 정에 미혹토록 했다는 조롱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상공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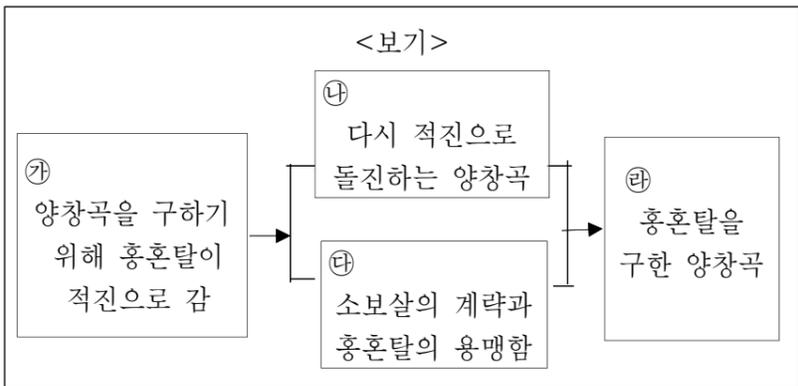
양창곡이 얼굴빛을 바꾸며 말했다.

"이는 금석 같은 말이라 당연히 가슴에 새기겠소만, 내가 당신에 대해서만은 속마음을 알아주는 지기로 대한 것이지 부부의 정리로 대한 것이 아니오. 어찌 급박한 상황이 없겠소? 그러나 나는 오히려 나 자신을 아끼지만, 그대는 매번 열렬한 협력의 기상이 있어서 생사를 돌보지 않으니, 이 역시 경계해야"

할 것이외다. 또 조심하시오."
- 남영로, '옥루몽'

2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개시키고 있다.
 - ② 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나 있다.
 - ③ 고사를 인용하여 인물의 뛰어난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사건의 인과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전기적(傳奇的) 수법을 동원하여 위기 극복 의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22. 윗글의 사건 전개를 <보기>와 같이 도식화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로 인해 ㉠의 홍흔탈의 의도가 달성되지 못할 수도 있었다.
- ② ㉠, ㉡를 통해 목숨보다 의리를 소중히 하는 두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다.
- ③ ㉡와 ㉢은 비슷한 시간에 일어난 사건으로 두 인물의 비범한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에서 소보살의 계략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 ⑤ ㉠에서 ㉢로의 사건 진행을 통해 천상계가 지상계에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A]와 [B]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와 [B]에는 모두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 ② [A]에서는 상대의 잘못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상대에게 감정보다 이성적 판단을 앞세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④ [B]에서는 [A]의 의견을 수용하는 동시에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 ⑤ [B]에서는 상황 논리를 들어 자신의 행위가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부각하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옥루몽'은 동일 작가의 작품인 '옥련몽'을 개작한 것이다. 개작 과정에서 사건이나 인물의 성격 변화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작가의 개작 의도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양도독이 죽었으니 빨리 항복하라는 소보살의 계략에 대한 홍흔탈의 반응은 '옥련몽'에서는 '이러한 터를 당하여 만일 창황 경동치 않으면 또한 인정이 아니라 목석이라.'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는 인간이면 누구나 느끼는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옥련몽'에서는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인간이면 누구나 그럴 것임을 말하고 있다. 반면 '옥루몽'에서는 '양창곡을 향한 홍흔탈의 지극한 정성이 어떠하겠는가'로 바뀌어 아녀자가 지켜야 할 도리인, 부덕(婦德)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 ① '옥련몽'에 비해 위 글은 인물이 지닌 영웅적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② '옥련몽'에 비해 위 글은 인물의 심리적 정황을 더욱 세밀하게 그려 내고 있다.
- ③ '옥련몽'에 비해 위 글은 인물의 행동이 지닌 현실 비판적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옥련몽'에 비해 위 글은 인물의 도리를 말함으로서 유교적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옥련몽'에 비해 위 글은 인물의 행동을 사실성을 바탕으로 개연성 있게 묘사하고 있다.

⑤ 자기 자신이 단 한 번도 수학적 방법으로 증명해 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29. ㉠~㉣중, <보기>와 같은 '정리'를 전제할 필요가 있는 것은?

<보기>
자연수에 자연수를 더한 결과는 항상 자연수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0~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균은 다양한 종류의 전염병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는 세균이 수많은 화학 물질을 만들어 다른 유기체를 죽이기 때문인데, ㉠ 인간은 이 같은 '미생물 킬러'를 인공적으로 배양하여 특정 세균을 죽이는 데 이용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항생 물질인 페니실린도 균류인 푸른곰팡이에서 얻은 것이다.

항생 물질은 새로운 세균이 세포벽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이미 존재하는 세균의 세포벽을 부식시켜 세균을 해체시킨다. 또 세균 세포 안에서 단백질이 형성되는 걸 막거나 DNA가 새로운 세균을 재생산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균의 물질대사 각 단계를 차단하기도 한다.

항생 물질이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세균 자신도 항생 물질의 허를 찌르기 위해 그만큼이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말이 된다. 진화의 법칙에 따라서, 항생 물질에 저항력을 갖춘 돌연변이 세균이 생겨나게 되면 이러한 세균이 그렇지 못한 세균보다 살아남을 가능성이 훨씬 많으며, 재생산 역시 훨씬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세균은 페니실린이 자신을 파괴하기 전에 페니실린을 파괴하는 또 다른 효소를 생산하는 형태로 진화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세균은 페니실린이 무력화시킬 수 없는 효소를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하기도 한다.

세균이 항생 물질에 저항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위협적인 무기는 플라스미드이다. 플라스미드는 세균이 지닌 염색체 외의 유전인자인데, 이들 중에는 항생력이 있는 물질을 만들어서 다른 세균을 죽이는 것도 있고, 세균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지니도록 만드는 것들도 있다. 세균의 관점에서 볼 때, 플라스미드의 장점은 하나의 세균에서 다른 세균으로, 심지어 하나의 종에서 다른 종으로 이동하며 돌연변이 DNA를 퍼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때로는 세균 안에서 기생하는 바이러스가 하나의 세균 무리에서 다른 무리로 플라스미드를 옮겨 주기도 한다. 그런데 플라스미드가 퍼지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 세균식 교미를 통해서이다. 세균은 단성이지만,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는 세균은 플라스미드가 없는 세균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 그래서 두 세균은 잠시 결합한다. 이때 플라스미드를 가진 세균은 자기 플라스미드를 복제하여 상대방에게 건네 준다. 그런 다음 두 세균은 다시 분리된다. 그래서 두 세균 모두 플라스미드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항생 물질을 광범위하게 사용한 결과, 사람의 몸 안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세균은 페니실린 파괴 효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새로운 항생 물질을 찾아 내어 세균보다 한 발 앞서 가려 한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세균은 하나 이상의 항생 물질에 저항력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그 저항력을 전해 준다. 그래

서 과학자들이 약에 대한 복합적인 저항력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생겨났다. 심지어 인류가 이용 가능한 모든 항생 물질에 대해 저항력을 갖고 있는 변종 세균도 생겨났다. 그래서 세균을 퇴치하려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믿는 과학자들도 있다. ㉢ 세균 예방 백신 같은 걸 개발하자는 것이다.

만일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설사 괜찮아지는 느낌이 들더라도 안심하지는 말아야 한다. 세균이 다 죽었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몸 어딘가에는 세균 몇 마리가 기력을 회복할 날만 고대하며 숨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3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세균은 다른 유기체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도 한다.
② 항생 물질은 대개 화학 물질을 적절히 배합하여 제조한다.
③ 세균은 돌연변이를 통해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곤 한다.
④ 항생제에 대한 저항 능력을 지닌 세균들이 증가하고 있다.
⑤ 항생 물질을 이용한 세균 퇴치 방법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31. 위 글의 내용을 참조할 때, (보기)의 '세균 공장'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세균 공장'을 이용해서 당뇨병에 걸린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인슐린을 무한히 생산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인간의 DNA에서 인슐린 생산을 조절하는 부분을 잘라 낸다. 그런 다음 잘라 낸 부분을 세균의 DNA 안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세균은 새로 들어온 DNA 조각의 명령에 따라 인슐린을 열심히 생산한다. 게다가 이 세균이 분열되어 새 세균이 생기면, 새로 생긴 세균 역시 인슐린 생산을 명령하는 DNA를 갖게 된다. 먹이를 충분히 공급해 주지만 하면 이 공장은 끊임없이 가동될 수 있다.

- ① 항생 물질로 세균을 파괴하는 원리를 적용한 것 같아.
② '플라스미드'의 유전자 운반 능력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어.
③ 의도적으로 돌연변이 세균들을 다양한 종류로 생성해 내고 있군.
④ 항생제에 대한 세균의 저항 능력을 교묘하게 피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
⑤ 복합적인 저항력을 지닌 세균들만을 골라서 그 능력을 역이용한 사례야.

32. ㉠과 같은 방법의 핵심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 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려 하고 있어.
② 상황의 의미를 자신의 입장에 맞도록 왜곡하여 해석하고 있군.
③ 적을 이용해서 또 다른 적을 제압하도록 하는 수법과 같군.
④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어.
⑤ 약한 힘이지만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끝내는 큰 목표를 이루려 하고 있어.

33. ㉠의 과정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플라스미드를 지닌 세균과 지니지 않은 세균의 결합 →
 플라스미드의 복제 및 전달 → 두 세균의 분리 → (㉡)

- ① 두 세균의 역할이 뒤바뀜
- ② 다양한 변종 세균들이 만들어짐
- ③ 플라스미드 속의 유전자가 변형됨
- ④ 두 세균이 모두 플라스미드를 지니게 됨
- ⑤ 플라스미드의 유전자 전달 능력이 약해짐

34. (보기)의 설명을 참조할 때, ㉢에 담긴 생각을 바르게 해석한 것은?

<보기>

‘백신’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에 대해 인공적으로 면역을 주기 위해 생체에 투여하는 항원이다. 살아 있는 세균에 조작을 가하여 독소를 약화시키거나 균을 죽게 하여 만든 주사약이다. 백신을 투여하면 우리의 몸이 그 미생물에 저항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 내게 되어 나중에 동일한 미생물에 감염되었을 때 면역을 갖게 된다. 백신으로 일단 자극을 받으면 항체를 만들어 내는 세포는 감염균에 대하여 감수성을 유지하고 있다가 재감염되는 즉시 더 많은 항체를 만들어 면역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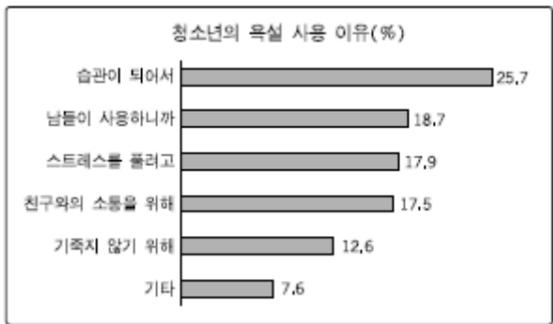
- ① 모든 세균에 대해 효과를 보이는 항생 물질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
- ② 세균들이 항생 물질에 대한 저항력을 지니지 못하게 하는 백신을 개발하자는 뜻이야.
- ③ 기존의 백신과는 달리 세균을 직접 몸속에 주입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야.
- ④ 세균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면역 기능도 높여 주는 약품을 개발하자는 의미인 것 같아.
- ⑤ 변종 세균에 대해서도 면역을 갖게 해 주는 백신을 개발해서 항생 물질을 대체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군.

화법과 작문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먼저 녹음 자료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어떠십니까? 우리들, 정말 욕 많이 하죠?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들 접하셨겠지만 실제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일상적인 언어생활 중에 욕설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청소년의 욕설 사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욕을 할까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줌.) 여러 이유를 떠올리셨을 텐데요. 다음 통계 자료를 보시죠.



보시다시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욕설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바로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욕을 해서 안 된다는 데 동의하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욕을 하게 되지요. 욕설을 사용하는 청소년만 탓할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건전한 여가 활동의 여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애초에 욕을 몰랐다면 어떨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그렇습니다. 아마 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욕설 습득 경로를 차단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자는 것과 욕설 습득 경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안이 효과를 얻으려면 청소년 스스로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고운 말 칭찬 릴레이 제도를 제안합니다. 우리 스스로 고운 말 사용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자고 취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학급에서 학교 전체, 더 나아가 청소년 문화 전체에까지 퍼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35. 다음은 위 발표를 위한 사전 계획이다. 발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발표 유형
정보 전달을 바탕으로 한 설득적 말하기 ①
2. 청중 분석
○대상: 학급 친구들
○사전 지식: 청소년의 욕설 사용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접했을 것임.
○특성: 절반 정도는 욕설 사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욕설도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절반 정도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②
3. 발표 전략
○녹음 자료와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③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위해 질문의 형식을 활용함. ④
○발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함. ⑤

36. 위 발표에 대한 학생들의 상호 평가 과정에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제기한 질문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발표자께서 제시한 통계 자료의 출처를 제시한다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 ② 욕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특별히 스트레스에 주목한 까닭을 설명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 ③ 여가 활동의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것만으로는 좀 막연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 ④ 청소년의 욕설 사용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청소년에게만 돌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 ⑤ 욕설 습득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경로부터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요?

37. 다음 대화에 나타난 ‘은영’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호: 너 표정이 굳어 보이는데, 괜찮니?
은영: 그러게 말이야. 난 발표하려면 꼭 이래. 지난번에도 너무 긴장해서 완전히 망쳤는데.
지호: 맘 편하게 먹어. 다 외울 정도로 준비 많이 했잖아.
은영: 그러게. 왜 나만 이렇게 긴장하는지 모르겠다. 다른 애들은 잘만 하는 것 같은데.
지호: 너같이 활달한 애가 이러니까 의외다.
은영: 나도 이상해. 이번 발표를 잘하면 곧 있을 반장 선거에도 도움이 될 텐데.
지호: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해봐. 몸도 좀 풀고.
은영: 그럴까? 암튼 발표 직전의 이 불안감, 정말 싫어. 발표 내내 이러면 안 되는데…….

- ① 지금의 느낌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여기면 역효과를 가져올 뿐이야. 오히려 누구나 겪는 자연스런 감정으로 받아들여.
- ② 남들 앞에서 하는 발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무엇보다도 발표를 완벽하게 해야겠다는 각오가 필요해.
- ③ 즉흥적인 대처 능력만 믿으면 안 돼. 충분한 연습과 준비를 통해 발표 내용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
- ④ 과거의 실수를 잊으면 안 돼. 한시라도 과거의 경험을 잊지 말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 ⑤ 발표를 회피하려는 것은 좋지 않아. 발표는 네 자신을 부각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

[38~41] (가)는 ‘활동 1’에 따라 학생들이 실시한 독서 토의의 일부이고, (나)는 ‘활동 2’에 따라 ‘학생 2’가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활동 1]
 다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독서 토의를 해 보자.

윤홍길의 소설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 권 씨는 ‘나’의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인물이다. 가장인 권 씨는 대학을 나와 한때는 출판사에서 일하기도 했지만 국가가 주도한 잘못된 주택 정책으로 인해 지금은 파산 상태에 이른 불행한 사람이다. 어느 날, 권 씨의 아내가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한 권 씨는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를 매몰차게 거절한다. ‘나’는 곧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권 씨의 아내가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권 씨는 수술비를 구하기 위해 그날 밤 칼을 들고 ‘나’의 방에 들어온다. 그러나 ‘나’에게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고, ‘나’의 말에 자존심 상한 권 씨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 서 권 씨가 당한 불행은 누구의 책임일까?

[활동 2]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글을 써 보자.

(가)
학생 1: 이번 토의의 사회는 내 차례야. (활동지를 나누어 주며) 지난 시간까지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읽었잖아. 오늘은 ‘권 씨가 당한 불행은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주제로 토의하려고 해. 이를 위해 먼저 권 씨가 한 강도짓에 대해 평가해 보자.

학생 2: 내가 먼저 말할게. 권 씨의 강도짓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이유를 따질 필요도 없이 무조건 비난받아야 해. ‘나’가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강도짓까지 하다니, 권 씨는 참 나쁜 사람이야.

[A] **학생 3:** 꼭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 그의 강도짓은 불법이 분명하지만 아내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위였어. 아내의 목숨이 경각에 놓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내가 죽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라 할 수 있어.

학생 2: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 강도짓이 나쁘다는 것은 알았겠지만, 그렇다고 아내를 그냥 죽게 놔 둘 수는 없었겠지.

학생 1: 정리하면, 권 씨의 강도 행위는 위법한 것이지만, 무조건 비난하는 건 가혹할 수도 있다는 거겠네. 그러면 권 씨가 이런 극단적 행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학생 2: 그야 권 씨가 가난했기 때문이지. 나는 가난의 책임이 권 씨 자신에게 있다고 봐. 그가 국가의 주택 정책을 꼼꼼히 따져 보았다면 파산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거야.

[B] **학생 3:** 물론 권 씨의 책임도 있어. 하지만 더 큰 책임은 국가에 있어. 책임지지 못할 주택 정책을 시행해 놓고 모든 책임은 권 씨 같은 순박한 국민에게 전가한 거잖아.

학생 2: 듣고 보니 그러네. 그렇다면 국가가 나서서 권 씨의 가난을 해결해 주었어야 했구나.

학생 3: 그렇지. 그런데 권 씨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만은 아니야. 권 씨가 ‘나’에게 “그 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라고 한 말이 잊히지 않

[C]

아. 이런 점에서 보면 권 씨는 물질적 도움도 필요했겠지만 이웃의 관심과 사랑도 필요했던 것 같아. 기 때문이지. 나는 가난의 책임이 권 씨 자신에게 있다고 봐. 그가 국가의 주택 정책을 꼼꼼히 따져 보았다면 파산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거야.

학생 1: 정리하면, 권 씨가 가난하게 된 데에는 국가의 책임이 크고, 그런 그를 도울 주체는 국가와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네.

(나)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읽고, 아내의 수술비를 구하기 위해 주인집에 강도짓을 하러 들어간 권 씨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토의를 통해 권 씨의 강도짓은 위법한 행위이지만, 그 나름의 딱한 사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만약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내를 죽게 만들었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지탄받을 행위이기 때문이다.

권 씨는 가난으로 인해 가족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었다. 나 역시 권 씨와 같은 불행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와 유사한 극단적 행동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그를 둘러싼 사회 환경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선 권 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이들의 처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이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다. 권 씨는 자신의 위급한 처지를 알면서도 외면한 ‘나’에게 “그 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라는 말을 하며 사라진다. 나는 권 씨의 이 절규를 통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웃의 관심과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권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으로서 각 개인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다.

그동안 나는 권 씨처럼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들을 보면, 그들이 겪는 고통의 책임은 모두 그들에게 있다고 여겼었다. 하지만 이 토의를 통해 이런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자의가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의해 누구라도 권 씨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들을 도울 책임이 있다. 다만 ㉠ 이들을 도울 때에는 세심한 접근도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 씨의 경우처럼 아예 도움을 주려는 이들로부터 떠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주변에 소외받는 이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아야겠다.

38. 다음은 ‘학생 1’이 (가)의 토의를 준비하며 떠올린 생각이다. ㉠~㉣ 중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처음으로 해 보는 토의의 사회라 떨려. 사회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 토의를 시작할 때 주제를 분명히 전달하여 토의 내용이 분산되지 않도록 해야겠어. 그래도 ㉡ 토의 내용과 관련 없는 말을 하는 참여자들에게는 잘못된 점을 분명히 지적해 주어야겠어. 또 참여자가 토의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 토의 내용을 정리해 주고, ㉣ 근거가 부족한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도록 요청해야겠어. 그리고 ㉤ 참여자에게 발언 순서를 안내해서 모든 참여자가 골고루 말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겠어.

- ① ㉠, ㉡ ② ㉠, ㉢
- ③ ㉡, ㉣ ④ ㉠, ㉢, ㉤
- ⑤ ㉢, ㉣, ㉤

39. [A]~[C]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을 반박하면서, 그 의견의 신뢰성이 떨어짐을 지적하고 있다.
- ② [A]: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의견에 대한 제진술을 요구하고 있다.
- ③ [B]: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원래 의견을 수정하고 있다.
- ④ [C]: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 의견을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고 있다.
- ⑤ [C]: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40. 다음은 (가)를 반영하여 (나)를 작성하기 위해 ‘학생 2’가 세운 작문 계획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1문단
 - 권 씨의 강도짓이 위법한 행위이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던 나의 생각과, 토의를 통해 수정한 생각을 함께 제시해야겠어.①
- 2문단
 - 권 씨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사회 환경적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혀야겠어.②
 - 권 씨의 극단적 행동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사회 차원의 노력과 개인 차원의 노력으로 구분하여 제시해야겠어.③
 - 토의에서 한 친구가 언급했던 권 씨의 말을 인용하여 물질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가 이웃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을 부각해야겠어.④
- 3문단
 - 토의를 통해, 그동안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들이 겪는 고통의 발생 책임에 대해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고 밝혀야겠어.⑤

41. <보기>는 ‘학생 2’가 (나)를 쓴 후 찾은 자료이다. <보기>를 활용하여 ㉠을 구체화할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아리스토텔레스는 ㉠ 연민이란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괴로움에 대해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연민의 발생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첫째는 그들이 겪는 고통이 심각하다는 믿음이며, 둘째는 그들이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며, 셋째는 나도 비슷하게 될지 모른다는 믿음이다.

○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연히 물질적 지원이다. 그런데 ㉢ 그들이 물질적 지원을 받을 때, 그들을 사회적 패배자로 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한다.

- ① ㉠을 활용하여,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② ㉡를 활용하여, 누구라도 권 썩처럼 사회에서 소외받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③ ㉢를 활용하여,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때에는 도움을 받는 이의 심리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④ ㉠과 ㉢를 활용하여,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들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때문에 더욱 고통받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⑤ ㉡와 ㉢를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때에는 연민의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2~43] <보기 1>은 논설문을 쓰려는 학생의 구상이고, <보기 2>는 글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의 일부이다.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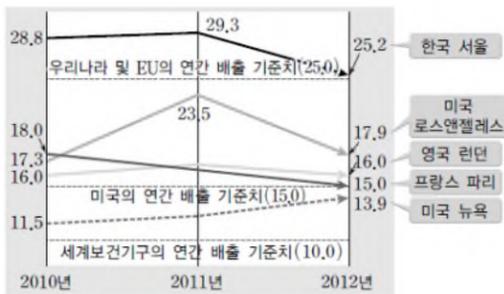
미세 먼지 농도가 크게 높아지는 일이 자주 발생해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어. 다른 나라의 실태와 비교해 보면 그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거야. 또 이러한 문제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알아보면 문제 해결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겠지. 무엇보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고농도 미세 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미세 먼지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완결성 있는 글을 전개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도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거야.

<보기 2>

[가] 미세 먼지 및 초미세 먼지의 국내 오염원 비율(2010년)

구분	오염원	비율(%)	
		미세 먼지 (직경 10 μ m 이하)	초미세 먼지 (직경 2.5 μ m 이하)
수도권	이동 오염원	86	78
	사업장	9	16
	생활 주변	5	6
전국	이동 오염원	23	16
	사업장	66	82
	생활 주변	11	2

[나] 초미세 먼지(직경 2.5 μ m 이하)의 연평균 농도 추이 (단위: μ g/m³)



※ μ m은 100만 분의 1m, μ g은 100만 분의 1g

[다] 전문가 의견

최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 먼지는 국내에서 배출된 오염 물질 외에 국내 미세 먼지 농도에 30~40% 정도 영향을 미치는 중국발 스모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 중 2.5 μ m 이하의 초미세 먼지는 크기가 작아 건강에 더 위협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야 관리 기준이 설정되었다.

EU(유럽 연합)의 경우 10여 년 전부터 대기질 관련 법규와 기준을 단순화하며 이행을 강화하고, 대기질의 측정 및 예보 체계를 현대화하며 초미세 먼지에 인체가 노출되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EU가 산업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여 호흡기 질환과 수명 단축을 야기한다며 정책적인 의지가 부족함을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 오염원의 과감하고 지속적인 감축과 함께 중국의 스모그 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며, 국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미세 먼지 예·경보 체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 대기 환경 전문가 ○○○ 박사

42. 다음은 <보기 1>을 바탕으로 작성한 개요이다. 개요의 수정 및 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I. 고농도 미세먼지의 실태와 원인㉠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의 급증
 - 해외 사례를 통해 본 문제의 심각성
- II. 미세먼지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1. 미세먼지 관리의 문제점㉡
 - 가. 국내 미세먼지 관리 기준 및 체계의 취약
 - 나.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취약
 - 다. 미세먼지로 인한 산성비의 증가㉢
 - 2. 미세먼지 관리 체계 개선 방안
 - 가. 국내 오염원의 관리 기준 및 체계 강화
 - 나. 중국 오염원의 유입 방지를 위한 국가 간 협력
 - 다. 예보 및 경보 체계의 보완과 정비㉣
- III.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촉구㉤

- ① ㉠은 하위 항목의 내용을 고려해 ‘고농도 미세먼지 실태의 심각성’으로 수정해야겠어.
- ② ㉡에는 II-2와의 대응 관계를 고려해 ‘중국의 스모그 유입에 대한 대책 미비’를 추가해야겠어.
- ③ ㉢은 글의 전개 과정으로 볼 때 긴밀성이 떨어지므로 삭제해야겠어.
- ④ ㉣은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미세 먼지 예방을 위한 경보 및 예보 체계 도입’으로 수정해야겠어.
- ⑤ ㉤은 중심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국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 체계의 강화 촉구’로 보완해야겠어.

43. <보기 1>에 따라 <보기 2>를 활용할 때의 유의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를 활용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분석할 때에는 지역에 따라 오염원의 구성 비율이 다른 점에 유의한다.
- ② [가]와 [다]를 종합해 미세먼지 예보 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할 때에는, 미세먼지의 농도에 영향을 주는 국·내외 요인을 모두 고려한다.
- ③ [나]를 분석할 때에는 [가]의 정보에 따라 초미세 먼지의 높은 농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 ④ [나]에 설정된 각국의 연간 배출 기준은 [다]에 비추어 볼 때 건강을 위해 최적화된 것임을 고려한다.
- ⑤ [나]의 추이는, [다]에 나타난 방안에 따라 [가]의 오염원을 관리함으로써 변화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

44. 다음 중 ‘설명문’에 반영된 글쓰기 전략이 아닌 것은?

- ㄱ.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용어의 개념을 설명한다.
- ㄴ. 정보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일련의 단계에 따라 전달한다.
- ㄷ.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대상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 ㄹ. 글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물음의 방식으로 글을 시작한다.
- ㅁ. 글에서 설명할 원리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다.

고가가구가 제작된 연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물론 시대별 양식의 특징을 안다면 대략적인 추정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보다 정확히 제작 연대를 알려면 과학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고가가구의 재료인 나무의 나이테는 그것이 형성된 시기의 기후를 반영하며 해마다 만들어지므로 연대 측정의 단서가 된다. 이는 마치 지층을 통해 그것이 형성된 시기의 지질 상황을 추정하는 것과 흡사하다.

나무는 자라면서 주변의 환경이나 기후의 영향을 받아 나이테, 즉 연륜의 패턴이 형성된다. 또 성장하는 곳의 한 해 기후가 변동하는 것에 따라 연륜의 간격이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한다. 이를 연대별로 기록한 그래프를 연륜 연대기라고 한다. 연륜 연대기는 한 그루의 나무만이 아니라 연륜 패턴이 겹치는 여러 나무들을 연대에 따라 연결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의 것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 고목재의 나이테도 활용된다. 이러한 정보가 충분히 수집되고 검증되면 표준화된 연대기를 만들 수 있다.

제작 연대를 알지 못하는 고가가구가 있다면 고가가구에서 얻은 연륜의 패턴을 파악한다. 이를 고가가구의 주요 생산지나 목재의 산출지에서 자란 동일한 종류의 나무에서 얻은 표준화된 연대기와 비교하면 이 가구가 어느 시기에 성장한 나무로 제작된 것인지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겹겹질을 포함한 나무라면 겹겹질 쪽의 마지막 나이테를 통해 벌채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고가가구의 제작 연대도 산출할 수 있다.

이처럼 나무의 나이테는 고목재의 연대 측정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기 때문에 목조 건축 문화재를 연구하거나 복원할 때에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또 이 같은 원리는 기상 관측 이전의 기후 변화 정보를 알아내는 단서로도 활용될 수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45. <보기>는 설득적인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글감이다. <조건>에 따라 새로운 글을 구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과잉 교정 인간’은 잘못된 언어 사용을 용인하지 않으며, 문법과 표준어,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에 집착하는 사람을 말한다. 표준어와 맞춤법 등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이나 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만든 규정인데, 과잉 교정 인간은 이를 융통성 없고 엄격하게 적용하여 살아 있는 말과 글을 교정하려 한다. 이러한 행위는 자칫 다채롭게 생성되고 변화하는 언어의 생동감을 훼손시킬 수 있다. 언어는 틀에 박힌 제약이 아니라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서 생명력이 증대된다.

<조건>

- <보기>에서 발견한 의미를 다른 상황에 적용할 것.

- ①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독서 경험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② 어문 규정을 융통성 없게 적용하다 보면 창조적인 언어 사용이 위축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③ 일상생활의 규범을 각자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의 유대 관계가 훼손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④ 도덕적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때 오히려 개인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⑤ 창의성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미숙한 생각을 말할 때라도 과도하게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글을 쓸 수 있겠어.

언어와 매체

35. <보기 1>를 참고할 때, <보기 2>의 ㉠ ~ ㉣ 중, 그 성격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보기 1>
보조 용언은 보조적으로 쓰이는 용언으로 다른 용언에 부가되어 부속적인 의미를 첨가하는 데 쓰이며,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쓰이는 실질 용언에 대해 형식 용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보조 용언과 동일한 형태가 홀로 독립된 용언으로 쓰일 때는 독자적인 본래의 의미를 나타낸다.

<보기 2>
· 최근 서버의 다운으로 전국의 인터넷이 마비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번 사태는 웹 바이러스의 소행으로만 알려져 ㉠ 있다.
· 네트워크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 있다.
· 인터넷은 소수의 허브 사이트가 수많은 사이트와 연결되어 있고, 대다수 사이트는 몇 사이트와 링크되어 ㉢ 있다.
· 허브 공항은 수많은 항공 노선을 갖고 ㉣ 있다.
· 이 때의 정보 조각 단위를 '패킷'이라고 하는데, 각 패킷은 우편엽서처럼 주소가 적혀 ㉤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6. <보기>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예문'을 분석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주동(主動)과 사동(使動)의 개념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면 주동(主動)이고, 주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키면 사동(使動)이다.
2. 사동 표현의 방법
(1) 용언의 어근+사동 접미사('어-, -히-, -리-, -기-, -우-, -구-, -추-')
(2) 용언의 어간+'게 하다'
<예문>
(a) 어머니께서 동생으로 인해 웃으셨다.
(b) 동생이 어머니를 웃겼다.
(c)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약을 먹이셨다.
(d)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약을 먹게 하셨다.
(e) 우리 집에서는 소를 먹인다.
(f) 그 영화배우는 1960년대에 명성을 날렸다.

- ① (a)는 주동문이고, (b)는 이를 사동문으로 바꾼 것이다.
② (c)와 (d)를 주동문으로 바꾸면 바뀐 두 주동문의 주어는 일치하지 않는다.
③ (c)는, "어머니는 동생에게 직접 약을 먹였다."와 "어머니는 동생 스스로 약을 먹도록 했다."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된다.
④ (e)에 대응하는 주동문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f)의 '날렸다'는 사동 형태이지만 사동의 뜻이 아닌 '명성을 떨쳤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37.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다음 밑줄 친 짝들 중에서 '이형태'로 볼 수 없는 것은?

<보기>
형태소 집합에는 하나 이상의 형태들이 있는데, 이러한 형태들은 그 형태소의 '이형태(異形態)'라 한다. 이는 한 형태소에 속하는 서로 다른 형태들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밥과 빵'의 경우처럼 자음으로 끝난 단어 뒤에는 접속 조사 '과'가, '차와 술'처럼 모음으로 끝난 단어 뒤에는 '와'가 쓰인다. 똑같은 의미와 기능을 지니고 있고 분포하는 위치도 같은 접속조사 '과'와 '와'는 한 형태소에 속하는 이형태이다.

- ① 그 일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일이 제일 어려웠다.
② 내가 먹을 밥이 어디에 있나요?
아빠 차를 타고 와서 지각을 면했다.
③ 물뱀이 연못의 개구리를 잡아 먹었다.
조카가 걸어 다닐 만큼 많이 자랐다.
④ 그녀는 오랜만에 밥을 맛있게 먹었다.
그는 개울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놀았다.
⑤ 너는 반대의 입장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 사과는 맛은 좋은데 값은 비싼 것 같아.

[38~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한글이 매우 우수한 글자라는 점을 알면서도 어떤 면에서 그러한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우리보다도 외국의 학자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더욱 널리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부끄러운 일이다.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은 이미 1960년대부터 국제 학계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1960년대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과서로 출간된 교재에서 저자인 라이샤워 교수는, 한글이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모든 문자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체계를 지녔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유네스코에서는 1997년에 한글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여 훈민정음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한글은 어떠한 점에서 우수한가?
첫째, ㉠ 한글은 제자 원리가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이다. 세계의 어떤 문자도 문자 사이의 체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한글은 우리말의 음소 체계를 잘 고려하여 만든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들 사이에도 체계가 있어 배워서 사용하기 쉽다. 한글 자모는 제각각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몇 개의 기본자를 먼저 만든 다음, 나머지는 이것들로부터 파생시켜 나가는 이원적인 체계로 만들어졌다. 17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기본자 다섯 자를 만들고, 이 기본자에 획을 빼거나 더해 나머지 자음을 만들었다. 된소리들은 예사소리 글자가 겹쳐져 있는 것이며, 거센소리는 예사소리에 획이 하나 또는 둘씩 그어져 있다. 그리고 비음은 예사소리 글자에서 획이 하나 또는 둘씩 감해져 있으며, 유음은 예사소리에 글자 두 획이 더해져 있다. 자음 중에서 다른 자음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것은 'ㅇ, ㅎ' 두 자뿐이고, 나머지 자음들은 모두 서로 관련이 있어 예사소리만 제대로 알게 되면 나머지를 쉽게 알 수 있게 짜여져 있다. ㉡ 모음 역시 자음만큼은 아니지만 서로 관련을 지을 수 있는 글자들이 많다. 모음의 경우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 이중모음은 모두 단모음과 관련이 있는데, j계 이중 모음들(ㅑ, ㅕ, ㅗ, ㅛ 등)은 각 단모음에 획이 하나씩 그어져 있고, w계 이중 모음들(ㅜ, ㅠ

[41~43] 다음 매체 자료들을 통해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쇄 매체 - 책

스매시는 높이 떠오르는 셔틀콕을 빠른 속도와 강한 힘으로 화살과 같이 상대방의 코트 면에 쳐서 넣는 타구이다. 배구의 스파이크와 마찬가지로이다. 스매시는 배드민턴의 기술 중 가장 매력적이고 화려하며 공격적 파괴력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주로 셔틀콕을 빠르게 낙하시켜 상대의 자세를 무너뜨리며 랠리의 결정구로 사용된다.

타구하는 방법은 속도를 신기 위해 백스윙을 시작하는 동작이나 타구 후의 동작 등을 크게 해야 한다. 공격에 성공하면 바로 득점으로 연결되지만, 실수가 잦다는 것이 스매시의 단점이다. 또한 동작이 클수록 상대에게 공격이 읽히기 쉽고, 타구 후에도 다음 동작으로 연결하는 것이 비교적 늦어져 상대에게 반격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매시는 강하고 빠른 속도로만 타구하려 하지 말고 날카로운 각도로 경기장 양쪽 구석을 향해 정확히 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ㄱ 스매시 공격 조건

스매시는 지능적인 작전을 잘하는 경기자가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체력의 소모를 적절히 조절할 것(과도한 스매시는 삼갈 것).
- 결정적 순간의 포착을 위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출 것.
- 수비자의 허술한 지점을 포착하여 공격할 것.

(나) 인터넷 매체 - 블로그

4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문자언어를 활용하여 스매시 기술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였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핵심 정보와 연관성이 있는 부가적인 정보는 하이퍼링크로 연결하였다.
 - ③ (가)와 (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독자와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동영상을 통해 스매시를 하는 자세와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 ⑤ (가)는 (나)보다 정보의 신뢰성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42. (가)와 (나)에서 사용된 매체 언어와 그 특징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 사용된 매체 언어 : 문자, 그림, 사진
- ② (나)에 사용된 매체 언어 : 소리, 음성, 하이퍼링크
- ③ 문자 : 직접적인 대화보다 정보전달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 ④ 사진 : 상대방에게 정보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활용된다.
- ⑤ 동영상 : 문자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단시간 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43. (가)와 (나)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
정보 제공 속도	느림-----①	빠름
정보 보존 방법	인쇄물-----②	디지털 정보
정보 제공자의 범위	폐쇄적-----③	개방적-----④
정보의 신뢰성	낮음-----⑤	높음

[44~45] 다음 매체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아일보 2017년 9월 1일

그 많던 모기, 다 어디로 갔을까

8월 감시 지점 10곳서 1,541마리 잡혀
5년간 평균 대비 절반으로 뚝
"중부 폭우 - 남부 가뭄, 서식지 줄어"

6~8월 전국 10개 지점 모기 감시 현황
(마리) 2,000 1,600 1,200 800 400
1,052 1,773 1,064
903 856 452
2017년 평년(2012~2016 평균)
6월 3주차 7월 2주차 8월 1주차
자료: 질병관리본부

장마가 끝난 뒤 모기 기피제를 잔뜩 구매한 홍○○ 씨(33)는 지난 몇 주간 포장도 뜯지 않았다. 홍○○ 씨는 "비가 그치면 모기가 크게 늘 줄 알았는데 몇 주간 거의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31일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10개 감시 지점의 모기 수를 집계한 결과 모기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3주간 채집된 모기 수는 1,541마리로 최근 5년간(2012~2016년) 평균(3,075마리)의 절반에 불과했다. 지난해 8월 3주간 모기 수는 2,615마리로 올해보다 70% 가량 많았다.

'여름의 불청객' 모기가 급감한 것은 '너무 많이 오기도 하고, 너무 적게 오기도 한' 비 때문이다. 중부 지방에는 이번 장마 기간(6월 29일~7월 14일) 지역적이고 강한 폭우가 쏟아졌다. 장마가 끝난 8월 중순에도 서울에 시간당 30밀리

미터(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등 이례적인 강우가 이어졌다.

반면 남부 지방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장마 기간 남부 지방의 강우량은 평년의 53% 수준을 기록해 중부 지방과의 강우량 차이가 254.9밀리미터(mm)나 됐다. 장마 기간 강원 홍천에는 432.5밀리미터(mm)의 비가 내렸지만, 대구의 강우량은 13.1밀리미터(mm)에 그쳐 지역별 강우량 차이가 33배나 나기도 했다. 8월 중순에도 중부 지방에는 비가 많이 왔지만, 남부 지방에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다.

질병관리본부 매개체 감시과에서는 "보통 장마가 끝나고 모기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는 지역적 집중 호우와 고온이 이어지면서 모기의 서식 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나)

[내레이션]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치형 돌다리로 손꼽히는 승선교.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승선교는 기다란 화강암으로 다들은 돌을 연결한 후 반원형의 무지개 모양으로 다리를 쌓은 것인데, 돌들이 서로 견고하게 맞물린 모양이 매우 정교하고 아름답다. 특히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돌들을 고도의 기술로 빈틈없이 밀착시켜 완벽한 곡선미를 이루는데, 그 신비스러운 정취가 주변과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

-광주방송, '남도의 보물 100선(12회 '물이 내린 선암사를 건다.)'에서

(다)

공과 공 블로그
2017년 9월 1일

여름 반찬 - 감자조림 황금 조리법

1) 요리 재료

- 주재료: 감자 1개(200그램(g))
- 부재료: 당근 1/6개(30그램(g)), 양파 1/10개(20그램(g)), 깨 1/2작은술(2그램(g))
- 양념 재료: 간장 1과 1/2 큰 술(22밀리리터(ml)), 물엿 1/2 큰 술(7밀리리터(ml)), 마늘(다진 마늘) 1 작은 술(3그램(g)), 식용유 1/2 큰 술(7밀리리터(ml)), 물 1/4컵(50밀리리터(ml))

2) 기본 정보

- 조리 시간: 30분
- 분량: 5인분 기준
- 칼로리: 44킬로칼로리(kcal) (1인분)

3) 요리 과정

① 감자, 당근, 양파는 1.5x1.5센티미터(cm) 크기로 네모나게 썬다. 감자는 찬물에 담가 전분기를 제거한 후 체에 발쳐 물기를 뺀다.

댓글 2개

4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다)는 모두 특정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추상적인 매체 언어인 문자를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 ③ (나)와 (다)는 이미지와 문자, 영상 등을 다양한 매체 언어들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 ④ (다)는 (가)와 (나)에 비해 정보의 신뢰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 ⑤ (다)는 감자조림의 재료와 요리 과정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45. (가)~(다)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비 때문에 '여름의 불청객' 모기가 급감하였다.
- ② 남부 지방은 중부 지방에 비해 강한 폭우가 더욱 심하게 이어졌다.
- ③ 승선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치형 돌다리로 손꼽힌다.
- ④ 감자조림은 주재료 감자와 다양한 부재료가 필요하다.
- ⑤ 승선교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돌다리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정답 및 해설

문학/독서

1	②	2	⑤	3	④	4	③	5	⑤
6	④	7	①	8	⑤	9	①	10	⑤
11	⑤	12	④	13	④	14	④	15	④
16	③	17	②	18	⑤	19	⑤	20	③
21	④	22	⑤	23	⑤	24	④	25	④
26	①	27	②	28	④	29	③	30	②
31	②	32	③	33	④	34	⑤	수고하셨습니다.	

[1~5] 문학 : 극 갈래
[지문 분석]

앞부분의 줄거리 ▶ 두 명의 창고지기인 자양과 기임은 새벽마다 트럭에 실려 온 상자를 내리고 창고에 보관된 상자를 트럭에 싣는 일(창고지기인 자양과 기임이 하는 일)을 한다. [매사에 꼼꼼하게 일하는 자양과 달리 기임은 자신의 일에 회의를 느끼며 자양의 성실함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두 인물의 대조적인 성격이 나타남) 기임은 상자를 싣고 내리는 일보다 트럭 운전수의 딸인 다령과의 만남에 열중한다. 창고를 나가고 싶어 하는 기임은 다령의 부추김에 상자 하나를 바꾸어 트럭에 싣는다. 이를 뒤늦게 알아챈 자양은 잘못 나간 상자 번호를 확인하고, 상자 주인에게 잘못을 시인하는(어떤 내용이나 사실이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는) 편지(상자가 뒤바뀌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창고지기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임)를 쓴다.

등장인물 자양(창고지기), 기임(창고지기), 트럭 운전수, 다령(트럭 운전수의 딸)

창고(등장인물들이 일하는 삶의 공간, 세계 속에 있으면서도 세계와 단절된 공간 : 산업 사회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 밖으로 상자들을 옮기고 있던 자양과 트럭 운전수 사이에 연쟁(말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다툼)이 벌어진다. 자양은 트럭 운전수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도록 간청하고 운전수는 목청을 높여 가며 거절의 이유를 설명한다.(자양과 트럭 운전수의 외적 갈등)

운전수: 그건 미친 것이야!(잘못을 시인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 일부러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어!

자양: (편지를 운전수에게 내밀며)(행동 지시문) 제발 보내야 해요!

운전수: 여봐, 내가 상자들을 운반하고 다니니까 상자 주인노가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건 큰 착각이야.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구.(산업 사회에서 부품처럼 살아가는 삶)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 받을 때 만나는 분배 반장 딸 기코하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나눠 싣고 정거장에 가서 만나는 접수 반장 외눈깔, 그 둘뿐이라구.](운전수가 알고 있는 것이 없음) 딸기코와 외눈깔은 내가 붙인 별명인데,(인물의 진짜 이름을 모른 채 별명으로만 부름 : 현대 사회의 익명성) 물론 진짜 이

름이야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노름꾼이라 하듯이 나도 그들을 별명으로만 불러.(그들에 대한 관심이 없음) 어쨌든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정거장의 왼쪽이고, 외눈깔이 상자를 접수하는 곳은 정거장의 오른쪽이야. 그래서 그들은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번 볼 수조차 없어.(산업 사회에서 개인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자양: 별명이든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편지를 억지로 운전수 손에 쥐어 준다.)(자양의 정직하고 성실한 성격이 드러남) 상자를 싣고 가는 곳에 내 편지를 갖다주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되거든요.(자양이 생각하는 방법)

운전수: 내가 자네 편지를 외눈깔에게 주면, 외눈깔은 그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다음 사람은 또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운반되는 상자들을 따라가 맨 나중에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지?

자양: 네, 바로 그겁니다.

운전수: [그게 또 큰 착각이라구. 부속품이 든 상자들은 말야, 중간중간에서 여러 갈래로 수없이 나눠지거든.](편지가 상자 주인에게 편지가 도착할 수가 없다는 의미)

자양: 부속품 상자들은 결국 한 군데로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운전수: 물론, 모아지는 곳도 있겠지. 상자들이 한 군데에서 나와 여러 군데로 흩어지느냐, 여러 군데에서 나와 한 군데로 모아지느냐..... 그건 그럴 수도 있구,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어쨌든 중간에 있는 우리가 어떻다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 : 개인이 사회의 부속품처럼 살아감)

자양: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 줘야죠. 엉뚱하게 바뀐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편지를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이유)

운전수: 잘못 만들어진다니..... 그게 뭔데?

[다령: (멀리서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외친다.) 어떤 굉장한 기계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 주는 신기한 기계조!(유익한 물건)]

운전수: (다령에게 외친다.) 무슨 기계라구?

다령: (큰 소리로) 기계가 아니라 폭탄이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요!(유해한 물건)](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른 채 부품처럼 살아감)

운전수: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자양에게) 어쨌든 상자 속의 부속품으로 뭘 만드는지 알 수는 없어. 만약 폭탄을 만든다면 오히려 상자가 바뀐 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테니까 잘된 일이잖아? (자양의 편지를 허공에 들고 두 조각으로 찢으며) 여봐, 자네 너무 배짱이 약해.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된다(모순된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의 성실함은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음)고 생각해봐. 그럼 상자 하나쯤 틀렸다고 안절부절못하진 않을 거야. (두 조각으로 찢은 편지를 자양의 바지 양쪽 호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어.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를 바에야 그냥 덮어두라구.(타인의 상황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태도) 창고 속의 자네한테는, 그게 배짱 편한 거야.

자양: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가리키며) 그렇다면 이 서류(자

양에게 판단과 행위의 기준,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믿음을 보여 줌)들은 됩니까? 누군가 이 서류들을 보면, 상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서류를 신뢰하는 자양의 모습)

운전수: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건 바보들뿐이지! 좋은 예가 있어. 내 아내는 옛날에 죽었는데 사망 신고를 안 했거든. 그래서 구청에서 호적을 떼어 보면 지금도 서류상으로는 버젓하게 살아 있는 것으로 나온다구.(서류도 진실을 담고 있지 않음)(운전수에게 서류는 신뢰할 수 없는 대상, 사회의 거대한 부조리함에 대해 불신을 드러냄) 자, 굶뎠이 양반, 꾸물대지 말고 어서 상자들이나 옮겨!

자양과 트럭 운전수, 손수레에 실은 상자들을 창고 밖으로 운반해 간다. 침대에 앉아 있던 기임은 일어나서 자신의 담요를 들들 말아 걷는다. 그리고 침대맡의 낡은 짐 가방을 꺼내 물건을 주워 담는다.(기임이 창고를 떠나기로 결심함) 다령, 기임의 걸음으로 다가온다.

다령: 마침내 결정한 거예요?
 기임: 그래, 함께 가서 살기로 했어.
 다령: (살림 도구들이 있는 곳에서 접시, 그릇, 찻잔들을 가져와 낡은 짐 가방에 담으며) 무조건 다 가져가요.(욕심 많은 다령의 성격이 드러남)
 기임: (다령이 담은 것들을 다시 꺼내 놓으며) 아냐, 반절만 내 것인걸!(그동안 함께 생활한 자양에 대한 배려)
 다령: 둘이서 함께 쓰던 물건은 어찌려구요? 반절로 나눌 수도 없잖아요.

자양과 운전수, 손수레에 상자를 싣고 창고 안으로 들어온다.

운전수: 우린 트럭에 상자들을 다 옮겼어. 그런데 너희는 짐도 안 싸고 뭘 했지?
 자양: 짐이라니.....?
 기임: 으음, 그렇게 됐어. 오늘 나는 이 창고 속을 떠난다구!
 자양: 정말 가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기임: 미안해! 그런데 막상 떠나려니까 조금은 서운하군.(자양과의 이별에 아쉬움을 느낌) (창고 안을 둘러보며) 너하고 여기서 얼마나 살았더라.....? 몇십 년은 훨씬 더 될 거야, 아마.....
 자양: 그래..... 우린 철부지 시절부터 이 창고지기였어.
 기임: 언제나 너는 나를 고맙게도 보살펴 줬지.
 자양: 날 의붓어미(기임에게 잔소리를 하는 자양을 기임이 부르던 별명)라고 미워했으면서 뭘.....
 기임: 진짜로 미워한 건 아니잖아?
 자양: 나도 알아. (기임을 껴안는다.) 제발 가지 말아! 이 창고도, 나도,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
 기임: 그건 안 돼. 이 창고는 더 이상 내가 살 곳이 아냐.
 운전수: 남자들끼리 헤어지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창고 밖으로 나가며) 시간 없어! 나 먼저 트럭에 가서 있을 테니까 너희는 어서 짐 싸 들고 나와!
 다령: (늦쇠 국자로 소리 나게 두드리며) 그만하고, 서로 자기 물건들이나 골라 봐요.
 기임: (자아의 포옹을 풀며) 난 내 물건을 잘 모르겠어. 굶뎠이.(똘똘하게 처리하느라 일이 굶뎠 자양의 별명) 네가 골라 줘.

[자양: 아냐, 쓸 만한 게 있거든 모두 내가 가져.
 기임: 너는 이 창고 속에서 혼자 살 텐데......] (서로를 배려하고 염려하는 태도)

자양: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먼저 골라 봐.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침대 밑의 상자들 중에서 화려한 색깔의 스웨터를 찾아낸다.) 너의 생일날 주려고 두었던 건데, 헤어지는 날 선물이 됐군.

기임: (자양에게서 스웨터를 받아 몸에 대본다.) 근사한데!
 다령: (자양의 침대 밑을 바라보며) 좋은 건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이걸 가져가도 돼요?(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욕심을 부림)

기임: 안 돼, 그건 손대지 마.
 자양: 가져가요.
 다령: (자양의 침대 밑에서 상자 하나를 꺼낸다.) 이걸 뭐죠?
 자양: 북어 대가리죠.(자양이 술을 마신 기임에게 북엇국을 끓여 주던 재료)(방향성을 잃고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함) 그걸 가져가세요. 꼭 필요할 겁니다.

다령: 북어 대가리.....?
 기임: 이게 왜 필요한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상자를 열어 북어 대가리를 하나 꺼내 자양에게 준다.) 난 너한테 이것밖에 줄 게 없군. 내 생각이 날 거야. 항상 곁에 두고 보라구.
 자양: (북어 대가리를 받으며) 그래, 언제나 내 곁에 두고 볼게.

창고 밖에서 트럭의 재촉하는 경음기가 울린다. 다령은 서둘러서 물건들을 담요에 담는다.

다령: 아버지가 재촉해요. (상자와 담요를 들며) 어서 들고 나가요.
 기임: (짐 가방을 들고, 자양에게) 그럼 잘 있어.
 자양: (마지못해 대답한다.)(이별을 아쉬워하는 자양) 잘 가....., 가서 행복해.

기임과 다령, 창고 밖으로 나간다. 자양은 북어 대가리(창고에 혼자 남겨진 자양을 상징함)를 식탁 위에 놓고, 떠나는 기임을 바라본다. 창고 문 앞에서 자양과 기침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기임: (소리) 이 창고 앞의 상자들은 어쩔 거야? 내가 좀 창고 안에 옮겨 주고 갈까?
 자양: 괜찮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창고 밖으로 떠나는 것이 즐겁다는 듯이 기임의 환호성이 들린다. 트럭 운전수와 다령의 웃음소리로 들린다. 잠시 후, 트럭이 경음기를 울리며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창고는 조용해진다.(창고 안과 밖의 대비를 통해 자양의 외롭고 쓸쓸한 모습이 부각됨) 자양, 식탁 앞에 힘없이 주저앉는다. 늙고 허약해진 모습이다. 그는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북어 대가리(자신의 신념에 회의를 느끼고 혼란에 빠져 방향성과 실천력을 상실한 자양의 모습을 보여 줌)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자양: 그래,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북어 대가리를 보며 동질감을 느낌) 그저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만..... 덜렁..... 남은 거야. (두 손으로 북어 대가리를 집어서 얼굴 가까이 마주 바라보며) 말해 보렴, 네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이

는지? 그토록 오랜 나날..... 나는 이 어둡고 조그만 창고 속에서..... 행복했었다. 상자들을 옮겨 오고..... 내보내며.....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뿌듯함(자양의 신념 : 맡은 일을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 옳다.)**..... 그게 내 삶을 지탱해 왔었는데.....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창고 속에서의 성실함이..... 무슨 소용 있는 거지?(자신의 신념과 태도에 대한 회의)** (사이) 북어 대가리아, 왜 말이 없냐? 멀뚱멀뚱 바라만 볼 뿐 왜 대답이 없어?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다.) **[아냐, 내 의심은 틀린 거야. 덜렁 넘어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잘못됐다고 판단해선 안 돼.(인식을 전환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함) (순수례에 실린 상자를 서류와 대조하며 혼자서 쌓기 시작한다.)(다시 서류를 맹신하는 모습을 보임)** 제자리에 상자들을 옮겨 놓아라! 정확하게 쌓아! 틀리면 안 돼! 단 하나의 착오도 없게, 절대로 틀러서는 안 된다.] (삶과 세계에 대한 냉철한 성찰 없이 다시 기계적으로 일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 함)

자양, 느릿느릿 정성을 다해 상자들을 쌓는다. 무대 조명, 서서히 자양에게 압축되면서 **압전(연극에서, 무대를 어둡게 한 상태에서 무대 장치나 장면을 바꾼다.)**한다.

— 막

▣ 핵심 정리

- 갈래 : 단막극
- 성격 : 상징적, 풍자적
- 배경
- ① 시간 - 현대
- ② 공간 - 창고
- 제재 : 상자, 북어 대가리
- 주제 : 산업 사회에서 방향성을 상실한 채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과 인간 소외
- 특징
- ① 소재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함.
- ② 대립되는 가치관을 지닌 인물들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냄.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자양’과 ‘기임’이라는 두 창고지기를 통해 현대 산업 사회의 분업화되고 획일화된 삶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산업 사회라는 커다란 구조 속에서 부속품처럼 존재하는 현대인들은 세상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자각 없이 ‘창고’와도 같은 삶의 공간에서 늘상 같은 일을 반복할 뿐이다. 이 작품은 창고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불안을 느끼는 자양을 통해, 만약 창고 밖의 세상이 부정적인 것이라면 창고 안에서의 성실과 정직함은 그러한 그릇된 세상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이미 그 가치를 상실했으나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신념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자양의 모습을 말라비틀어져 머리만 남은 ‘북어 대가리’의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1. <답> ②
이 작품에서는 창고, 상자, 북어 대가리 등의 상징적인 배경과 소재를 통해 주제를 우의적으로 표현하였다.

2. <답> ⑤
잘못 보낸 것을 상자 번호로 찾는 것은 자신의 일에서 소외된 것이 아니다.

3. <답> ④
㉠에서 ‘자양’은 자신의 신념과 태도가 헛된 것일 수 있다는 회의를 느끼게 된다. 이는 ㉡에서 ‘운전수’의 모순된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의 성실함은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의 말을 듣게 되면서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답> ③
‘자양’의 마지막 대사에서 ‘자양’이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맞지만 이내 인식을 전환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한다. 따라서 배우가 망연자실해 하는 연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

5. <답> ⑤
㉣에서는 자신과 북어 대가리를 동일시하면서 방향성을 잃고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5번 작품에서도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이라며 방향성을 상실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6~9] 문학 : 현대 소설

[지문 분석]

창섭은 바람도 쌀쌀할 뿐 아니라 오후 차로 돌아가야 할 길이라 걸음을 **재우쳤다.(빨리 몰아치거나 재촉했다.)**

길은 그전보다 넓어도 쪼고 바닥도 평탄하였다. 비나 오면 진흙에 헤어날 수 없었는데 **복판(일정한 공간이나 사물의 한 가운데)**으로는 자갈이 깔리고 어떤 목은 좁아서 **소바리(등에 짐을 실은 소. 또는 그 짐)**가 논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십상이었는데 바위를 갈라내어서까지 **일매지게(모두 다 고르고 가지런하게)** 넓은 길로 닦아졌다. 창섭은, ‘이럴 줄 알았다면 정거장에서 자전거라도 빌려 타고 올걸.’ 하였다.

눈에 익은 정자나무 선 눈이며 돌각 담을 두른 밭들도 나타났다. 자기 집 논과 밭들이었다. 논둑에 선 정자나무는 그전부터 있던 것이나 밭에 돌각 담들은 아버지께서 손수 쌓으신 것이다.

창섭의 아버지는 **근검(勤儉)(부지런하고 검소함)**으로 근방에 소문난 영감이다. 그러나 자기 대에 와서는 밭 하루같이도 늘리지는 못한 것으로도 소문난 영감이다. 곡식값보다는 다른 **물가들이 높아졌을 뿐(이유)** 아니라 전대(前代)에는 모르던 **아들의 유학(이유)**이란 것이 큰 부담인데다가,

“할아버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부자 소린 못 들어도 굶는단 소린 안 듣고 살도록 물려주시구 가셨다. 드럭드럭 탐내 모아선 뭘 허니, 할아버니께서 쇠똥을 맨손으로 움켜다 넣시던 눈, 아버지께서 **명덜(힘한 바위나 돌이 빠죽빠죽 나온 곳)**을 손수 이룩하신 밭을 더 건 논으로 더 기름진 밭이 되도록, 닭달만 해 가기에 내겐 벽찬 일일 게다.”

하고 **절용(節用)해(아껴 써)**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는 품을 몇씩 들여서까지 비뚤은 **논배미(논두렁으로 둘러싸인 논)**

하나하나의 구역)를 바로잡기, 밭에 돌을 추려 바람맞이로 담을 두르기, 개울엔 독막이하기, 그러다가 아들이, 의사가 된 후로는, 아들 학비로 쓰던 뭇까지 들여서 동네 길들은 물론, 읍 길과 정거장 길까지 닦아 놓았다.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심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농토를 갖지 못한 농민이 일정한 소작료를 지급하며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일)을 주지 않았고, 소를 두 필이나 매고 일꾼을 세 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자농(自農)(자기 땅에 자기가 직접 짓는 농사)으로 버티어 왔다.

(중략)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다리 고치는 사람들 점심을 짓노라고 역시 여러 명의 동네 여편네들과 허둥거리고 계시었다.

“웬일인데 어제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어머니의 관심 = 손자)

“오늘루 가야겠어서 아무도 안 데리구 왔습니다.”

“오늘루 갈 걸 뭘 해 오누?”

“인전 어머니서건 서울로 모셔 갈 채빌 허러 왔다우.”

“서울루! 제발 아이들허구 한데서 살아 봤음 원이 없겠다.”(어머니의 관심 = 손자 / 손자들에 대한 사랑)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조상의 신주를 모셔 놓은 집)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것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창섭과 아버지 사이에 외적 갈등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함)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채견채견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실용적 관점에서 자세히 이야기함)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 한집에 모으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 가나 입원실이 부족하여 오는 환자의 삼분지 일밖에 수용 못 하는 것, 지금 시국(현재 당면한 국내 및 국제 정세나 대세)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삼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삼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한 것, 각 층에 수도, 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열한(값이 싼) 것, 염하기는 하나 삼만 이천 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일만 오천 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삼만 이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대야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 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뽐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두 좀 생각해 봐야 대답허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침 놀 재(처음 놓을 때)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여남은(열이 조금 넘는 수) 이서 거

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을 허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돌다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창섭의 실리주의적 태도)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돌만 하다든? 넌 그 다리(돌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났던 생각 안 나니? 시체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사람뿐 아니라 자연도 인정을 갖고 대해야 함) 내 할아버니 산소에 상돌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내가 천잘(천자문을) 끼구 그 다리루 글 읽으러 댕겼다.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땅을 팔지 않겠다는 생각을 단적으로 드러냄)”

“네?”

“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땅을 경제적 가치가 아닌 정신적 가치로 여기는 아버지의 태도)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루 본 밭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루 작만(作滿)(‘장만’을 한자를 빌려서 쓴 말)허신 논들이야. 돈 있다구 어디 가 느르지노(철원군 철원읍 사요리 일대의 기름진 논을 이르는 말) 같은 게 있구, 독시장밭(철원에 소재한 선비소(능) 위에 있는 밭 이름) 같은 걸 사? 느르지노 독에 선 느티나무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구, 저 사랑 마당에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銅像)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군 현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구 팔구 허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딴으며 나라가 어딴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땅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 돈 있다구 땅이 뭇지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변리(邊利)(남에게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돈)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都是)(도무지) 생각지 않구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루밖엔 뵈지 않드라.”

(중략)

“땅을 밟구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들 여기지? 땅처럼 응과(應果)가 분명헌 게 무어냐?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두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겐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헌 보답을 주시는 거다.(땅이 응과가 분명하다는 것임)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부정적, 비판적 대상), 땅은 작인들한테나 맡겨 버리구, 떡 도회지에 가 얹어 소출(所出)(논밭에서 나는 곡식. 또는 그 곡식의 양)은 팔어다 모다 도회지에 낭비해 버리구, 땅 가꾸는 텐 단돈 일 원을 벌벌 떨구, 땅으루 살며 땅에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면 후레자식(배운 데 없이 제풀로 막되게 자라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썸이야. 땅이 말을 할 줄 알아 봐라? 배가 고프단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 해마다 걷어만 가구 땅은 자갈밭이 되니 아냐? 독이 떠나가니 아냐? 거름 한 번을 제대로 넣나? 정 급허게 돼 작인이 우는소리나 해야 요즘 너희 신 의(新醫)(한의(韓醫: 한의술과 한약로 병을 고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를 ‘구의(舊醫)’라 하는 것에 빗대어 ‘양의(洋醫: 서양 의술과 양약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를 이르는 말)들 주사침 놓듯, 애꾸진 금비(金肥)(돈을 주고 사서 쓰는 거름. ‘화학비료’로 순화)만 갖다 털어 넣지. 그렇게 땅을 흘델 허군 인제 죽어서 땅이 무서서 어디루들 갈 텐구!”

[창섭은 입이 열어 버리었다. 손만 부비었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

나 자기 **본위(本位)**(판단이나 행동에서 중심이 되는 기준)였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창섭은 자신의 생각이 이기적이었음을 깨달음**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였다. 아버지는 상을 물리 고도 말을 계속하였다.

“너루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하려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닐 줄두 안다. 그러나 욕심을 부린 못쓰는 거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仁術)**(사람을 살리는 어진 기술)이라지 않니? 매살 순탄하게 진실하게 해라.”

“.....”

“네가 **가업(농사를 짓는 것)**을 이어 나가지 않는다고 탄핵하지 않겠다. 넌 너루서 발전할 길을 열었구, 그게 또 **모리지배(모리배.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의 악업이 아니라 **활인(活人)**(사람의 목숨을 구하여 살림)하는 인술이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하니? 다만 삼사 대 집안에서 공들여 이룩해 놓 **전장(田莊)**(개인이 소유하는 논밭)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저속 애석한 심사가 없달 순 없구.....”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두 이제두 말했지만 너두 문서 쪽만 쥐구 서울 앉아 지주 노릇만 하게?**(아버지가 땅을 경제적인 가치로만 여기는 세태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음) 그때위 지주허구 작인 틈에서 땅들만 얼마 골른지 아니? 안 된다. 팔 테다. 나 죽을 **임시(臨時)**(정해진 시간에 이름. 또는 그 무렵)엔 다 팔 테다. 돈에 팔 줄 아니? **사람한테 팔 테다.**(땅의 본래적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 건너 용문이는 우리 느르지는 같은 건 한 해만 부쳐 보구 죽어두 농군으로 태났은 걸 한하지 않겠다구 했다. 독시장밭을 내놓는다구 해 보라, 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왔드라 두 집을 팔아 살려구 덤빌 게다. 그런 사람들이 땅 넘자 안 되구 누가 돼야 옳으냐? 그러니 아주 말이 난 김에 내 유언이다.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목 내겠다? 몇몇 해구 그 땅 소출을 팔아 연년이 갚아 나가게 할 테니 너두 땅값을랑 그렇게 받아 갈 줄 미리 알구 있거라. 그러구 네 모가 먼저 가면 내가 물을 거구,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네 모만은 내가 서울로 그때 달려가렴. **난 썩말서 이렇게 야인(野人)**(시골에 사는 사람)으로나 죄 없는 밥을 **먹다 야인인 채 문힐 걸 흡족히 여긴다.**(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

“.....”

“자식의 젊은 욕망을 들어 못 주는 게 애비 된 맘으루두 섭섭하다.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두 그만 **신념(땅에 대한 애착)**쯤 지켜 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어다구.”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고치는 데로 나갔다. 옆에 앉았던 어머니는 두 눈에 눈물을 주루루 흘리었다.

“너이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야노,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건 오늘 제가 더 잘 알었습니다. 우리 아버진 훌륭한 인물이십니다.**(창섭이 땅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을 이해하고 인정)”

그러나 창섭도 코허리가 찌르르하였다.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이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 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러 가 버리었다.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섰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었다.

아버지는 종일 개울에서 허덕였으나 저녁에 잠도 달게 오지 않았다.(아들의 부탁을 거절한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 젊어서 서당에서 읽던 백낙천(白樂天)의 시가 다 생각이 났다. 늙은 제비 한 쌍을 두고 지은 노래였다. 제 배 속이 곱은 것은 참아가며 입에 얻어 물은 것은 새끼들부터 먹여 길렀으나, 새끼들은 자라서 나래에 힘을 얻자 어디로인지 저희 종을 대로 다 날아가 버리어, 야위고 늙은 어버이 제비 한 쌍만 가을바람 **소슬한(으스스하고 쓸쓸한)** 추녀 끝에 쭈그리고 앉았는 광경을 묘사하였고, 나중에는 그 늙은 어버이 제비들을 가리켜, 새끼들만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새끼 적에 역시 그러했음도 깨달으라는 **풍자의 시**(자식들이 커서 부모와 다른 생각을 하고 부모를 떠나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였다.

‘흥!’

노인은 어두운 천장을 향해 쓴웃음을 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누구보다도 먼저 어제 고쳐 놓은 돌다리를 보러 나왔다.

흙탕이라고는 어느 돌 틈에도 남아 있지 않았다. 첫 **꺠(한쪽으로 트여 나가는 방향이나 길)**으로도, 가운데 **꺠**으로도, 끝에 **꺠**으로도 맑기만 한 소담한 물살이 우쭐우쭐 춤추며 빠져 내려갔다. 가운데 장으로 가 광 굴러 보았다. 발바닥만 아플 뿐 **끄떡**이 있을 리 없다. 노인은 쭈루루 집으로 들어와 소금 접시와 낮 수건을 가지고 나왔다. 제일 낮은 받침돌에 내려앉아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였다. 나중에는 다시 이가 저린 물을 한입 물어 마시며 일어섰다. 속의 모든 게 씻기는 듯 시원하였다. 그리고 수염의 물을 닦으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정을 넘는 법은 없다.(분수를 넘는 법이 없는 자연의 이치) 물이 분수 없이 늘어 떠내려갔던 게 아니라 자갈이 밀려 내려와 물구멍이 좁아졌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받침돌의 밑이 물살에 궁굴리어 쓰러졌던 그런 까닭일 게다. 미리 바닥을 치고 미리 받침돌만 제대로 보살피 준다면 **만년(오랜 세월)**을 간들 무너질 리 없을 게다. 그저 늘 보살피야 허는 거다. 사람이란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진 하루라도 **천리(天理)**(천지자연의 이치. 또는 하늘의 바른 도리)에 방심을 해선 안 되는 거다.....’

-이태준, ‘돌다리’

■ 핵심 정리

- 갈래 : 단편 소설
- 성격 : 사실적, 교훈적, 비판적
- 배경
 - ① 시간 - 일제 말기 초겨울
 - ② 공간 - 농촌 마을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주제 :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
- 특징
 - ① 인물 간의 대화와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로 주제를 형상화함.
 - ② 작가가 보존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가치를 ‘돌다리’라는 소재를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냄.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일제 말기인 1943년 “국민문학”에 발표된 작품으로, 물 질을 중시하는 근대 사회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각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병원 확장을 위해 땅을 팔자고 말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땅이 천지만물의 근거라는 논리를 내세워 반대한다. 작가는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토지의 본래적 가치보다 금전적인 가치만을 중시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관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 생각은 ‘돌다리’라는 소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땅을 팔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주장은 변화를 거부하는 고집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에게 ‘돌다리’란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 가족과 선조들의 인연이 살아 숨쉬는 자연물이자 일제 강점하의 어려운 현실에서 꿈을 잃지 않고 민족성을 지키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6. <답> ④

④ 작가는 땅의 본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아버지를 통해 실용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당시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나머지는 적절한 설명이다.

7. <답> ①

- ① ‘아버지’는 자아로서의 완고한 성격을 다른 세계인 창섭에게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어머니’는 세계(주변 인물)와 뚜렷한 갈등을 보이지 않는다.
- ③ 자아로서의 ‘창섭’은 다른 세계(아버지)로 인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한다.
- ④ ‘창섭’은 세계(아버지)와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다.
- ⑤ ‘어머니’가 서울에서 살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지만 내적 갈등을 보인다고 할 수는 없다.

8. <답> ⑤

⑤ 땅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는 땅의 본질에 대한 믿음과 신념에 대한 것이지 지주계급의 탐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9. <답> ①

- ①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네 모만은 내가 서울로 그때 다려가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넌 너루서 발전할 길을 열었구, 그게 또 모리지배의 악업이 아니라 활인(活人)허는 인술이구나!’와 ‘자식의 젊은 욕망을 들어 못주는 게 애비 된 맘으루두 섭섭허다.’를 보면 ‘아버지’가 ‘창섭’의 병원 확장 계획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는 창섭의 계획을 이해하지만 자신의 신념에 따라 땅을 팔지 않는 것이다.
- ③ ‘아버지’는 지주들이 땅을 홀대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지 소작인들에게 횡포를 부린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
- ④ ‘네가 가업을 이어 나가지 않는다군 탄허지 않겠다. 넌 너루서 발전할 길을 열었구, 그게 또 모리지배의 악업이 아니라 활인(活人)허는 인술이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허니?’를 보면 ‘아버지’는 아들이 의사가 된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아버지’는 미래의 땅값에 대한 기대를 보이지 않는다.

[10~16] 독서 : 주제 통합

[지문 분석]

(가) 1895년 영화는 등장하자마자 그야말로 단숨에 서구 사회의 대중을 사로잡는다. 그 이유(영화가 등장하자마자 서구 사회의 대중을 사로잡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지된 순간을 담아내는(사진의 특성) 사진과 달리(대조) 영화는 대상의 움직임을 실감나게 보여 주(영화의 특성)었기 때문이다. 영화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의 움직임과 이 움직임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재현하는 데 성공한 ‘움직이는 이미지’(영화의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였다. 그렇다면 영화의 탄생과 확산을 가능케 하는 요인(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소개함)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적어도 다음의 기술적,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1문단 : 사진과 대비되는 영화의 특성

먼저(순서를 나타내는 표지) 영화 매체의 기술적인 선조로서 카메라 옵스큐라(영화의 탄생과 확산을 가능하게 한 기술적 요인①)를 들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카메라 옵스큐라는 선 원근법이 보편화되었던 15세기 르네상스 시대부터 대상을 회화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활용하던 기계 장치(카메라 옵스큐라의 특징)이다. 그것의 목적은 대상의 이미지를 광학 원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수신하는 데(카메라 옵스큐라의 목적) 있었다. 카메라 옵스큐라가 영화적으로 중요한 것은 렌즈와 조리개 등 광학 기계의 발전 및 빛의 화학적 반응에 대한 지식의 발전과 결합하여 19세기 중반, 사진과 카메라가 발명될 수 있는 기술적, 이념적 선조의 역할을 했다(카메라 옵스큐라의 역할)는 점이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사진을 통해 인류는 처음으로 대상의 시각적 이미지를 광학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저장된 이미지를 대량으로 ‘복제’하고 용이하게 원거리로 ‘전송(傳送)’할 수 있게 된 것이다.(카메라 옵스큐라가 미친 영향)

2문단 : 매체 기술적 요인 ① 카메라 옵스큐라

두 번째 매체 기술적 요인으로는 마술적 환등 장치(영화의 탄생과 확산을 가능하게 한 기술적 요인②)를 기억해야 한다. 오늘날의 그림자극에 희미한 흔적이 남아있는 마술적 환등 장치는 본래 다수의 관객을 대상으로 어둠 속에서 사물의 이미지에 강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장치(마술적 환등 장치의 특징)였다. 마술적 환등 장치의 목적은 시각적 효과를 통해 관객의 시선과 의식을 사로잡는 데(마술적 환등 장치의 목적) 있었다. 영화 탄생과 관련하여 마술적 환등 장치의 중요성은 빛의 환등적 효과를 활용한 이미지의 ‘송신’ 장치라는 점(마술적 환등 장치가 중요한 이유)에 있다. 한마디로 그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대중에게 영화가 상영되는 수용 상황의 기술적·문화사적 출발점이었던 것이다.

3문단 : 매체 기술적 요인 ② 마술적 환등 장치

이와 같은 영화 탄생의 요인들 외에 반드시 상기해야 할 사회적 내지 경제적 요인들이 있다. 그것은 대도시와 대중, 그리고 산업적 의미의 극장(영화의 탄생과 확산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다. 19세기 중반 이후 자본주의 발달은 급속도로 대도시화를 촉진하며, 이 도시의 거리를 대중, 즉 유동적이며 익명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채우게 된다.(자본주의 발달의 영향) 이들은 노동 과정이 기계적으로 재조직되고, 각종 문명의 이기들이 생활 세계 속으로 들어오면서 일정한 여가 시간을 갖게 되어, 불거리를 찾아 나선다. 이를 위해 파노라마와 디오라마(diorama), 테마 파크의 선조 격인 대규모 박람회장과 대중적 쇼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

리들이 등장하는데, 새로이 등장한 영화가 바로 이러한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4문단 : 사회, 경제적 요인

이렇게 탄생한 영화는 등장하자마자 폭발적인 수요에 부응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산업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노동 분업적이며 자본 집중적인 제작 시스템을 갖추게 됨으로써 **제작비를 회수하기 위한 수용 구조, 극장에서의 집단적인 수용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영화 산업 발달로 인한 영향) 요컨대 영화는 이러한 19세기의 역사적·사회 문화적 계기들이 숨가쁘게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했다. 따라서 이들의 의미와 상호 연관성을 재음미해야만 그 매체적 성공과 중요성을 온전히 그려 낼 수 있을 것이다.

5문단 : 영화 산업 발달의 영향

- 주제: 영화 발전의 기술, 사회, 경제적 요인

[지문 확인]

1문단 : 사진과 대비되는 영화의 특성

- 사진 : 정지된 순간을 담아냄 ↔ 영화 : 대상의 움직임을 실감나게 보여 줌.
- 영화 :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의 움직임과 이 움직임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재현하는 데 성공 = '움직이는 이미지'

2문단 : 매체 기술적 요인 ① 카메라 옵스큐라

- 카메라 옵스큐라
- ① 개념 : 선 원근법이 보편화되었던 15세기 르네상스 시대부터 대상을 회화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활용하던 기계 장치
- ② 목적 : 대상의 이미지를 광학 원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수신
- ③ 역할 : 렌즈와 조리개 등 광학 기계의 발전 및 빛의 화학적 반응에 대한 지식의 발전과 결합하여 19세기 중반, 사진과 카메라가 발명될 수 있는 기술적, 이념적 선조의 역할
- ④ 영향 : 인류가 처음으로 대상의 시각적 이미지를 광학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됨 / 저장된 이미지를 대량으로 '복제'하고 용이하게 원거리로 '전송(傳送)'할 수 있게 됨

3문단 : 매체 기술적 요인 ② 마술적 환등 장치

- 마술적 환등 장치
- ① 특징 : 다수의 관객을 대상으로 어둠 속에서 사물의 이미지에 강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장치
- ② 목적 : 시각적 효과를 통해 관객의 시선과 의식을 사로잡는 것
- ③ 의의 : 영화 탄생과 관련하여 마술적 환등 장치의 중요성은 빛의 환영적 효과를 활용한 이미지의 '송신' 장치라는 점

4문단 : 사회, 경제적 요인

- 사회, 경제적 요인 : 대도시와 대중, 그리고 산업적 의미의 극장
- 19세기 중반 이후 자본주의 발달 → 급속도로 대도시화 → 도시에 대중이 가득참 → 여가 시간을 갖게 됨 → 볼거리를 찾아 나섬 → 파노라마와 디오라마(diorama), 테마 파크의 선조격인 대규모 박람회장과 대중적 쇼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들(영화)

5문단 : 영화 산업 발달의 영향

- 영향 : 제작비를 회수하기 위한 수용 구조, 극장에서의 집단적인 수용 방식을 채택함

[지문 분석]

(나) 영화에서 필름 영사기를 사용할 경우, [영화의 각 프레임은 같은 자리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진 롤 필름의 이동에 의해 보여지게 된다.](영화에서 필름 영사기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 따라서 필름의 이동을 감추기 위해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광원을 차단해 검은 화면을 끼워 넣고, 필름의 이동 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이 되게 하는데,](필름의 이동을 감추기 위한 방법) 이는 관객들의 눈에 이전에 보여졌던 프레임의 잔상이 남아 있는 동안 검은 화면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극장에서 보는 영화의 구현 원리는 **시각 잔상 효과(영화 구현 원리)**에 기반하고 있는데, [앞 프레임의 잔상이 다음 프레임이 화면에 나타나기까지 두 프레임 사이의 간격을 메워 주면 관객들은 실은 정지된 화면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영상으로 인지하는 것](시각 잔상 효과의 구체적 설명)이다.

1문단 : 영화의 기본 구현 원리인 시각 잔상 효과

시각 잔상 효과를 설명하고 있는 주요한 이론으로는 **점멸 융합 한계 이론(시각 잔상 효과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을 들 수 있다. **점멸이란 빛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면서 시각에 주는 자극인데,('점멸'의 개념)** 이 점멸의 간격이 점차 좁아져 어느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인간의 시각은 이것을 깜박임이 아닌 지속성이 있는 자극으로 인지한다. **그 한계를 점멸 융합 한계(개념 정의)**라고 하며, 점멸 융합 한계는 조명이나 TV, 모니터 등 시각 등에 점멸 자극을 주는 모든 장치들을 연구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점멸하는 주기를 '점멸 융합 주파수'(개념 정의)**라고 하는데, 이 개념은 시각적 자극이 단속적 점멸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주파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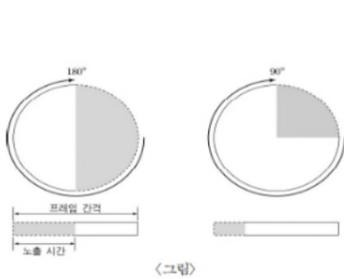
2문단 : 시각 잔상 효과를 설명하는 점멸 융합 한계 이론

이러한 점멸 융합 한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프레임 레이트(frame rate)'**(점멸 융합 한계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프레임 레이트는 초당 전송하는 프레임의 개수를 의미하는데(개념 정의)**, 점멸 융합은 **정지 이미지의 연속이라는 기본 구조를 가지는 동영상을 재생하는 모든 장치에서 중요한 개념(점멸 융합 개념의 중요성)**이다. 텔레비전 신호와 같은 동영상 신호를 전송할 때 인간의 시각 특성을 이용하여 1초에 적당한 개수의 화면(프레임)을 전송하는데, **텔레비전의 경우 신호 전달 방식에 따라 프레임 레이트가 다르다.(텔레비전의 특징)** 프레임 레이트가 NTSC 방식에서는 초당 30프레임이고 PAL 방식에

서는 초당 25프레임이다. 일반적으로 영화에서 프레임 레이트의 점멸 융합 한계는 초당 16프레임으로 알려져 있다.(영화의 특징) 하지만 점멸 현상은 프레임 레이트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며, 빛의 강도나 각 프레임 간 피사체의 위상차 등(점멸 융합 한계를 높이는 방법)에 의해서도 점멸 융합 한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현대의 일반적인 영화는 초당 24프레임을 보여 주는 프레임 레이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극장에서 상영할 때 영사기에서 셔터를 통해 한 프레임을 두 번씩 보여 주어 결과적으로 초당 48프레임이 보여지도록 하고 있다.

3문단 : '프레임 레이트'를 통해 알아본 텔레비전과 영화의 차이

이와 같은 동영상의 특성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동영상 효과가 영화의 '모션 블러(Motion Blur)'(영화의 동영상 효과)이다. 모션 블러는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상대적으로 느린 셔터 속도(노광 시간)를 통해 촬영했을 때 물체의 이동 방향으로 흐려지는 현상('모션 블러' 현상의 개념)을 말한다. 모션 블러는 셔터 스피드의 조작에 의해 달라지는데 동영상에서의 셔터 스피드 사용에 관한 규칙은 필름 영화의 카메라로 부터 기인하였다. 필름 영화 카메라에서는 사진용 카메라의 셔터와는 다르게 회전하는 원반 형태의 로터리 디스크 셔터(rotary disc shutter)를 사용한다.



4문단 : '모션 블러' 현상의 특징 <그림>은 영화 카메라의 로터리 디스크 셔터의 개각도의 원리와 그에 따른 모션 블러의 생성 원리를 보여 주고 있다.(<그림>의 내용 설명)

[필름 영화 카메라에는 렌즈와 필름 사이에 회전하는 원반(disc) 형태의 셔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원반을 특정한 각도만큼 절개하여 회전시키면 <그림>의 디스크에서 어둡게 표시된 절개된 면이 필름 위에 위치할 때 필름은 렌즈로부터 동영상을 받아 기록하게 되며 절개되지 않은 면이 필름 위에 위치할 때 필름은 다음 프레임으로 진행하게 된다.](필름 영화 카메라의 특징 설명)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만약 개각도를 180도가 아니라 90도가 되게 하면, 180도일 때에 비해 90도일 때 필름의 노출 시간은 1/2이 되는 것이다.](필름 영화 카메라의 촬영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필름 영화 카메라의 셔터 구조가 이러한 로터리 디스크의 각도를 조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름 영화 카메라에서는 셔터 속도 대신 개각도의 개념을 사용해 왔다.

5문단 : 필름 영화 카메라의 특징

이러한 구조에서 로터리 디스크 셔터가 없이 [필름의 프레임 한 장이 지나갈 동안 완전하게 노출을 받는다]면 24프레임 기준으로 셔터 속도는 1/24초가 된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는 화면상의 움직이는 물체가 1/24초 동안 필름에 기록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필름의 노출 시간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라면 한 장의 프레임 안에서 피사체의 움직임으로 인한 이동이 촬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로터리 디스크 셔터가 없을 경우의 특징) 하지만 마치 사진을 찍을 때 피사체가 움직여버리면 그로 인해 사진에서 피사체가 뿌옇게 나타나는 것처럼.(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 설명) 피사체가 움직여 발생한 위상 차로 인한 모션 블러가 발생하고,(모션 블러가 발생하는 이유) 그만큼 영상은 선명하지 않게 된다.(모션 블러의 영향) 영화 카메라에 로터리 디스크 셔터를 달고 개각도를 180도로 설정하게 되면 필름 한 프레임이 지나갈

동안 로터리 디스크 셔터도 한 바퀴 회전을 해서 프레임이 노출을 받는 시간은 반으로 줄어들고 환산 셔터 속도는 1/48초가 된다. 셔터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면 모션 블러는 짧아진다.

6문단 : 모션 블러 현상을 줄이는 로터리 디스크 셔터 현대의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오면서 필름 앞에 있던 기계적인 로터리 디스크 셔터는 전자적으로 작동하는 셔터 스피드의 개념으로 대체(디지털 카메라로 넘어오면서의 변화)되었다. 이러한 전자식 셔터는 기계적인 로터리 디스크 셔터에서는 불가능했던 1/3초와 같은 프레임 레이트 이하의 셔터 스피드도 사용 가능(전자식 셔터의 특징)한데 이러한 사실은 디지털 카메라에서 셔터 스피드는 단지 노출의 조절과 모션 블러의 길이 조절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작자들은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필름 영화 카메라에서 구축된 로터리 디스크 셔터의 규칙을 사용하고 있어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24프레임 기준 동영상에서 가장 적절한 모션 블러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문단 :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여전히 사용되는 로터리 디스크 셔터

• 주제: 영화의 구현 원리

[지문 확인]

1문단: 영화의 기본 구현 원리인 시각 잔상 효과

- 필름의 이동을 감추기 위한 방법 :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광원을 차단해 검은 화면을 끼워 넣고, 필름의 이동 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이 되게 함
- 시각 잔상 효과 : 앞 프레임의 잔상이 다음 프레임이 화면에 나타나기까지 두 프레임 사이의 간격을 메워 주면 관객들은 실은 정지된 화면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영상으로 인지하는 것

2문단 : 시각 잔상 효과를 설명하는 점멸 융합 한계 이론

- 점멸 : 빛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면서 시각에 주는 자극
- 점멸 융합 한계 : 점멸의 간격이 점차 좁아져 인간의 시각이 이것을 깜박임이 아닌 지속성이 있는 자극으로 인지하게 될 때의 한계점

3문단 : '프레임 레이트'를 통해 알아본 텔레비전과 영화의 차이

- 프레임 레이트 : 초당 전송하는 프레임의 개수
- 텔레비전 : 신호 전달 방식에 따라 프레임 레이트가 다름
→ 프레임 레이트가 NTSC 방식에서는 초당 30프레임이고 PAL 방식에서는 초당 25프레임
- 영화 : 초당 16프레임 → 빛의 강도나 각 프레임 간 피사체의 위상차 등을 통해 초당 48프레임까지 올림

4문단 : '모션 블러' 현상의 특징

- '모션 블러' 현상의 개념 :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상대적으로 느린 셔터 속도(노광 시간)를 통해 촬영했을 때 물체의 이동 방향으로 흐려지는 현상

5문단 : 필름 영화 카메라의 특징

- 렌즈와 필름 사이에 회전하는 원반(disc) 형태의 셔터가 설치되어 있음 → 원반을 원하는 각도만큼 절개하여 회전 → 절개된 면이 필름 위에 위치할 때 필름은 렌즈로부터 동영상을 받아 기록 + 절개되지 않은 면이 필름 위에 위치할 때 필름은 다음 프레임으로 진행하게 됨

6문단 : 모션 블러 현상을 줄이는 로터리 디스크 셔터

- 피사체가 움직이면 위상 차로 인해 모션 블러가 발생함 → 영상은 선명하지 않음 → 로터리 디스크 셔터를 통해 모션 블러를 줄임

7문단 :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여전히 사용되는 로터리 디스크 셔터

- 전자식 셔터 : 1/3초와 같은 프레임 레이트 이하의 셔터 스피드도 사용 가능
-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필름 영화 카메라에서 구축된 로터리 디스크 셔터의 규칙을 사용 → 24프레임 기준 동영상에서 가장 적절한 모션 블러를 만듦

10. <답> ⑤

(나)의 6문단에서 전자식 셔터는 ‘기계적인 로터리 디스크 셔터에서는 불가능했던 1/3초와 같은 프레임 레이트 이하의 셔터 스피드도 사용 가능’하다고 했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11. <답> ⑤

점멸 융합 한계는 시각적 자극을 주는 점멸의 간격이 점차 좁아져 어느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인간의 시각은 이것을 깜박임이 아닌 지속성이 있는 자극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이것은 인간의 시각이 갖는 특성이다. 따라서 개각도를 조절한 것은 영상 촬영과 관련된 것일 뿐, 그로 인해서 영상의 점멸 융합 한계가 낮추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A의 경우 B에 비해 프레임의 노출 시간이 길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는 피사체라 하더라도 필름의 노출 시간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라면 한 장의 프레임 안에서도 피사체의 움직임으로 인한 이동이 촬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② B의 경우 A에 비해 프레임 노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만큼 모션 블러의 길이가 짧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③ B의 경우 A에 비해 모션 블러의 길이가 짧게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모션 블러가 발생하면 그만큼 영상은 선명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B는 A에 비해 프레임에서 선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④ 개각도가 180도일 때 셔터 스피드가 1/48초로 환산되므로, 개각도가 45도로 1/4이 되면 그에 따라 셔터 스피드도 4배 빨라지게 될 것이라 할 수 있다.

12. <답> ④

5문단에서 ‘영화 카메라에 로터리 디스크 셔터를 달고 개각도를 180도로 설정하게 되면 필름 한 프레임이 지나갈 동안 로터리 디스크 셔터도 한 바퀴 회전을 해서 프레임이 노출을 받는 시간은 반으로 줄어들고 환산 셔터 속도는 1/48초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셔터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면 피사체가 이동한다 하더라도 모션 블러가 나타날 가능성이 줄게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피사체가 되는 물체의 움직임이 있을 때, 피사체의 속도와 셔터 스피드에 따라 프레임에 나타나는 위상 차는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 ② 로터리 디스크 셔터의 속도는 일정하게 정해지면 일정하게 늘거나 줄지 않을 것이다.
- ③ 필름에 영상을 기록하는 촬영 속도는 로터리 디스크 셔터의 속도와 무관하다.
- ⑤ 로터리 디스크 셔터가 회전하는 동안 로터리 디스크의 개각도에 따라, 프레임이 노출되는 시간이 조절된다.

13. <답> ④

6문단에서 ‘전자식 셔터는 기계적인 로터리 디스크 셔터에서는 불가능했던 1/3초와 같은 프레임 레이트 이하의 셔터 스피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전자식 셔터(㉠)가 기계적인 로터리 디스크 셔터(㉡)에 비해 다양한 프레임 레이트를 구현한다고 할 수 있다.

- ① 기계적인 로터리 디스크 셔터는 필름 촬영 시 활용되는 것으로,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② 사람들이 연속된 프레임의 동영상으로 인지하게 하는 이유로 시각적 잔상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 ③ 한 프레임 안에서 피사체 간 위상 차는 피사체의 속도와 셔터 스피드 간의 관계에 의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다르다.
- ⑤ 모션 블러는 셔터 스피드와 피사체의 속도 등에 관련된 것으로 동일한 조건이라면 모션 블러의 길이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다.

14. <답> ④

(가)에서는 영화를 과학 기술과 사회적 변화 및 경제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으로 볼 때 이 글의 관점과 가장 가까운 것은 ④이다.

- ①은 영화 내용의 창의성, ②는 영화의 교육적 가치, ③은 영화의 예술적 커뮤니케이션 측면, ⑤는 영화의 사회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15. <답> ④

이 글에서는 교육의 증대나 이에 따른 고상하고 격조 높은 문화의 욕구 등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영화의 탄생과 관련한 과학 기술적 측면에서의 발전과 더불어 산업 사회로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람들의 욕구의 변화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④는 이 글을 통해 판단할 수 없다.

- ① 산업화로 인한 도시 형성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본문에서는 영화 탄생의 사회적·경제적 요인을 설명하는 네 번째 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다.
- ② 네 번째 문단의 대도시 탄생에 대한 언급과 관련 있는 진술이다.
- ③ 영화 발달에 있어 기술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으므로 둘째, 셋

제 문단과 관련 깊은 진술이다.

⑤ 다섯 번째 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 있다.

16. <답> ③

2문단에서 '점멸의 간격이 점차 좁아져 어느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인간의 시각은 이것을 깜박임이 아닌 지속성이 있는 자극으로 인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점멸 간격이 일정 간격 이상이 되면 지속성 있는 자극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깜박임, 즉 단속적인 점멸로 느끼게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점멸 융합 한계 이론으로 시각 잔상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데, '점멸의 간격이 점차 좁아져 어느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인간의 시각은 이것을 깜박임이 아닌 지속성이 있는 자극으로 인지한다'고 하였고 이 한계를 점멸 융합 한계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에서 '텔레비전의 경우 신호 전달 방식에 따라 프레임 레이트가 다르다'고 하면서 프레임 레이트가 NTSC 방식에서는 초당 30프레임이고 PAL 방식에서는 초당 25프레임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일반적으로 영화에서 프레임 레이트의 점멸 융합 한계는 초당 16프레임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점멸 현상은 프레임 레이트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며, 빛의 강도나 각 프레임 간 피사체의 위상 차 등에 의해서도 점멸 융합 한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7~20] 문학 : 고전 시가 + 현대 시

[지문 분석] (가)

나무하러 가자(청유형 어미) / 이히후후 에헤(고된 노동으로 인한 한숨을 청각적으로 표현함)
남 날 적에 나도 나고 / 나 날 적에 남도 나고(사람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의미(대구법))
 세상 인간 같지 않아
 이놈 팔자 무슨 일로 / 지게 목발(화자의 신분) 못 면하고
어떤 사람(신분이 높은 사람) 팔자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사모에 풍경 달고
 만석록을 누리건만](부유하고 편안한 삶)
이놈 팔자(화자) 어이하어
 항상 지게는 못 면하고 / 남의 집도 못 면하고
죽자 하니 청춘이요 / 사자 하니 고생이라(대구법)
 세상사 살아진들
 치마 찢른 계집 있나 / 다박머리 자식 있나
 광 넓은 눈이 있나 / 사래 긴 밭이 있나
 버선짝도 짝이 있고 / 토시짝도 짝이 있고
 털떡신도 짝이 있는데 / 챙이(곡식 따위를 까불러 쪽정이나 티끌을 골라내는 도구)같은 내 팔자야
 자탄한들 무엇하리 / 한탄한들 무엇하나(체념적, 자조적 태도)
 청천에 저 기력아(감정 이입의 대상)
너(기력, 의인화)도 또한 입을 잃고 / 임 찾아서 가는 건가
 더런 놈의 팔자로다
 이놈의 팔자를 / 언제나 면할꼬
 오늘도 이 짐을 안 지고 가면

어떤 놈이 밥 한술 줄 놈이 있나

자 가자 이히후후(수미상관 : 의미 강조, 운율 형성)

- 작자 미상, '초부가'

■ 핵심 정리

- 갈래 : 민요, 노동요
- 성격 : 직설적, 자조적, 체념적
- 주제 : 나무꾼의 고달픈 신세 한탄
- 특징

- ①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화자의 처지를 드러냄.
- ② 체념적 어조를 통해 기약 없는 삶을 한탄함.
- ③ 수미상관의 구조를 취하고 있음.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의 화자는 고대광실에서 태어나 만석록을 누리는 남들과 달리 남의 집 머슴으로 태어나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뭇짐을 져야 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화자는 처자식은 물론 재산도 없는 자신의 기구한 처지를 팔자소관, 즉 어쩔 수 없이 타고난 운명으로 여기며 체념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문 분석] (나)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농무’가 끝난 시점, 하강적 이미지)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무대(임의로 설치한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무너져 가는 농촌 현실, 소외감, 공허감)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공연이 끝난 후 분장이 땀으로 얼룩짐, 분한 마음이 얼룩짐)
 학교 앞 소숫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답답한 심정이 드러나는 행동)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농민들의 현실 인식이 직설적인 감정 표현으로 드러남)
 뽕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조무래기들뿐(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의 현실 상징)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직유법) 울부짖고(모순된 현실에 대한 울분의 격정적 토로)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인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황폐해져 가는 농촌 현실에 대한 자조적인 한탄)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피폐한 농촌의 현실)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긴장감의 최고조)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울분의 역설적 표현)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붙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농무’를 통한 분노와 한의 표출)
 - 신경림, '농무(農舞)'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농민시
 - 성격 : 사실적, 묘사적, 비판적
 - 제재 : 농무
 - 주제 : 농민들의 한(恨)과 고뇌 어린 삶
 - 특징
- ① 서사적인 시상 전개가 이루어짐.
 - ② 직설적 표현으로 현실 인식을 드러냄.
 - ③ 역설적 상황의 설정으로 정서를 드러냄.

▣ 이해와 감상

이 시는 농촌의 절망적인 현실을 사실적이고, 극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이 시에는 ‘농무(農舞)’라는 놀이가 등장하나 이것은 즐거움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다. 농무는 농민들의 한풀이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공연이 끝나고, 학교 앞 소줏집에서 술을 마시는 농민들에게 밀려오는 것은 허탈감뿐이다. 삶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와 ‘이까짓 /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라는 구절을 통해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들은 허탈감과 원통함, 울분을 안고 농무를 추면서 쇠전을 거쳐 도수장까지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들이 지닌 한(恨)은 ‘신명’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신명’은 분노를 삭이면서 형성된 역설적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겉으로 흥겨운 축제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이 시는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문학적인 방식으로 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우리는 농민들의 처절한 몸짓을 보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울분과 한의 정서에 공감을 하게 된다.

17. <답> ②

(가)는 “치마 찢른 계집 있나 / 다박머리 자식 있나 / 광 넓은 눈이 있나 / 사례 긴 밭이 있나” 등에서, (나)는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한탄스러운 화자의 처지가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가)의 “청천에 저 기러기 / 너도 또한 입을 잃고 / 입 찾아서 가는 건가”에서 ‘기러기’라는 자연물에 화자의 애상적 정감이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나)에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가)의 첫 부분인 “나무하러 가자 / 이히후후 에헤”와 끝 부분인 “자 가자 이히후후”에서 수미 상관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나)에는 이러한 시적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가)와 (나)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어떤 대상에 대해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지는 않다.
- ⑤ (가)의 “남 날 적에 나도 나고 / 나 날 적에 남도 나고”, (나)의 “어떤 녀석은 / 꺾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등에서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정적 이미지를 강화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나)의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에서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동적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 <답> ⑤

(나)에서 ‘꺾정이’와 ‘서림이’는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의 인물으로 현재의 시에 인용함으로써 그때와 지금의 상황과 정서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드러내고자 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다. 그때와 같이 지금도 농민들의 삶은 슬프고 고달프고 울분에 차 있으며 그러기에 저항정신에 있어서도 그때와 다르지 않음을 암시한다.

19. <답> ⑤

(나)에서 농무는 현실과의 화해의 몸짓이 아니라 울분과 고뇌를 해소하는 수단이다.

20. <답> ③

(가)의 화자는 자신의 처지와 대비되는 ‘어떤 사람’의 팔자를 언급하며 그들의 ‘고대광실’과 ‘만석록’을 부러워하고 있다. 세속적 가치에 대한 욕망의 경계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① “남 날 적에 나도 나고 / 나 날 적에 남도 나고”에서 화자 자신과 남이 근본적으로는 다를 바 없이 태어났음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기구하게 살아가는 ‘이놈 팔자’와 부귀영화를 누리는 ‘어떤 사람 팔자’의 모습을 대조하며 인간의 삶이 타고난 운명에 따라 다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힘든 삶에 죽자고 생각해 보니 아직 젊은 청춘이 아깝고, 살고자 하니 고단한 삶을 이어가기가 두렵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구절로 이렇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화자의 내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오늘도 이 짐을 안 지고 가면 / 어떤 놈이 밥 한 술 줄 놈이 있나”에서 화자가 하루라도 나무를 해 가지 못하면 끼니를 이어갈 방도가 없는 처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처지에 대한 탄식이 함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21~24] 문학 : 고전 산문

[지문 분석]

[앞부분 줄거리] 오랑캐를 평정하러 출정한 양창곡을 돕기 위해 **강남홍(주인공)**은 남장을 하고 이름을 **홍흔탈(강남홍이 남장한 것)**로 바꿔 함께 전쟁에 참가한다.

"**홍 원수(강남홍)**께서는 조금 전에 혼자 말을 타고 **도둑(양창곡)**을 구하려고 포위망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양창곡이 이 말을 듣고 놀란 모습으로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홍흔탈의 마음에 감동을 받음, 홍흔탈이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해서 걱정함)

"홍흔탈이 죽었구나. **탈해의 군대는 천하에서 가장 강한데다가 병사들의 숫자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홍흔탈이 죽었을 것이라 생각한 이유) 홍흔탈이 상당히 용맹하여 나를 찾다가 만나지 못했다면 필시 부질없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니, **약하고 어린 몸을 어이할꼬?** (홍흔탈을 걱정함)"

그는 또 이렇게 탄식하였다.

"홍흔탈이 나를 **지기(자기의 가치나 속마음을 잘 알아주는 참다운 벗)**라고 여겨 일 년 동안 전쟁터에서 함께 **환란(근심과 재앙을 아울러 이르는 말)**을 겪었는데, 오늘 나를 위하여 위험한 곳에 빠져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간할 수가 없구나. **내 어찌 그를 버리고 혼자 가겠는가.** (홍흔탈을 걱정하여 홀로 떠나지 않겠다고 말함)"

옛말에 이르기를, **나라가 나를 선비로 대우해 주면 나도 나라의 선비 신분으로 보답을 한다**(옛말을 인용하여 홍흔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함)고 했다. 내가 평생토록 창을 잡은 적은 없었지만 대략 들은 바는 있다. **오늘 내가 홍흔탈을 살피지 않는다면 나도 돌아가지 않겠다**(강하게 자신의 의지를 드러냄)"

그는 비장한 모습으로 창을 잡고 오랑캐 진영으로 쳐들어가려 했다. 그러자 모든 장수들이 일제히 **간언**(임금이나 윗사람에게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말함)하였다.

["소장들이 비록 용맹은 없지만 각각 군령에 따라 배치되어 오랑캐 진영을 깨뜨리고 흥 원수를 구하겠습니다. 도둑께서는 잠시 쉬십시오."](**홍흔탈을 구하기 위해 적진에 들어가겠다는 양창곡을 만류하는 신하들**)

[양창곡이 한창 혈기 넘치는 젊은 나이로, 자신의 신분을 돌아보면 경솔하게 행동할 수는 없지만 평생토록 총애하던 **홍량**(홍흔탈)이 자기 때문에 사지로 들어갔으나 생사를 건 환란에 의리상 어찌 저버릴 수 있었겠는가.](**부하들이 만류에도 홍흔탈을 구하기 위해 적진에 뛰어들어가는 양창곡**) 평생 동안의 용기와 힘을 한꺼번에 펼쳐내며 오랑캐 십만 병력을 초개같이 보는 것이었다. 그가 칼로 고삐를 끊어버리고 곧바로 오랑캐 진영으로 들어가자 **뇌천풍, 동초, 마달 등**(양창곡의 조력자)이 각각 칼과 창을 들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를 따랐다. 양창곡이 창을 휘두르며 오랑캐 진영으로 아무도 없는 곳인 양 쳐들어가니, 세 장수도 크게 놀라 그제야 양창곡의 용기와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 홍흔탈은 혈혈단신으로 오랑캐 진영 가운데를 마구 짓밟고 다녔지만 어디서도 양창곡을 발견하지 못하자 마음이 다급해졌다.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동분서주**(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뛰는 뜻으로, 여기저기 사방으로 분주하게 돌아다님을 이르는 말)하고 있는데, 마침 소보살이 진영 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장수에게 물었다.

"내 일찍이 상산 조자룡이 당양의 장관교를 횡행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지만, **저 장수**(홍흔탈)에는 미치지 못한다. 저 장수를 사로잡을 수는 없겠구나."

소보살(계락을 세움)은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다.

"내가 저 장수를 보니 **동서남북으로 황급히 다니는 모습**(홍흔탈이 양창곡을 찾는 모습)이 무언가를 찾는 듯하다. 이는 필시 명나라 도둑의 휘하 장수로, **도둑**(양창곡)을 찾으려는 것이리라. 우리 측 죽은 병사의 머리를 베어서 진영 위에 보이고 '너의 도둑이 죽었다'고 말한다면, 그는 필시 기세가 꺾여서 쉽게 손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소보살은 즉시 죽은 병사의 머리를 가져다가 깃대에 높이 걸고 소리를 질렀다.

["저 장수는 공연히 군진을 아무렇게나 돌아다니지 말라. 도둑의 머리가 이미 여기 있으니, 너는 자세히 보라."](**홍흔탈을 속이는 말**)

홍흔탈이 눈이 밝다 해도 달빛 아래 어떻게 분간하겠는가(서울자의 개입) 양창곡의 뛰어난 풍모와 홍흔탈의 총명한 능력을 보자면 평생 믿던 것을 거울처럼 밝게 보아 **간계**(간사하고 교활한 꾀)에 속지 않겠지만, 사람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닥치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팔공산의 초목의 의심도 있는 법이다. 하물며 양창곡을 향한 홍흔탈의 지극한 정성이 어떠하겠는가. 진영 위에서 소리치는 것을 듣고 벼락이 머리를 때린 듯 놀라서 정신이 있는 듯 없는 듯하다가, 홀연 가슴속의 불길이가 마구 일어나매, 생

사를 기러기 터럭처럼 가볍게 여기며 쌍검을 들고 소리를 질렀다.

["쌍검아! 네가 나를 따른다면 나의 한 조각 마음을 서로 비추리라. 오늘은 이 홍량의 생사를 결정하련다. 너도 또한 귀중한 보물이니 반드시 신령함이 있으리라. 나를 도우려거든 소리를 쟁쟁 울리라."](**홍흔탈의 용맹한 모습**)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자루 부용검이 한꺼번에 쟁그랑거리며 울리는 것이었다.

[중략 줄거리]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우던 홍흔탈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적진으로 들어온 양창곡을 만나 적을 대파하고 정신을 잃는다.

반시간쯤 지나자 홍흔탈이 정신을 수습하고 말했다(정신을 잃은 홍흔탈이 정신을 차린 것임)

"**상공**(양창곡)께서 천금 같은 귀한 몸을 가벼이 여겨 매번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뛰어드시니, 이는 모두 저의 죄입니다. 상공께서 처음 오랑캐들에게 포위되었던 것은 나라를 위해 그렇게 되신 것이므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적진 속으로 들어가신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자신을 구하기 위해 적진으로 들어간 것) **아녀자는 반드시 남편을 따르는 법입니다**(홍흔탈이 생각하는 아녀자의 도리) 저의 생사는 당연히 상공과 같이해야 하지만, 상공께서는 어찌 안위를 돌보지 않고 저를 따르신 것입니까? 어리석은 아녀자 입장에서야 감격하여 잊기 어려운 일입니다만, 식견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제가 올바른 도리로 남편을 모시지 못하여 한때의 정에 미혹토록 했다는 조롱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상공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양창곡이 얼굴빛을 바꾸며 말했다.

"**이는 금석 같은 말**(자신을 향한 홍흔탈의 말)이라 당연히 가슴에 새기겠소만, 내가 당신에 대해서만은 속마음을 알아주는 지기로 대한 것이지 부부의 정리로 대한 것이 아니요. 어찌 급박한 상황이 없겠소? 그러나 나는 오히려 나 자신을 아끼지만, 그대는 매번 열렬한 협객의 기상이 있어서 생사를 돌보지 않으니, 이 역시 경계해야 할 것이외다. 또 조심하십시오."

- 남영로, '옥루몽'

■ 핵심 정리

- 갈래 : 한문 소설, 염정 소설, 군담 소설, 영웅 소설
- 성격 : 전기적, 비판적
- 제재 : 영웅적 인물들의 활약상
- 주제 : 양창곡의 영웅적 활동과 부귀영화
- 특징
 - ① 여성 인물들의 성격이 특징 있게 묘사됨.
 - ②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음.

■ 전체 줄거리

천상계에서 문창성이 취중에 지상계를 그리워하는 시를 읊고 제 방옥녀를 비롯한 선녀들을 희롱한다. 이를 안 옥황상제가 크게 노하여 문창성은 양창곡, 제방옥녀는 윤 소저, 천요성은 황 소저, 홍란성은 강남홍, 제천선녀는 벽성선, 도화성은 일지련으로 인간 세상에 태어나게 한다. 인간 세상으로 하강한 양창곡은 과거를 보러 가던 중 기생 강남홍과 가연을 맺고, 강남홍의 천거로 윤 소저와

도 인연을 맺는다. 이 무렵, 소주자사 황공이 강남홍을 탐하자 강남홍은 강물에 투신하지만 윤 소저에 의해 구출되어 남쪽 탈탈국의 절에 몸을 의탁한다. 양창곡은 장원 급제하여 대원수가 되어 남만을 치는데, 만국의 원수가 되어 있던 강남홍은 명의 원수가 양창곡임을 알고 그에게 도망쳐 온다. 연왕으로 책봉된 양창곡은 처첩들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천상계로 돌아가 다시 선관이 된다.

▣ 이해와 감상

‘옥루몽’은 64회의 회장체(回章體)로 된 장편 소설로, 구성이 치밀하고 규모가 방대하며 표현력이 빼어날 뿐 아니라, 여성들의 성격이 개성 있게 창조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주인공인 양창곡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영웅의 행적을 그린 영웅 소설, 군담 소설, 여걸 소설로, 유교 사상을 골격으로 하면서 불교 사상 및 도교 사상도 수용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왕도 정치를 펴면서 과거 시험의 부정을 척결하고 간신들의 악행을 막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현실 개혁의 의지와 방법을 담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1. <답> ④

이 글은 사건의 전개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① 양창곡과 다른 장군들과의 대화, 양창곡과 홍흔탈의 대화, 오랑캐 진영에서의 두 주인공의 활약 등을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 ② 홍흔탈을 구하기 위해 적진으로 가려는 양창곡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 소보살의 계략에 대한 홍흔탈의 심리나 행동에 대한 서술자 평가 등이 나타난다.
- ③ 상산 조자룡의 고사를 통해 홍흔탈의 용맹함이 드러난다.
- ⑤ 두 자루 부용검이 홍흔탈의 말에 따라 울리는 모습에서 전기적(傳奇的) 수법이 나타나며, 이는 양창곡이 죽었다는 소보살의 계략에 맞서는 홍흔탈의 의지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22. <답> ⑤

이 글은 오랑캐와의 싸움에서의 승리를 다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창곡과 홍흔탈의 의리와 용맹함이 부각되고 있다. 전투 과정에서 홍흔탈의 부용검이 소리를 내는 초현실적 상황이 그려져 있지만, 이것을 근거로 천상계가 지상계에 개입한다고 말하기에는 비약이 심하다. 두 주인공이 천상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기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 ① 홍흔탈이 적진에 뛰어든 것은 양창곡을 구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양창곡이 다시 적진으로 간다는 것은 홍흔탈의 의도를 거스르는 행위이다.
- ② 양창곡과 홍흔탈은 자신의 목숨보다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 ③ 양창곡이 적진으로 다시 뛰어든 상황에서, 이 글에 ‘이때’라는 부사어가 보인다. 이 부사어는 장면 전환의 구실을 하는 것으로, 양창곡이 적진으로 뛰어든 때 홍흔탈 역시 오랑캐의 진영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 ④ 소보살은 홍흔탈의 기를 꺾기 위해 양창곡이 이미 죽었다는 계략을 꾸몄으나, 이는 오히려 홍흔탈의 분노를 일으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움에 임하게 만든다. 결국 오랑캐가 싸움에서 패배했음이 드러나는데 이를 통해 소보살이 싸움에서 이기고자 계략을 꾸몄

나 결과적으로 싸움에서 지게 됐음을 알 수 있다.

23. <답> ⑤

홍흔탈은 아내가 남편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따르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고 양창곡을 질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창곡은 물론 그 말이 맞지만 자신은 부부의 도리가 아닌, 지기로서 행동한 것이라 하면서 오히려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은 홍흔탈의 태도를 질책한다. 양창곡은 위기의 순간 이기에 상황 판단의 겨를 없이 적진으로 다시 뛰어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상황 논리에 따른 불가피성을 말하고 있지 않다.

- ① 양창곡과 홍흔탈 모두 상대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홍흔탈은 양창곡이 다시 적진 속으로 뛰어든 행동에 대해 ‘이는 모두 저의 죄’라고 말하고 있다.
- ③ 아내자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겠지만, 식견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른 판단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면서 양창곡이 이성애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양창곡은 홍흔탈이 부부 사이의 도리를 말하자 이를 수용하면서도, 그러나 자신은 부부의 정리가 아닌 지기의 도리에서 행동했음을 주장한다.

24. <답> ④

<보기>는 작가가 ‘옥련몽’을 ‘옥루몽’으로 개작한 것에 의도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 의도를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옥련몽’에서는 인간적인 측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일한 장면을 ‘옥루몽’에서는 남편을 향한 정성으로 표현하여 부덕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의 부덕은 아내자의 도리로, 유교적 가치관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옥루몽’은 ‘옥련몽’에 비해 당대 지배층의 가치관인 유교적 윤리를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29] 독서 : 인문

[지문 분석]

기하학 입문서 정도에 불과한 <원론>이 수십 세기를 거치면서도 세계적으로 읽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질문의 방식으로 흥미와 설명할 대상은 소개함) 그것은 바로 <원론>의 논리적 엄밀성과 고도의 조직적인 체계 때문이다.(문답법을 활용함) <원론>의 내용은 별로 새로운 것이 없다. 유클리드는 완전히 창의적으로 <원론>을 쓴 것이 아니라 그 때까지 저명한 수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모아서 새롭게 재구성한 것일 뿐이다.(<원론>의 특징) 그런데도 오늘날 ‘기하학’ 하면 곧 <원론>을 생각할 만큼 기하학의 교과서로서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있다.(<원론>의 가치 및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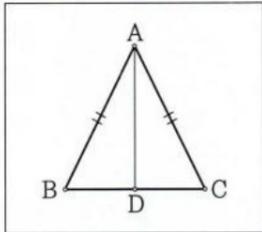
1문단 : 기하학의 교과서로 오랜 동안 위세를 떨치고 있는 <원론>

<원론>에서 유클리드는 직관적인 증명을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엄밀한 증명만을 택하고 있다.(<원론>에서 유클리드가 선택한 증명 방식) 물론 오늘날 우리는 ‘정리(定理)’란 당연히 ‘논리적으로 증명된 명제’를 뜻함(‘정리’에 대한 현재의 생각)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얼핏 생각하기에, 즉 직관적으로 당연히 보이는 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이 ‘인정된 사실’처럼 마구 사용하거나, 증명을 한다 해도 별로 엄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현재와

대비되는 '정리'에 대한 당시의 생각) 이 같은 태도를 철저히 배격한 유클리드는 반드시 미리 전제한 '공리(公理)'나 '공준(公準)' 또는 이미 증명된 '정리'만을 사용하여 엄밀하게 증명하고 있다.(유클리드가 선택한 증명 방식) 대표적인 예가 바로 널리 알려진 '제5정리'의 증명이다. 명칭 그대로 <원론>에 나오는 다섯 번째의 정리인 '제5정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은 서로 같다."
유명한 수학자 탈레스는 이 정리를 다음과 같이 증명했다.

이등변 삼각형 ABC의 꼭지각 A의 이등분선을 긋고,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 한다.



AB=AC, ∠BAD=∠CAD, 그리고 AD는 공통이므로, △ABD=△ACD
∴ ∠B=∠C

이것은("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은 서로 같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증명법이기에 때문에 익숙하다. 그런데 <원론>에서 유클리드는 이 정리를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증명('제5정리')하고 있다.

유클리드는 왜 그토록 까다로운 증명 방법을 선택했을까?(질문의 방식을 통해 관심과 흥미를 유발함) 유클리드는 우선 탈레스의 증명의 첫머리, [즉 '이등변 삼각형 ABC의 꼭지각 A의 이등분선을 긋는다.'는 내용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각의 이등분선을 작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공리'나 '공준'에도 없고, 제1정리에서 제4정리까지에도 없기 때문이었다.](인과의 방식, 결과와 원인의 순서로 제시됨)

유클리드의 이러한 증명 태도는 문제를 훨씬 복잡하게 풀도록 만든 요인이기도 했지만, 오늘날 엄밀하고 정확한 논리적 증명의 확립에 기초를 다진 점에서 높이 평가(유클리드 증명 태도의 가치)되고 있다.

2~3문단 : 논리적으로 엄밀한 증명만을 택하여 서술한 <원론>과 그 예

<원론>에는 또, 직접적으로 추리해 내어 증명하지 않고 우회적인 수법('귀류법'의 특징①)을 사용하는 '귀류법'이라는 증명법이 종종 나타난다. 귀류법은, 어떤 사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그 사실을 부정한 다음 모순을 찾아 내어 '옳음'을 유도하는 방법('귀류법'의 특징②)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자연수는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 '1, 2, 3, 4, …'와 같이 자연수를 일일이 써서 증명할 수는 없다. 이럴 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된다.

만일 자연수가 유한개라면? 자연수가 유한개라면 가장 큰 수가 존재할 것이다. 그 수를 m이라고 하자. 자연수인 m에다 역시 자연수인 1을 더한 m+1은 자연수이다. 그런데, m+1은 분명히 m보다 크다. 그러므로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는 m이 아니라 m+1이라야 한다. 이것은 결국 처음의 가정과 어긋나게 되므로, 자연수는 유한개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귀류법은 유클리드가 처음 생각해 낸 방법은 아니지만, 그는 귀류법을 완전한 증명법의 하나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최초의 수학자(유클리드에 대한 평가)임에는 틀림없다.

4~7문단 : '귀류법'이라는 증명법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원론>

• 주제: <원론>을 통해서 본 유클리드 기하학의 내용과 의의

[지문 확인]

1문단: 기하학의 교과서로 오랜 동안 위세를 떨치고 있는 <원론>

- <원론>이 수십 세기를 거치면서도 세계적으로 읽혀지고 있는 이유 : 논리적 엄밀성과 고도의 조직적인 체계 때문
- <원론>의 내용상 특징 : 별로 새로운 것이 없음, 완전히 창의적으로 <원론>을 쓴 것이 아니라 그 때까지의 저명한 수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모아서 새롭게 재구성함

2~3문단 : 논리적으로 엄밀한 증명만을 택하여 서술한 <원론>과 그 예

- 유클리드가 선택한 증명 방식 : 미리 전제한 '공리(公理)'나 '공준(公準)' 또는 이미 증명된 '정리'만을 사용 / 직관적인 증명을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엄밀한 증명만을 사용
- 유클리드 증명 태도의 가치 : 오늘날 엄밀하고 정확한 논리적 증명의 확립에 기초를 다진 점에서 높이 평가받음

4~7문단 : '귀류법'이라는 증명법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원론>

- '귀류법'의 특징
 - ① 직접적으로 추리해 내어 증명하지 않고 우회적인 수법
 - ② 어떤 사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그 사실을 부정한 다음 모순을 찾아 내어 '옳음'을 유도하는 방법
- 유클리드에 대한 평가 : 귀류법을 완전한 증명법의 하나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최초의 수학자

25. <답> ④

이 글의 내용에 의하면 '귀류법'은 어떤 사실의 내용을 우선 부정 한 후, 그 부정한 내용에서 모순을 찾아냄으로써 그 사실이 옳음을 유도해 내는 증명 방법이다. <보기>의 내용 중 우리가 증명해야 할 핵심 내용은 '그 통 속에 구슬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다. 귀류법을 사용해서 증명할 경우, '그 통 속에 구슬이 남아 있다.'고 전제한 후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면 된다. 이 과정을 정리하면, '그 통 속에 구슬이 남아 있다면 통을 흔들 때 소리가 날 것이다.→그런데 통을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그러므로 그 통 속에는 구슬이 남아 있지 않다.'와 같다.

26. <답> ①

<원론>은 유클리드가 쓴 책이지만, 참신하고 독창적인 새로운 이론을 담은 것이 아니라 기존의 위대한 수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재구성한 것이라고 하였다.

④ <원론>의 가장 큰 특징은 논리적 엄밀성이라고 했으므로, 이 책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의하고 검증하는 사고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27. <답> ②

'배제(排除)'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이라는 뜻이고, '배격(排擊)'은 '어떤 사상, 의견, 물건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물리침'이라는 뜻이다.

28. <답> ④

㉠에는 유클리드가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은 서로 같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탈레스의 증명의 첫머리인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긋는다.’라는 내용조차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담겨야 한다. 그런데 글쓴이는 유클리드의 증명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증명의 엄밀성이라고 하고 있다. 즉, 반드시 미리 전제된 ‘공리’나 ‘공준’ 또는 이미 증명된 ‘정리’만을 사용하여 엄밀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추리해 볼 때, ㉠에는 ‘공리’나 ‘공준’ 그리고 이전의 ‘정리’ 어느 것에서도 그러한 전제를 타당하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29. <답> ③

자연수인 m과 역시 자연수인 1을 합한 값이 ‘m + 1’인 것은, ‘합’을 ‘+’라는 기호로 사용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분명히 성립하지만 ‘m+1이 자연수’라는 내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연수끼리의 합은 자연수’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30~34] 독서 : 기술

[지문 분석]

세균은 **다양한 종류의 전염병을 일으키는 주범(세균의 해악)**이다. 이는 **세균이 수많은 화학 물질을 만들어 다른 유기체를 죽이기 때문(세균이 인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인데, 인간은 이 같은 ‘미생물 킬러’를 인공적으로 배양하여 특정 세균을 죽이는 데 **이용(세균을 역이용함)**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항생 물질인 페니실린도 균류인 푸른곰팡이에서 얻은 것이다.

1문단: 세균의 해악과 그 역이용 사례

항생 물질은 **새로운 세균이 세포벽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이미 존재하는 세균의 세포벽을 부식시켜 세균을 해체시킨다.(항생 물질의 기능①)** 또 **세균 세포 안에서 단백질이 형성되는 걸 막거나 DNA가 새로운 세균을 재생산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균의 물질대사 각 단계를 차단하기도 한다.(항생 물질의 기능②)**

2문단: 항생 물질의 기능과 작용 기제

항생 물질이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뒤집어 생각하면,(발상의 전환) 세균 자신도 항생 물질의 허를 찌르기 위해 그만큼이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말이 된다.(세균에 대한 발상의 전환)** 진화의 법칙에 따라서, 항생 물질에 저항력을 갖춘 돌연변이 세균이 생겨나게 되면 이러한 세균이 그렇지 못한 세균보다 살아남을 가능성이 훨씬 많으며, 재생산 역시 훨씬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세균은 페니실린이 자신을 파괴하기 전에 페니실린을 파괴하는 또 다른 효소를 생산하는 형태로 진화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세균은 페니실린이 무력화시킬 수 없는 효소를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하기도 한다.]**(항생 물질에 저항력을 갖는 세균의 진화)

3문단: 항생 물질에 저항력을 갖는 방향으로의 세균의 진화

세균이 항생 물질에 저항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위협적인 무기는 **플라스미드(세균이 항생 물질에 저항할 때 사용하는 물질)**이다. 플라스미드는 **세균이 지닌 염색체 외의 유전인자(플라스미드의 특징)**인데, 이들 중에는 항생력이 있는 물질을 만들어서 다른 세균을 죽이는 것도 있고, 세균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지니도록 만드는 것들도 있다. 세균의 관점에서 볼 때, 플라스미드의 장점은 하나의 세균에서 다른 세균으로, 심지어 하나의 종에서 다른 종으

로 이동하며 돌연변이 DNA를 퍼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때로는 세균 안에서 기생하는 바이러스가 **하나의 세균 무리에서 다른 무리로 플라스미드를 옮겨 주기도 한다.(기생 바이러스의 독특한 역할)** 그런데 플라스미드가 퍼지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세균식 교미(플라스미드가 퍼지는 일반적인 형태)**를 통해서이다. **[세균은 단성이지만,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는 세균은 플라스미드가 없는 세균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 그래서 두 세균은 잠시 결합한다. 이때 플라스미드를 가진 세균은 자기 플라스미드를 복제하여 상대방에게 건네 준다. 그런 다음 두 세균은 다시 분리된다. 그래서 두 세균 모두 플라스미드를 갖게 되는 것이다.]**(세균이 플라스미드를 갖는 과정)

4문단: 세균의 저항력 증진의 핵심 요소인 플라스미드

항생 물질을 광범위하게 사용한 결과, **사람의 몸 안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세균은 페니실린 파괴 효소를 가지고 있다.(항생 물질을 광범위하게 사용한 결과)** 그래서 과학자들은 새로운 항생 물질을 찾아 내어 세균보다 한 발 앞서 가려 한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세균은 하나 이상의 항생 물질에 저항력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그 저항력을 전해 준다.(세균의 저항력 증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약에 대한 복합적인 저항력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생겨났다. 심지어 인류가 이용 가능한 모든 항생 물질에 대해 저항력을 갖고 있는 변종 세균도 생겨났다. 그래서 세균을 퇴치하려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믿는 과학자들도 있다. **세균 예방 백신(세균을 퇴치하는 새로운 방법)** 같은 걸 개발하자는 것이다.

5문단: 항생 물질의 과다 사용과 그로 인한 세균의 저항력 증가

만일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설사 괜찮아지는 느낌이 들더라도 안심하지는 말아야 한다. **세균이 다 죽었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몸 어딘가에는 세균 몇 마리가 기력을 회복할 날만 고대하며 숨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세균의 끈질긴 생명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함)**

6문단: 세균의 끈질긴 생명력에 대한 경각심 강조

• 주제: 항생 물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세균의 저항력 증가의 문제점

[지문 확인]

1문단: 세균의 해악과 그 역이용 사례

- 세균 : 다양한 종류의 전염병을 일으킴
- 세균이 인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 : 세균이 수많은 화학 물질을 만들어 다른 유기체를 죽이기 때문
- 세균의 역이용 : ‘미생물 킬러’를 인공적으로 배양하여 특정 세균을 죽이는 데 이용

2문단: 항생 물질의 기능과 작용 기제

- 항생 물질의 기능
- ① 새로운 세균이 세포벽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이미 존재하는 세균의 세포벽을 부식시켜 세균을 해체시킴
- ② 세균 세포 안에서 단백질이 형성되는 걸 막거나 DNA가 새로운 세균을 재생산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균의 물질대사 각 단계를 차단함

3문단: 항생 물질에 저항력을 갖는 방향으로의 세균의 진화

- 세균에 대한 발상의 전환 : 세균 자신도 항생 물질의 허를 찌르기 위해 그만큼이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함

4문단: 세균의 저항력 증진의 핵심 요소인 플라스미드

- 플라스미드
 - ① 세균이 항생 물질에 저항할 때 사용하는 물질
 - ② 세균이 지닌 염색체 외의 유전인자
- 세균이 플라스미드를 갖는 과정

세균은 단성이지만,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는 세균은 플라스미드가 없는 세균의 마음을 사로잡게 됨 → 두 세균은 잠시 결합 → 플라스미드를 가진 세균은 자기 플라스미드를 복제하여 상대방에게 건네 줌 → 그런 다음 두 세균은 다시 분리 → 두 세균 모두 플라스미드를 갖게 됨

5문단: 항생 물질의 과다 사용과 그로 인한 세균의 저항력 증가

- 항생 물질을 광범위하게 사용 → 사람의 몸 안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세균은 페니실린 파괴 효소를 가지고 있음 → 세균의 저항력 증가
- 세균을 퇴치하는 새로운 방법 : 세균 예방 백신

6문단: 세균의 끈질긴 생명력에 대한 경각심 강조

- 세균이 다 죽었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몸 어딘가에는 세균 몇 마리가 기력을 회복할 날만 고대하며 숨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세균의 끈질긴 생명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함

30. <답> ②

'미생물 킬러', 즉 세균을 인공적으로 배양하여 특정 세균을 죽이는 데 이용하기도 한다는 진술과 대표적인 항생 물질인 페니실린도 균류인 푸른곰팡이에서 얻은 것이라는 진술로 미루어, 항생 물질은 대개 화학 물질의 배합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균의 배양을 통해서 얻음을 알 수 있다.

①은 1문단의 처음 부분을 통해서, ③은 3문단의 설명을 통해서, ④와 ⑤는 5문단의 내용을 통해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31. <답> ②

이 글의 4문단에서, '플라스미드'는 세균이 지닌 염색체 외의 유전인자를 뜻하며, 이것이 다른 세균으로 DNA를 운반함으로써 특정한 DNA를 퍼뜨린다고 하였다. (보기)의 경우에도 인슐린 생산을 조절하는 부분을 잘라 내어 다른 세균에 전달함으로써 여러 세균들이 인슐린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균이 지닌 '플라스미드'의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③ 의도적으로 돌연변이 세균을 만들어 낸다는 해석은 적절하지만,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균만을 다량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세균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32. <답> ③

세균은 인간에게 다양한 전염병을 일으키는 주범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세균을 죽이는 데 이용한다고 했으므로, 인간에게 해로운 대상('적')을 이용해서 그 해로운 대상을 제압하도록 하는 '

이이제이'의 수법과 같다고 해석할 수 있다.

33. <답> ④

4문단에 제시된 '세균식 교미'의 과정을 정리하면,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는 세균이 플라스미드가 없는 세균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두 세균이 잠시 결합함 → 이때 플라스미드를 가진 세균은 자기 플라스미드를 복제하여 상대방에게 건네 줌 → 그런 다음 두 세균은 다시 분리됨 → 그래서 두 세균 모두 플라스미드를 갖게 됨'과 같다. <보기>의 ㉠은 이러한 과정의 최종 결과에 해당하므로 '두 세균 모두 플라스미드를 갖게 됨'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34. <답> ⑤

<보기>의 설명을 참조하면, '백신'은 우리의 몸이 병원균이 되는 미생물에 저항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 내게 해서 나중에 동일한 미생물에 감염되었을 때 면역을 갖게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글에서는 세균을 퇴치하려면 항생 물질의 사용 이외의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하는데, 그 중 한 방법으로서 '세균 예방' 백신을 개발하자는 제의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의 의미는 '항생 물질의 사용 대신' '세균'에 대해서 '면역'을 갖게 해 주는 백신을 개발하자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① 항생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서 제안한 것이다.
- ② 백신은 인간의 몸에 주입하여 면역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③ 기존의 백신도 직접 몸속에 세균을 주입하는 것이다.
- ④ 세균을 무력화하는 것 자체가 면역 기능이며, 약품이 아니라 독소를 약하게 한 세균 혹은 죽은 세균을 사용한다.

화법과 작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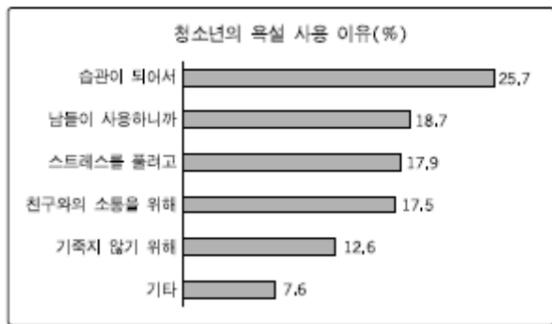
35	②	36	④	37	①	38	②	39	⑤
40	④	41	③	42	④	43	④	44	⑤
45	③	수고하셨습니다.							

[35~37] 화법

[지문 분석]

안녕하십니까? **입니다.**(인사말 및 자기 소개) 먼저 녹음 자료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어떠십니까?**(질문을 통해 청중과 소통함) 우리들, 정말 욕 많이 하죠?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들 접하셨겠지만 **실제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일상적인 언어생활 중에 욕설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킴) 그래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청소년의 욕설 사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발표 내용 안내)

먼저, 우리는 왜 욕을 할까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줌.) (유기적 관계) 여러 이유를 떠올리셨을 텐데요. 다음 통계 자료를 보시죠.



보시다시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욕설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바로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욕을 해서 안 된다는 데 동의하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욕을 하게 되지요. 욕설을 사용하는 청소년만 탓할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건전한 여가 활동의 여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예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함)

한편,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애초에 욕을 몰랐다면 어떨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청중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음) 그렇습니다. 아마 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욕설 습득 경로를 차단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인과의 방식을 활용함)

이상,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자는 것과 욕설 습득 경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발표 내용을 요약) 그렇지만 이런 방안이 효과를 얻으려면 청소년 스스로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고운 말 칭찬 릴레이 제도를 제안합니다. 우리 스스로 고운 말 사용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학급에서 학교 전체, 더 나아가 청소년 문화 전체에까지 퍼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끝인사)

[지문 확인]

- 갈래: 발표
- 특징
- 인사말 및 자기 소개로 발표를 시작함

- 질문을 통해 청중과 소통함
-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킴
- 발표 내용을 요약
- 주제 : 청소년 욕설 사용 문제

35. <답> ②

발표 내용의 “우리는 모두 욕을 해서 안 된다는 데 동의하지만,~”으로 보아, 발표자는 청중인 학급 친구들이 욕설 사용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절반 정도는 욕설 사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욕설도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절반 정도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이라는 청중 분석 내용은 발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① 이 발표는 ‘청소년의 욕설 사용 이유’에 대한 정보 전달을 바탕으로 하여, 욕설을 사용하지 말고 고운 말을 사용하자고 설득하는 말하기라고 할 수 있다.

③ 발표자는 욕을 많이 하는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자료’와 청소년의 욕설 사용 이유에 대한 ‘통계 자료(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④ 발표자는 “어떠십니까?”, “우리는 왜 욕을 할까요?”, “애초에 욕을 몰랐다면 어떨까요?”와 같은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청중과 상호작용을 하며 발표하고 있다.

⑤ 발표자는 욕설을 사용하지 말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운 말 칭찬 릴레이 제도’라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6. <답> ④

발표 내용의 “욕설을 사용하는 청소년만 탓할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건전한 여가활동의 여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욕설 습득 경로를 차단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등으로 보아, 발표자는 청소년의 욕설 사용 문제에 대한 책임이 청소년에게만 있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과 청소년들이 욕설을 습득할 수 있는 경로에 있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발표자는 ‘청소년의 욕설 사용 이유’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이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신뢰성이 다소 떨어진다.

② 발표자는 ‘청소년의 욕설 사용 이유’에 대한 통계 자료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욕설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하였는데, ‘스트레스를 풀려고(17.9%)’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인 항목인 ‘습관이 되어서(25.7%)’와 ‘남들이 사용하니까(18.7%)’가 아닌 스트레스에 주목한 까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③ 발표자는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예시로 건전한 여가 활동의 여건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을 들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⑤ 발표자는 청소년들의 욕설 습득 경로를 차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나, 그 경로가 무엇이고 어떻게 차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37. <답> ①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은영’은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 줄 수 있는 조언의 내용으로는, 지금의 긴장감과 불안감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여기지 말고, 말하기

전의 긴장감과 불안감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감정으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②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은영’은 발표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긴장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은영’이 발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지호’의 “다 외울 정도로 준비 많이 했잖아.”라는 말로 보아, ‘은영’은 발표 연습과 준비를 충분히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은영’의 “지난번에도 너무紧张해서 완전히 망쳤는데.”라는 말로 보아, ‘은영’은 지난번의 실수를 잊지 않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더욱紧张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은영’의 “이번 발표를 잘하면 곧 있을 반장 선거에도 도움이 될 텐데.”라는 말로 보아, ‘은영’은 이 발표가 자신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8~41] 화법과 작문

[지문 분석] 화법

[활동 1]
다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독서 토의를 해 보자.

윤홍길의 소설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 권 씨는 ‘나의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인물이다.(인물 소개) [가장인 권 씨는 대학을 나와 한때는 출판사에서 일하기도 했지만 국가가 주도한 잘못된 주택 정책으로 인해 지금은 파산 상태에 이른 불행한 사람이다. 어느 날, 권 씨의 아내가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한 권 씨는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를 매몰차게 거절한다. ‘나’는 곧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권 씨의 아내가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권 씨는 수술비를 구하기 위해 그날 밤 칼을 들고 ‘나’의 방에 들어온다. 그러나 ‘나’에게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고, ‘나’의 말에 자존심이 상한 권 씨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소설 내용을 간략히 소개함)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권 씨가 당한 불행은 누구의 책임일까?(독서 토의의 주제)

[활동 2]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글을 써 보자.

(가)
학생 1: 이번 토의의 사회는 내 차례야. (활동지를 나누어 주며)(사회자의 역할 : 토의 진행) 지난 시간까지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읽었잖아. 오늘은 ‘권 씨가 당한 불행은 누구의 책임인가?’(사회자의 역할 : 토의 주제 안내)라는 주제로 토의하려고 해. 이를 위해 먼저 권 씨가 한 강도짓에 대해 평가해 보자.

학생 2: 내가 먼저 말할게.(사회자의 발언 순서 안내 없이 자유롭게 토의가 진행됨) 권 씨의 강도짓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이유를 따질 필요도 없이 무조건 비난받아야 해.(학생 2의 의견) ‘나’가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강도짓까지 하다니, 권 씨는 참 나쁜 사람이야.

학생 3: 꼭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학생 2의 의견에 대한 반박) 그의 강도짓은 불법이 분명하지만 아내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위였어.(근거) 아내의 목숨이 경각에 놓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내가 죽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라 할 수 있어.

학생 2: (고개를 끄덕이며)(반언어적 표현)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학생 3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렴) 강도짓이 나쁘다는 것은 알았겠지만, 그렇다고 아내를 그냥 죽게 놔 둘 수는 없었겠지.

학생 1: 정리하면, 권 씨의 강도 행위는 위법한 것이지만, 무조건 비난하는 건 가혹할 수도 있다는 거겠네. 그러면 권 씨가 이런 극단적 행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사회자의 역할 : 발언 내용 정리 및 다음 토의 내용으로 매끄럽게 연결시킴)

학생 2: 그야 권 씨가 가난했기 때문이지. 나는 가난의 책임이 권 씨 자신에게 있다고 봐.(학생 2의 의견) 그가 국가의 주택 정책을 꼼꼼히 따져 보았다면 파산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거야.

학생 3: 물론 권 씨의 책임도 있어.(학생 2의 의견에 대해 일부 수용) 하지만 더 큰 책임은 국가에 있어.(학생 3의 의견) 책임지지 못할 주택 정책을 시행해 놓고 모든 책임은 권 씨 같은 순박한 국민에게 전가한 거잖아.

학생 2: 듣고 보니 그러네. 그렇다면 국가가 나서서 권 씨의 가난을 해결해 주었어야 했구나.(학생 3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렴)

학생 3: 그렇지. 그런데 권 씨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만은 아니야. 권 씨가 ‘나’에게 “그 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소설 내용을 직접적으로 인용함)라고 한 말이 잊히지 않아. 이런 점에서 보면 권 씨는 물질적 도움도 필요했겠지만 이웃의 관심과 사랑도 필요했던 것 같아. 기 때문이지. 나는 가난의 책임이 권 씨 자신에게 있다고 봐. 그가 국가의 주택 정책을 꼼꼼히 따져 보았다면 파산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거야.

학생 1: 정리하면, 권 씨가 가난하게 된 데에는 국가의 책임이 크고, 그런 그를 도울 주체는 국가와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네.

[지문 확인]

- 갈래: 독서 토의
- 특징
 - 소설 내용을 직접적으로 인용함
 - 사회자의 다양한 역할을 확인할 수 있음
 - 반언어적 표현을 활용함
- 주제 : 소설에서 ‘권 씨’가 당한 불행의 책임은 누구일까?

[지문 분석]

(나)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읽고, 아내의 수술비를 구하기 위해 주인집에 강도짓을 하러 들어간 권 씨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권 씨 행동에 대한 처음 생각) 그러나 토의를 통해 권 씨의 강도짓은 위법한 행위이지만, 그 나름의 딱한 사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독서 토의를 통해 깨달은 점) 만약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내를 죽게 만들었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지탄받을 행위이기 때문이다.(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함)

권 씨는 가난으로 인해 가족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었다.(권 씨 이 상황을 간략히 전달함) 나 역시 권 씨와 같은 불행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와 유사한 극단적 행동을 했을 것이다.(소설 인물의 상황을 자신의 처지로 이입해서 생각함) 따라서 이런 문제는 그를 둘러싼 사회 환경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선 권 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문답의 형식을 활용함)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이들의 처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이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역할) 하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다. 권 씨는 자신의 위급한 처지를 알면서도 외면한 ‘나’에게 “그 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라는 말을 하며 사라진다. 나는 권 씨의 이 절규를 통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웃의 관심과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권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으로서 각 개인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다. (개인의 역할)

그동안 나는 권 씨처럼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들을 보면, 그들이 겪는 고통의 책임은 모두 그들에게 있다고 여겼었다. (과거 자신의 모습을 성찰함) 하지만 이 토의를 통해 이런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토의를 통해 깨달은 점) 자의가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의해 누구라도 권 씨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들을 도울 책임이 있다. 다만 이들을 도울 때에는 세심한 점까지도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 씨의 경우처럼 아예 도움을 주려는 이들로부터 떠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주변에 소외받는 이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아야겠다.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 다짐)

[지문 확인]

- 갈래: 수필(성찰하는 글)
- 특징
-
- 독서 토의를 통해 깨달은 점을 솔직하게 표현함
-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반성함
- 앞으로 변화될 자신의 모습을 전망함
- 주제 : 독서 토의를 통해 깨달은 점과 성찰

38. <답> ②

‘학생 1’은 사회자로서 토의가 시작될 때, ‘권 씨가 당한 불행은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주제로 토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토의 중간 중간 참여자들이 토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참여자들이 토의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하였다(㉡). ‘학생 1’은 토의를 준비하며 사회자가 해야 할 다양한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실제 토의에서는 토의 내용과 관련 없는 말을 하는 참여자를 제재하지 않았고(㉢), 근거가 부족한 발언을 한 참여자에게 근거를 밝히라고 말하지도 않았으며(㉣), 참여자에게 발언 순서를 안내하지도 않았다(㉤).

39. <답> ⑤

[C]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에 동의하며 국가가 권 씨의 가난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이 말을 들은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에 ‘그렇지.’라고 동의하며, 그것 뿐 아니라 권 씨에게 이웃의 관심과 사랑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기하고 있다

① [A]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지만, 그 의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② [A]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 의견에 대해 다시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③ [B]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에 일부 동의 하지만 그 의견이 전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원래 의견을 수정하고 있지는 않다.

④ [C]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지만, 그 의견을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40. <답> ④

2문단에서는 토의에서 ‘학생 3’이 언급한 권 씨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물질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가 이웃 간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권 씨에게 필요한 것은 이웃의 사랑과 관심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한 의도로 활용한 것이다.

① 1문단에서 권 씨의 강도짓이 위법 행위이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여겼던 자신의 생각을 먼저 밝히고, 토의를 통해 이런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고 쓰고 있다.

② 2문단에서 권 씨가 강도짓을 하게 된 이유가 그를 둘러싼 사회 환경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③ 2문단에서 권 씨의 극단적 행동을 미연에 막으려면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나서야 할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각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⑤ 3문단에서 토의를 통해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들이 겪는 고통의 발생 책임이 그들 자신에게 있다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밝히고 있다.

41. <답> ③

㉠에서는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때에는 그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① ㉠은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 이 내용은 ㉠과 관련이 없다.

② ㉠은 누구라도 권 씨처럼 사회에서 소외받는 처지가 될 수 있음을 밝히는 데 활용하기에는 적절하다. 하지만 ㉡은 이런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④ ㉠은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지만, ㉠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⑤ ㉠에서 언급한 연민의 발생 요인은 누구나 연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처지와 심리까지 살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다. 따라서 ㉠은 연민의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42~45] 작문
[지문 분석]

<보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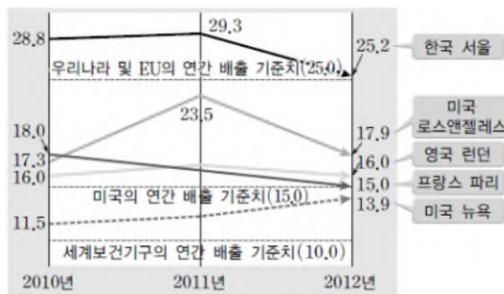
미세 먼지 농도가 크게 높아지는 일이 자주 발생해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어.(문제 상황) 다른 나라의 실태와 비교해 보면 그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거야. 또 이러한 문제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알아보면 문제 해결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겠지.(기대 효과) [무엇보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고농도 미세 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미세 먼지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완결성 있는 글을 전개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도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거야.](작문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보기 2>

[가] 미세 먼지 및 초미세 먼지의 국내 오염원 비율(2010년)

구분	오염원	비율(%)	
		미세 먼지 (직경 10 μm 이하)	초미세 먼지 (직경 2.5 μm 이하)
수도권	이동 오염원	86	78
	사업장	9	16
	생활 주변	5	6
전국	이동 오염원	23	16
	사업장	66	82
	생활 주변	11	2

[나] 초미세 먼지(직경 2.5 μm 이하)의 연평균 농도 추이 (단위: $\mu\text{g}/\text{m}^3$)



※ μm 는 100만 분의 1m, μg 은 100만 분의 1g

[다] 전문가 의견

최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 먼지는 국내에서 배출된 오염 물질 외에 국내 미세 먼지 농도에 30~40% 정도 영향을 미치는 중국발 스모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최근 현상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이 중 2.5 μm 이하의 초미세 먼지는 크기가 작아 건강에 더 위협적임(초미세 먼지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야 관리 기준이 설정되었다.

EU(유럽 연합)의 경우 10여 년 전부터 대기질 관련 법규와 기준을 단순화하며 이행을 강화하고, 대기질의 측정 및 예보 체계를 현대화하며 초미세 먼지에 인체가 노출되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유럽 연합의 초미세 먼지에 대한 대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EU가 산업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여 호흡기 질환과 수명 단축을 야기한다며 정책적인 의지가 부족함을 지적한 바 있다.(EU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지적)

[우리나라는 국내 오염원의 과감하고 지속적인 감축과 함께 중국의 스모그 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며, 국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미세 먼지 예·경보 체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초미세 먼지에 대한 우리나라 대책 마련의 필요성)

- 대기 환경 전문가 ○○○ 박사

[지문 확인]

- 갈래: <보기 1> = 작문 계획 <보기 2> = 작문 자료
- 특징
-작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과 자료가 제시됨
- 주제 : 초미세 먼지

42. <답> ④

<보기 1>의 내용을 고려할 때 ㉞은 'II-1-나'에 대응되는 개선 방안이어야 한다. 그런데 'II-1-나'에서 미세 먼지 예보 및 경보 체계가 취약하다는 것은 이러한 체계가 이미 도입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보기 2>의 (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㉞을 ④의 방안에 따라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I'의 하위 항목 중 '해외 사례를 통해 본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고농도 미세 먼지 실태의 심각성'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안이다.
- ② 'II-2-나'의 대책과 대응 관계를 이루는 문제점을 제시했으므로 적절한 방안이다.
- ③ 미세 먼지 관리의 문제점이 아니라 미세 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인 현상이므로 글 전체의 흐름에 맞지 않아 'II-1'의 다른 항목과 긴밀성이 떨어지며, 'II-2'와의 대응 관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다.
- ⑤ 국가 간의 협력은 개선 방안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⑤의 방안에 따라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43. <답> ④

[다]에서는 EU의 법규와 기준에 따른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해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나]에 설정된 각국의 연간 배출 기준치가 최적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① 수도권 지역과 전국의 오염원 비중이 다른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
- ② [다]의 첫째 문단의 원인과 셋째 문단의 제안에서 국내만이 아니라 국외 오염원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나]에 나타난 도시별 연평균 농도는 초미세 먼지의 농도인데, [가]의 정보에 따르면 초미세 먼지는 미세 먼지 중 크기가 더 작은 먼지이므로 이 또한 농도가 높아질 경우 고농도 미세 먼지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⑤ [가]는 다양한 오염원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은 [다]에 제시되어 있다. [가]의 오염원을 [다] 관리 방안에 따라 어느 정도 관리하느냐에 따라 [나]의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4. <답> ⑤

<보기>에서는 과잉 교정 인간의 개념을 설명하고, '과잉 교정 인간'은 지나친 교정으로 인해 언어의 생동감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발견한 의미를 다른 상황에 적용한다면 '창의성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미숙한 생각을 말할 때라도 과도하게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글을 쓸 수 있다.

- ①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독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은 <보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미와 관련이 없

- 다.
- ② 어문 규정을 융통성 없게 적용하다 보면 창조적인 언어 사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내용은 <보기>와 관련되어 있으나, 다른 상황에 적용하지 못한 내용이다.
 - ③ 일상생활의 규범을 각자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의 유대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내용은 <보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미와 관련이 없다.
 - ④ 도덕적 원칙을 철저히 지켜 나갈 때 오히려 개인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다는 내용은 <보기>의 내용과 관련된 의미 추출이라고 볼 수 없다.

45. <답> ③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 유형별로 분류하는 방법이 사용된 것을 발견할 수 없다.

- ① ‘연륜 연대기’ 등의 주요 용어에 대해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연륜 연대기’나 ‘표준화된 연륜 연대기’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이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에서 일련의 단계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④ 글의 첫 문장은 물음의 방식으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첫 문단에서 고가구의 연대를 알기 위해 나이테를 활용하는 원리를 지층이 형성되는 원리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언어와 매체

35	②	36	②	37	②	38	⑤	39	③
40	⑤	41	③	42	③	43	⑤	44	④
45	②	수고하셨습니다.							

35번 문법 이론 : 본용언과 보조 용언

본용언	보조 용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홀로 쓰일 수 있음. • 주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홀로 쓰일 수 없음. • 본용언에 독특한 의미를 부여함.

35. <답> ②

<보기>에서는 보조 용언과 동일한 형태가 홀로 독립된 용언으로 쓰일 때는 독자적인 본래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의 형태는 모두 동일하지만, ‘-ㄴ 수 있다’의 꼴로 쓰이는 ㉡는 보조용언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본용언)이다.

36번 문법 이론 : 사동 표현

- ① 사동 표현: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것
- 주동 표현: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 ② 사동문의 실현 방법
 - 주동사가 형용사나 자동사일 때: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어가 됨.
 - 주동사가 타동사일 때: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부사어가 되고(‘에게/에’나 ‘로 하여금’의 형태), 주동문의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가 되며, 사동문의 주어는 새로 도입됨.

③ 사동문의 종류

파생적 사동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동사를 활용함. • 사동사: 주동사의 어간 +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시키다’
통사적 사동문	‘-게 하다’를 활용함.

36. <답> ②

주동 표현을 사동 표현으로 바꾸는 방법에는 <보기>의 2-(1)과 2-(2)의 두 가지가 있다. 이에 따르면 c와 d의 주동문은 공히 “동생이 약을 먹었다.”이다. “동생이 약을 먹었다.”와 같이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가 쓰인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는 주동문의 주어가 조사 ‘에게’를 취한 부사어로 바뀐다. 이 때 새로운 주어가 필요하다.

37번 문법 이론 : 이형태와 조사

이형태 : 형태소는 그 놓이는 환경에 따라 음상(音相)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흙’은 ‘흙이, 흙으로’에서는 ‘흙’으로 발음되지만, ‘흙도, 흙바람’에서는 ‘흙’으로 발음되며, ‘흙만으로, 흙먼지’ 등에서는 ‘흥’으로 발음된다. 한 형태소가 주위 환경에 따라 이처럼 음상을 달리하는 일을 교체 혹은 변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교체에 의해 달라진 한 형태소의 여러 모양을 각각 그 형태소의 이형태 또는 변이형이라 한다.

조사

• 관계언: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추가하는 의존 형태소로, 조사가 여기에 해당함.

• 조사의 특성

- ① 대개 체언 뒤에 붙지만, 때로는 동사, 형용사나 부사 뒤에 붙기도 하고, 문장 뒤에 붙기도 함.
- ② 관형사나 감탄사 뒤에는 붙을 수 없음.
- ③ 서술격 조사인 ‘이다’는 동사나 형용사처럼 활용을 함.
- ④ 조사 결합의 제약 : 대부분의 명사는 거의 모든 조사와 결합될 수 있으나, 일부 의존 명사와 자립 명사는 격 조사와 결합될 때 제약을 받는 일이 있음.

(1) 격 조사: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해 주는 조사

격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관형격 조사	보격 조사	부사격 조사	서술격 조사	호격 조사
	이/가, 게서	을/를	의	이/가	에, 에게, 에서	이다	야, 야
자격	주어	목적어	관형어	보어	부사어	서술어	독립어

※ 보격 조사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쓰여 앞에 오는 체언이 보어가 되게 함.

(2) 접속 조사: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조사

접속 조사	와/과	하고	(이)랑
쓰임	주로 문어에서 쓰임.	주로 구어에서 쓰임.	

(3) 보조사: 앞말에 어떤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

보조사	은/는	만, 뿐	도	요	부터	까지	조차	밖에	마저
의미	대조	한정, 단독, 유일	역시	상대 높임	시작, 먼저	도급, 미침	역시, 최종	한계	추종, 끝

※ 보조사 ‘요’는 ‘상대 높임’을 나타내며, 어절이나 문장의 끝에 결합함.

37. <답> ②

‘을/를’이 이형태가 되는 경우는 같은 목적격 조사로 쓰일 때이다. 가령, ‘나는 밥을 먹었다’에서 ‘을’과 ‘나는 사과를 먹었다’에서 ‘를’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②에서 ‘먹을’의 ‘을’은 관형사형 어미인 ‘(으)ㄴ’이 붙은 것이고 ‘차를’의 ‘를’은 목적격 조사이다. 이처럼 둘은 완전히 다른 형태소이므로, 이형태라고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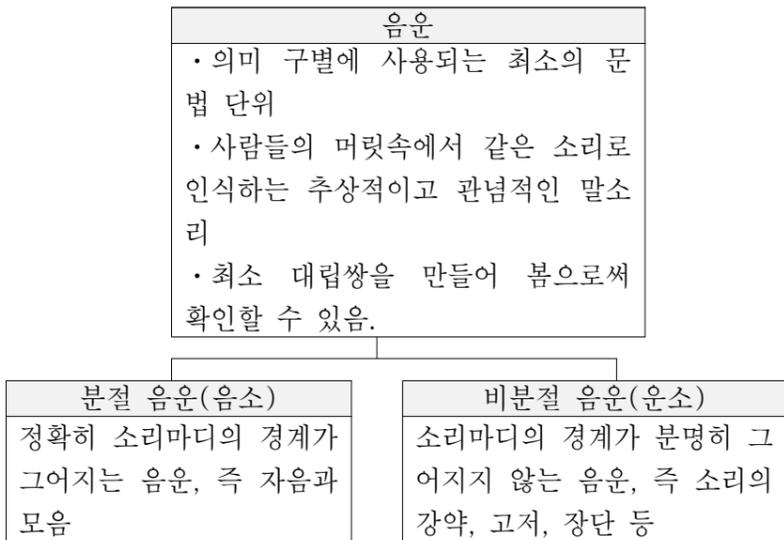
38, 39번 문법 이론 : 음운

① 음운의 개념

① 음향과 음성

음향(소리)	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소리 · 사람의 입에서 나는 소리 중 울음소리, 기침 소리, 재채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하여 나오는 말소리 · 물리적이고 경험적인 소리

② 음운의 개념과 체계



- 최소 대립쌍: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요소는 모두 같고 오직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의 짝 ㉠ ‘달-말’, ‘불-벌’, ‘설-섬’
- 음운: 최소 대립쌍에서 차이가 나는 한 가지 요소 ㉡ ‘달-말’에서의 ‘ㄷ’과 ‘ㄹ’
- 변이음: 의미 차이에 기여하지 못하고 하나의 음운에 속하는 소리 ㉢ ‘고기’에서의 두 ‘ㄱ’: 이 두 ‘ㄱ’의 실제 소리는 [k]와 [g]로 서로 다르지만 두 소리를 구별하여 의미 차이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없음.

② 자음 체계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입술소리 (순음)	잇몸소리 (치조음)	센입천장소리 (경구개음)	여린입천장소리 (연구개음)	목청소리 (후음)
		예사소리	된소리					
구강음	파열음	예사소리	된소리	ㅂ	ㅃ		ㄱ	
		거센소리	ㄷ	ㅌ		ㅋ		
		예사소리	된소리			ㅈ		
	파찰음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예사소리	된소리			ㅅ		ㅎ
마찰음		예사소리	된소리		ㅆ			
유음					ㄹ			
비강음	비음			ㅁ	ㄴ		ㅇ	

- 조음 위치/방법: 자음이 만들어지면서 공기의 흐름에 장애가 일어나는 자리/방법
- 소리의 세기에 따른 분류: 예사소리(평음), 된소리(경음), 거센소리(격음)
- 목청의 떨림 여부에 따른 분류: 울림소리(유성음), 안울림소리(무성음)
- ※ 비음과 유음은 항상 유성음으로 발음됨. 비음과 유음을 제외한 나머지 자음들은 기본적으로 무성음이지만 특정한 환경에서는 유성음으로 발음되기도 함.

③ 모음 체계

○ 모음: 날숨이 목청을 통과하면서 목청이 떨어 울리게 되면, 그것이 입안에서 공명을 일으키면서 만들어지는 소리

① 단모음: 발음하는 동안 입 모양이 일정한 모음. 10개

혀의 높이	입술 모양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ㅊ	ㅡ	ㅜ
중모음		ㅔ	ㅖ	ㅑ	ㅓ
저모음		ㅐ		ㅘ	

- 전설 모음: 입천장의 중간점을 중심으로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을 때 발음되는 모음
- 후설 모음: 입천장의 중간점을 중심으로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을 때 발음되는 모음
- 고모음(폐모음): 입이 조금만 열려서 혀의 위치가 입천장 가까이 있을 때 발음되는 모음
- 중모음: 고모음과 저모음의 중간쯤 되는 모음
- 저모음(개모음): 입이 많이 열려서 혀의 위치가 낮을 때 발음되는 모음
- 원순 모음: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서 발음하는 모음
- 평순 모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모음

② 이중 모음: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으로, 반모음 ‘j’ 또는 ‘w’와 단모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짐. 11개

상향 이중 모음	‘j’ + 단모음	ㅈ[ja], ㅊ[jə], ㅉ[jo], ㅊ[ju], ㅊ[je], ㅊ[je]
	‘w’ + 단모음	ㅊ[wa], ㅊ[wə], ㅊ[we], ㅊ[we]
하향 이중 모음	단모음 + ‘j’	ㅈ[ij]

- 반모음 ‘j’ 또는 ‘w’: 음성의 성질로 보면 모음과 비슷하지만,

반드시 다른 모음에 붙어야 발음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자음과 비슷함.

○ 모음 교체

• 하나의 어근 안에 있는 모음이 바뀌어 문법 기능이나 의미, 품사 따위가 달라지는 언어 현상 ㉠ 맛 - 멧, 늣다 - 낣다, 작다 - 적다, 밝다 - 볏다

• 양성 모음(ㅏ, ㅑ, ㅓ, ㅕ 등)은 어감이 밝고 산뜻하며, 음성 모음(ㅜ, ㅠ, ㅡ, ㅣ 등)은 어둡게 느껴짐.

• 의성어나 의태어에 많이 남아 있고, 일부 어미에도 남아 있음.

㉡ 알록달록 - 얼룩덜룩, 바스락바스락 - 버스럭버스럭, 살랑살랑 - 설렁설렁

보아서 - 부어서, 보아도 - 부어도, 보았다 - 부었다

④ 비분절 음운

① 소리의 길이(음장): 동일한 자모로 이루어진 단어라도 모음의 길이가 달라지면 뜻의 차이가 생길 수 있음.

짧은소리	말[馬, 斗]	눈[眼]	밤[夜]	발[足]	성인(成人)	말다[捲]
긴소리	말:[言]	눈:[雪]	밤:[粟]	발:[簾]	성:인(聖人)	말:다[勿]

• 긴소리는 단어의 처음절에서만 나타나며, 원래 긴소리를 가지고 있던 것이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짧은소리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음.

㉢ 한국 + 말: → 한국말, 함박 + 눈: → 함박눈

38. <답> ⑤

본문에서 다른 자음과 관계 맺지 않는 자음은 ‘ㅇ’과 ‘ㅎ’ 두 자뿐이라고 했다. <보기>의 표에서 ‘ㄹ’은 그 위치만 동떨어져 있을 뿐 예사소리 ‘ㄷ’에 획을 두 번 더 그어서 만든 유음이다.

39. <답> ③

<보기>에서는 ‘의’가 쓰이는 환경에 따라 ‘꺀’와 ‘ㅣ’의 두 가지로 발음되는 예를 들고 있다. 이것은 한글의 모음이 언제나 일정한 소리를 낸다는 위 글의 주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다.

40번 문법 이론 : 중세 국어

1) 중세 국어의 특징

1. 음운상 특징

(1)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 ‘△, ㅃ, ㅇ, ㅈ, ㅊ’ 등이 사용되었는데, ‘ㅊ’가 점차 소실되어 감.

* ‘ㅊ’의 소실(음소로서의 ‘ㅊ’는 18세기에 거의 소실됨. 문자로서의 ‘ㅊ’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년)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계속 사용됨.)

① 1단계 소실(16세기): 둘째 음절 이하에서 ‘ㅊ’가 ‘ㅊ’로 변함.

② 2단계 소실(근대에 속하는 18세기): 첫째 음절의 ‘ㅊ’가 ‘ㅊ’로 변함.

(예) ㅊ을 → 마을, ㅊ습 → 마음

(2) 모음 조화가 비교적 잘 준수됨.

(예) ㅊ매, ㅊ르매

* 모음 조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

(3) 성조가 있었고 방점(글자 왼쪽에 표시하여 음의 높낮이를 나타

낸 점)으로 표시됨.

(예) 나 · ㄹ : ㅃㅅ · ㅃ

(4) 어두 자음군(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자음의 연속체)이 존재함.

(예) ‘쑤’의 ‘ㅅ’, ‘짜’의 ‘ㅈ’, ‘뽕’의 ‘ㅃ’, ‘밭’의 ‘ㅃ’, ‘뽕’의 ‘ㅃ’

2. 표기상 특징

(1) 받침 표기가 종성부용초성에서 8종성법으로 변해 감.

① 종성부용초성: 초성에 쓰던 자를 종성에도 쓸 수 있게 함. (예) ㅃ(‘용비어천가’에서)

② 8종성법: 종성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종류가 여덟 개(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로, 받침에도 이 여덟 개의 자음이 표기됨.

예 스뽏디(‘훈민정음 서문’에서)

(2) 이어 적기를 함.

① 원칙적으로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연결될 때 받침에 쓰인 종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내려서 씀.

예 ㅃ들, 노미

② 표음적 표기(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에 해당.

(3) 띄어쓰기를 하지 않음.

예 사릅마다히여수뽏니겨

3. 어휘상 특징

(1) 현대 국어와 다른 의미로 쓰인 단어들이 존재.

예 어린, 어엿비

(2) 고유어와 한자어의 경쟁이 계속되었고, 한자어의 쓰임이 점점 증가함.

예 즘은 → 천, ㅃ름 → 강

4. 문법상 특징

(1) 주격 조사 ‘이’가 환경에 따라 ‘이, ㅣ, 0(zero)’의 세 가지 형태로 실현됨.

① ‘이’: 자음 뒤. 예 노미(놈 + 이), ㅃㅃㅃㅃㅃㅃ(ㅃㅃㅃㅃㅃ + 이)

② ‘ㅣ’: ‘이’나 ‘ㅣ’로 끝나는 이중 모음을 제외한 모음 뒤. 예 공ㅃ(공ㅃ + ㅣ), 부ㅃ(부ㅃ + ㅣ)

③ 0(zero): ‘이’나 반모음 ‘ㅣ’로 끝나는 이중 모음 뒤. 예 유ㅃㅃ(유ㅃㅃ + 0) 세가ㅃㅃㅃ(세가ㅃㅃㅃ + 0)

(2) 목적격 조사가 ‘을/를’, ‘을/를’로 실현됨.

예 바ㅃ(밥 + 을), 나ㅃ(나 + 를), ㅃ들(ㅃ + 을), 너ㅃ(너 + 를)

(3) 관형격 조사가 ‘의/의’, ‘ㅃ’ 계열로 실현됨.

① ‘의/의’: 평칭의 유정 명사 다음에 사용. 예 사ㅃㅃ(사ㅃㅃ의), 도ㅃㅃ(도ㅃㅃ의), 거ㅃㅃ(거ㅃㅃ의)

② ‘ㅃ’: 높임의 유정 명사 혹은 무정 명사 다음에 사용. 예 부ㅃ(부ㅃ의), 나ㅃ(나라의)

(4) 의문문: 의문사(물음말)의 존재 여부에 따라 문말 어미나 조사가 달라짐.

① 의문사(물음말)가 존재하는 설명 의문문: ‘-오’ 계열의 어미나 의문 보조사 ‘고/오’를 사용.

예 이 었던 광명고, 고원은 이제 었더호고

② 의문사(물음말)가 존재하지 않는 관정 의문문: ‘-아’ 계열의 어

미나 의문 보조사 ‘가/아’를 사용.

예 서경은 편안하^가 묻하^나, 이 쓰리 너희 좋^가

(5) 높임법에서 선어말 어미를 사용.

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샤)-’

예 흐시더니, 글으샤디

②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 ‘-줍-’, ‘-습-’

예 내 태탕子중를 섬기스보디 하늘 섬기습듯 햏야(내가 태자를 섬기기를 하늘 섬기듯 햏여)

③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 ‘-이 스-’

예 더욱 구드시리이다, 하나빌 미드니잇가

40. <답> ⑤

‘뵈스뵈니’에서는 선어말 어미 ‘-습(습)-’을 통해 주체 높임이 아닌 객체 높임이 실현되었다. 중세 국어에서 주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 ‘-시-’, ‘-샤-’로 실현되었으며, 객체 높임은 ‘-습(습)-’, ‘-줍(줍)-’, ‘-습(습)-’으로 실현되었다.

① ‘野人(야인)시’에서 ‘시’는 관형격 조사에 해당하며, 현대 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쁘디시니’에서의 ‘쁘’는 어두 자음군에 해당하며, 현대 국어에서는 초성에 두 개 이상의 음운이 쓰일 수 없다.

③ ‘새’는 현대 국어의 ‘새가’로, 현대 국어와는 달리 주격 조사의 형태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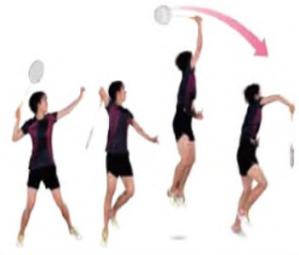
④ ‘므러’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형태로, 이것이 원순 모음화를 거쳐 현대 국어에서는 ‘물어’의 형태로 쓰인 것이다.

[41~43] 매체

[지문 분석]

(가) 인쇄 매체(매체 종류) - 책

스매시는 높이 떠오르는 셔틀콕을 빠른 속도와 강한 힘으로 화살과 같이 상대방의 코트 면에 쳐서 넣는 타구이다.(스매시 개념 정의) 배구의 스파이크와 마찬가지로이다.(비교의 방식) 스매시는 배드민턴의 기술 중 가장 매력적이고 화려하며 공격적 파괴력을 지닌 것(스매시의 특징)이 특징이다. 주로 셔틀콕을 빠르게 낙하시켜 상대의 자세를 무너뜨리며 랠리의 결정구로 사용된다.



타구하는 방법은 속도를 신기 위해 백스윙을 시작하는 동작이나 타구 후의 동작 등을 크게 해야 한다.(스매시 타구하는 방법) 공격에 성공하면 바로 득점으로 연결되지만, 실수가 잦다는 것(스매시의 단점①)이 스매시의 단점이다. 또한 동작이 클수록 상대에게 공격이 읽히기 쉽고, 타구 후에도 다음 동작으로 연결하는 것이 비교적 늦어져 상대에게 반격을 당할 수 있다.(스매시의 단점②) 따라서 스매시는 강하고 빠른 속도로만 타구하려 하지 말고 날카로운 각도로 경기장 양쪽 구석을 향해 정확히 치는 것이 효과적이다.(스매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ㄱ 스매시 공격 조건

스매시는 지능적인 작전을 잘하는 경기자가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체력의 소모를 적절히 조절할 것(과도한 스매시는 삼갈 것).
- 결정적 순간의 포착을 위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출 것.
- 수비자의 허술한 지점을 포착하여 공격할 것.

[지문 확인] (가)

- 종류: 인쇄 매체
- 특징
 - 배드민턴 스매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나열함
 - 비교의 방식, 정의의 방식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함
- 주제 : 배드민턴의 스매시

(나) 인터넷 매체 - 블로그(매체의 종류)



[지문 확인] (나)

- 종류: 인터넷 매체(블로그)
- 특징
 - 해당 매체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음
- 주제 : 배드민턴의 스매시

41. <답> ③

독자와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것은 (나)에 해당한다.

42. <답> ③

문자 : 직접적인 대화가 아닌 경우 정보 전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

43. <답> ⑤

정보 제공의 속도에서는 (나)가 (가)보다 신속하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는 인쇄물의 형태로 정보가 보존되고 (나)는 서버 등에 디지털 정보의 형태로 보존된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정보의 대량 복제와 배포 등에 있어서는 (가)에 비해 (나)가 용이하다고 볼 수 있으나, (나)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서버 등의 장치나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정보의 유통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정보가 소실되는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보 제공자의 범위에서는 (가)의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보 제공자의 범위가 폐쇄적이지만 그에 따라 정보의 신뢰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나) 매체의 경우 일반인들도 쉽게 정보 제공자가 될 수 있어 정보 제

공자의 범위는 (가)에 비해 개방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44~45] 매체
[지문 분석]

(가)

[지문 확인] (가)

- 종류: 인쇄 매체(신문)
- 특징
 - 해당 매체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음
 - 표제, 부제, 전문,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제 : 모기가 사라진 이유

(나)

[지문 확인] (나)

- 종류: 동영상 매체
- 특징
 - 해당 매체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음

• 주제 : 송선교의 아름다움

(다)

[지문 확인] (다)

- 종류: 인터넷 매체(블로그)
- 특징
 - 해당 매체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음
- 주제 : 감자조림 황금 조리법

44. <답>④

(다)는 인터넷 블로그이기 때문에 다른 매체에 비해 정보의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힘들다.

45. <답> ②

(가)에서 '반면 남부 지방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했으므로 '남부 지방은 중부 지방에 비해 강한 폭우가 더욱 심하게 이어졌다.'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